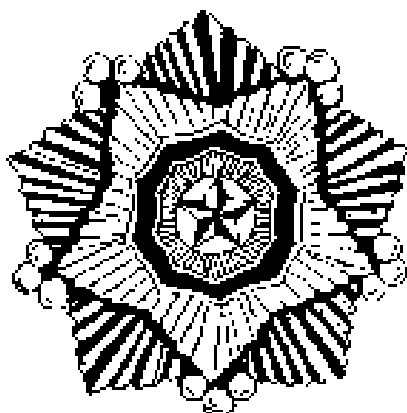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5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5호

(루계 제 655 호)

차 례

분홍치마저고리	4
명언해설	5
해살	5
내 삶의 별	6
장군님 다녀 가신 일터라오	6
소백수 물맛	6
생은 아름답다	7
탄과 꽃	17
별이 터치는 목소리	18
노래와 함께	18
《옥류관국수맛》	19
잊을수 없는 생일날	20
소형개인용컴퓨터	21
내 고향(외 2 편)	22
여울아 내 사랑아	22

젓줄기	23
타향에서	23
《별나라》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온 시인	24
새벽	37
조국애란 의미를 두고(외 1 편).....	39
나의 삶	39
채송화	40
대홍단소묘	51
어머니는 광부였다	52
21 세기의 화폐-전자화폐	63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1).....	64
녀인의 마음	70
물은 어떻게 오는가	76
깊이속의 깊이를 찾자	77

분홍치마저고리

로경철

산기슭의 층층 푸른 뽕밭...

일일이 돌아 보시고 떠나시는 장군님
해 저무는 언덕에서 바라워 드리며
너인의 마음은 무거웠네

(어찌하여 장군님
내 옷차림 눈 여겨 보셨을가
혹시 외람된것은 아니였을가?)
장군님 모시는 이런 날에
오래전에 입던 옷을 입고 올수 있는가
일군들은 못 마땅히 바라본듯 싶었네

장강, 화평, 랑림...
높은 령, 험한 길 헤치시며
장군님의 강행군이 이어 지던 어느 날
너인은 뜻밖에도
장군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네

너인은 망설이였네
옷장안엔 류행에 따르는 좋은 옷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입고 나셨네
그 분홍치마저고리

《분홍치마저고리 입은 동무의 모습
다시 보고 싶어 불렀소》
장군님 다정하신 말씀에
너인의 무겁던 마음 환히 개이고
일군들은 더욱더 영문 몰라 하는데

수십년전
현지지도하시는 수령님앞에
분홍치마저고리 입고 왔던 너인
그때는 이 동무가 젊었다고
장군님 자애로이 추억해 주시네

그날에 두분을 함께 뵈은 너인이였네
수령님이 그리워 동상을 찾을 때면
그날처럼 이 옷을 차려 입은 이야기
분홍치마저고리
지금껏 소중히 보관해 온 이야기

목이 메여 장군님께 말씀 드렸네

《그때 동무를 만나주신 수령님께서
차를 권하시었지
동무가 감격하여 그만 저고리에 쏟았던
그 차물흔적을
머칠전 뽕밭에서 나는 알아 보았소》

검소한 숙소엔
일시에 모아 지는 눈길들
정말로 너인의 저고리앞센엔
차물흔적이 알릴듯 말듯
일군들은 그제서야 의문을 풀고
너인의 얼굴은 달아 올랐네

《나는 이 동무가 입은
분홍치마저고리를 보고
수령님을 못 잊어 하는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였소》

그러시고는
비단숲을 가꾸는 동무인데
휴식일이나 명절에 입는 좋은 옷이
있어야 한다니며
장군님 손수 안겨 주시네
푸른 비단옷감!

《아마 수령님께서도 아시면
기뻐 하실거요!》
너인은 끝내 떨구고야 말았네
참고 참아 오던 더운 눈물을
그 푸른 비단옷감우에!

일군들은 뜨겁게 보고 있었네
분홍치마저고리엔
잊지 못할 그날의 차물자국...
사랑의 두른 비단옷감우엔
점점이 떨어 저 퍼지는
감격의 눈물자국...

명언해설

《정치가 뚫고 들어 가기 힘든 곳도 문학예술은 뚫고 들어 갈수 있으며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수 없는 것도 문학예술을 가지고 쟁취할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문학 예술이 정치나 총포로 해결할수 없는것도 할수 있게 하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 세계를 펼쳐 보이며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와 투쟁의 길을 가르쳐 준다.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깨우쳐 준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정치가 들어 가기 힘든 곳에도 들어 갈수 있고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수 없는것도 쟁취할수 있게 한다.

해설

박현철

그날엔 동강의 울창한 수림속에
따스한 봄별이 비쳐 들었다
하늘을 가리는 무성한 잎새들사이로
유난히도 눈 부시게 무늬를 짜며

계절은 봄이라도 아직은 녹지 않은
얼어 붙은 땅우에 눈무지를 녹이며
끝없이 펼쳐 진 밀림속에서
이 땅우에 터칠 눈석이의 봄우뢰를
스며 드는 해빛속에 기다린 그날

강도 일제의 발굽아래 추위에 떠는
2천만 인민의 위대한 힘을 일으키시며
아, **김일성** 동지
《조국광복회창립》을 선포하실 때
강토 삼천리엔 밝은 해살이 비껴 갔거니

그날의 천고밀림에 광원을 두고

비쳐 가지 않은 곳 그 어데랴
함흥과 평양, 서울과 부산을 지나
바다 건너 바다 건너...
일제의 심장부까지

하여 원쑤들에겐
전률의 화살 되어 날아 가 박히고
인민에겐 광복의 밝은 빛 되어 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여!
칠칠야밤처럼 어둡기만 하던 세상
그 세상의 한복판을 가르며 퍼져 갔어라

망국의 고통으로 얼었던 가슴들을
따뜻이 품안은 그 빛발아래
이 땅은 조국광복 새봄을 맞이했거니
동강의 5월에서 오늘도 비쳐 오는
전민족대단결의 붉은 해살이여
너는 무궁한 세월의 한끝까지
영원한 태양의 위엄으로 빛발치리라!

내 삶의 별

김철혁

나의 삶-
그것은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한생도 그렇게 빛나는것

내 바라는 그 별은
아름다운 시의 별
우리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그이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하나의 이름 없는 별일지라도
오래오래 빛을 더해 주는
그런 시의 별

내물처럼 줄기차게
수리개처럼 억세게
쉽없이 내달리고 나래치면

팔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별
내 열정 얼마나 모자라
그 별은 아직 저 멀리에 있는가

하지만 삶의 그 별
없으면 살아도 죽음
점령 못해도 삶이 아니기에
터져라, 솟구쳐라 나의 시여
그것으로 진정 다해 고백하는
이 땅에 바치는 내 사랑! 내 사랑이여!

그 사랑에
나의 땀 짙그리 쏟고
나의 피 마지막 한방울까지 다 태운다면
천리만리 멀고 멀던 그 별이
지름길로 달려 와 내 가슴에 빛나리
태양의 영원한 위성이 되어!...

가사

장군님 다녀 가신 일터라고

진춘근

숲이 많아 공원 같다 자랑들 하오
꽃이 많아 정원 같다 감탄들 하오
숲속에 꽃속에 높이도 솟은
예가 바로 영예군인 우리 공장
장군님 다녀 가신 일터라고

전화의 날 수령님 오신 그 길로
고난의 날 장군님 찾아 오셨소
따뜻한 품속에서 한생을 사는

예가 바로 보람찬 우리 일터
사랑만을 받아 안은 공장이라고

잊지 못할 그날을 안고 산다오
다시 모실 한마음 불 태운다오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 갈
예가 바로 정다운 우리 일터
장군님 다녀 가신 공장이라고

가사

소백수 물맛

안윤식

한모금 마시면 가슴 열리고
두모금 마시면 마음 맑아 저
정일봉의 해빛이 흘러 드는 물
물맛 물맛 소백수 물맛이여

한모금 마시면 어머님생각
두모금 마시면 혁명할 생각

정일봉의 높은 뜻 새겨 주는 물
물맛 물맛 소백수 물맛이여

천사람 한모금에 정이 통하고
만사람 두모금에 뜻이 같아 저
정일봉의 동지로 맺어 주는 물
물맛 물맛 소백수 물맛이여

생은 아름답다

최영학

산다는것이 무엇일까.

과학에 한생을 바치리라 청춘기에 선택한 인생 길을 한치도 헛디딤없이 자신 있게 걸어 왔건만 위험이 몸 가까이 다가온 지금 갑자기 이러한 의문이 생겨 나는것은 야속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집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요?》

오후 회진을 들어 온 과장선생이 자기 손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한사람씩 거쳐서 맨 나중에 현영라의 침대로 왔다.

《…》

수술립회할 사람이 왔느냐 하는 소린데 물으나 마나 립회인이 찾아 오면 병원측이 먼저 알게끔 되어 있다.

과장은 손짓으로 환자를 침대에 눕혔다. 환자복끈을 끄르지 않은 옷깃새로 손을 넣어 너인의 오른쪽젖가슴 옷부위를 조심조심 눌러 보았다. 이상발육조직의 크기와 위치를 가늠해 보는 의사의 가볍고도 예민한 지압에 따라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총알처럼 탄탄한 덩어리가 역스럽게 특골을 자극하였다. 암! 이 저주로운 덩어리때문에 한쪽가슴을 들어 내야만 하는것이다.

《수술후가 좋아도 인차 부부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에서 암이 재발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유선암수술로 그치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지 아니면 너성이기를 포기하고 다른 장기까지 마저 떼여 내든지 본인이 결심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전보를 치겠으니 주소를 적어 주소시오.…”

열흘전 이곳 종양연구소에서 암진단을 내린 직후에 과장선생이 한 이야기였다.

그리운 부모님과 동생들!… 이 몇해동안 문안편지조차 보내지 못한것이 죄스러웠다. 동생들은 다 시집장가를 가서 저마끔 제 등지를 틀고 살지만 그는 천리밖에 혼자 떨어져 저 살다보니 조카애들 이름이나 얼굴도 잘 모르는 형편이다. 이제 와서 혈육이라고 천리길을 달려 와 이 잘난것의 생명을 지켜 보아 달라고 해야 하나? 평소에 이 손으로 부모님 밥 한술 떠올린적 있었던가, 조카애들에게 연필 한쌍다리 보내준적 있었던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그리워 났다. 한달음에 달려 가 혈육들의 눈길속에서 조용히 생을 총화하고 싶었다. 너인은 그들의 이름을 차례로 적어 보았다. 그리고 보니 이 세상에 자기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주소만은 약간씩 틀리게 적었다.

지금까지 홀로 살아 온것처럼 모든것을 혼자서 겪어야 해. … 수술도 혹은 죽는것도… 이것이 아마도 운명인가봐.

그런데 막상 담당의사가 틀리게 적은 주소쪽지를 들고 방에서 나가자 곧 후회가 밀려 왔다. 전신마취되어 삶과 죽음을 남의 손에 맡긴채 혈육의 보호도 없이 수술대에 오를것을 생각하니 왜 그런지 다시 살아 나리라는 자신이 없었다.

때 늦은 후회와 후시나 하는 미련을 가지고 누구인가가 찾아 와 주기를 헛되이 기다리면서 현영라는 병원측에서 이야기한 문제를 곱씹어 생각했다. 《수술후에 인차 부부생활을 시작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이번 수술은 유선암수술로 간단히 끝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생활! 아이를 낳는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인가. 뜨거운 피가 온몸에 굽이쳤다.

심장이 후두둑 전율하고 온몸이 나른해 졌다.

숫저운 처녀의 녀이여! 강렬한 이성의 불길이어! 모질고 모질구나. 너를 이겨 내는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오래전에 벌써 나의 의지에 못 이겨 물러 가 버린줄 알았던 너!… 어느새 죽음의 씨앗을 나의 몸에 묻어 두고 갑자기 결투를 걸어 오는것이냐! 너와의 싸움에 일생 지쳐 왔건만 내 얼마나 너를 사랑했기에 돌연 생명까지 노리고 맞선단 말이냐.…”

《더 미룰수 없소. 립회인이 오지 않아도 래일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오.…”

과장선생은 병력서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면서 실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표정이나 태도가 데면스럽기 그지없었다. 《간호원이 해당한 준비를 일러 줄게요.》

이래저래 서글퍼 졌다. 돌맹이처럼 길가에서 채우는 심정이였다. 자기 손에 이미 수술 받은 환자들을 대하는 과장선생의 태도는 얼마나 살뜰한가.… 그런데 내게는 마치 떠돌아 다니다가 들어온 계집애를 대하듯이…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세탁소건물의 아연도철관 지붕에 돌맹이들이 날아 와 탕탕 떨어 졌다. 아이들이 병원담장밖에서 전기줄에 걸린 연을 떨구려고 연방 돌을 던졌다. 아이들, 가로수들, 자동차들… 맞은편 살림집 해빛 담백한 로대에 나와 방금 빨아 내온 속옷가지들을 널고 있는 젊은 너

인 그리고 푸른 하늘...

현영라는 삶이 흐르는 창밖을 이윽도록 내다보았다. 어느덧 도시를 지나 저 지평선너머에 아직도 펼쳐져 있을듯 싶은 자기의 삶이 안져 왔다.

×

어릴 때 그의 애명은 《감장큐리》였다.

《이제 오니? 우리 감장큐리.》

《아버지!》

소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뛰어들어 가 조그만 손을 펴보였다. 콩다리연필, 콩알 같은 지우개... 인민학교에 다니는 동네 큰 아이들의 숙제를 해주고 《벌어》 온 것이었다. 계집애한테는 아버지가 풀어도 자기가 풀어도 《3+4》은 《7》이 된다는 것이 재미 있었다. 그리하여 웃또래 학생 아이들을 따라 다니면서 숙제를 해주겠다고 졸랐다.

소녀는 《큐리》가 사람의 이름인줄 몰랐다. 그 저 자기의 얼굴이 감실빨갛하고 파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감장파리》가 아니고 《큐리》일까?

인민학교담임선생님은 좀 변형시켜서 《쪼꼬만 큐리》라고 불렀다.

《아버지, 큐리가 뭐냐요?》

인민학교를 졸업하던 때에야 이런 의문이 생겼다. 아버지는 대답대신 한뼘 가득 찬 서가에서 책 한권을 꺼내주었다.

《읽어 보라.》

두꺼운 책표지에 《큐리부인》이라는 글이 찍혀 있었다.

읽어 보았다. 그리고 마리아 스클로돕스까야 큐리! 이 훌륭한 녀성과학자의 이름이 자기의 애명으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작은 큐리!

이때부터 큐리부인과 그가 한생을 바친 물리학은 현영라의 꿈으로 되었다.

중학교담임선생님은 아예 그를 《현큐리》라고 불렀다. 그 선생님이 온 학급에 문학바람을 일으켰지... 선생님은 매주 읽어야 할 책을 지정해주고 토요일 오후에는 독후감을 발표하는 모임을 가졌다. 소녀는 적들에게 체포된 동무를 구원해야 할 일도 없고 적의 화구를 막고 장렬하게 희생될 수도 없는 자기 처지가 안타깝고 허무했다. 그러다가 후에 것처럼 훌륭한 인간을 창조해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갑자기 작가를 꿈 꾸었다. 누구나 경파하는 사춘기의 《문학 홍역》에 그도 감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그의 꿈은 다시금 《큐리》에게로 돌아왔다. 훌륭한 주인공을 그려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했던가. 《하어 멸망한 나라의 일개 녀성인 마리아 스클로돕스까야는 자기가 발견한 이 원소에 자기 조국의 이름을 달아 세상에

내놓았다...》

미지로 가득 찬 자연세계에는 내가 발견할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누군가가 쓰게 될 것이다. 《하어 현영라는 자기의 이 발견에(원소일까? 혹은 원리일까?) 자기 조국의 이름을 달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꿈은 현실로부터 이루어 진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그를 교무부장선생님 방으로 데려 갔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문건을 뒤적이다가 눈길을 돌렸다.

《이 학생입니다.》

그 사람은 약간 비웃음이 어린 얼굴로 대견스레 여겨 보면서 너그럽게 타일렀다.

《이것 보라구, 학생.》

녀자는 녀자답게 지망을 선택해야 해. 지금 선택하면 일생일인데 학생이 지망한 물리학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한지 아는가? 한마디로 남자들도 일생에 한번 성공하기 힘든 분야야.

국가적전지에서 보아도 녀자는 녀자에게 알맞은 교육을 시키는 게 합리적이거든.》

목이 메었다. 정당성을 주장해 낼 아무런 근거도 없기때문이었다. 큐리가 생각났지만 너무 컸다.

《그럼 전 대학 안 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돌하기 그지없는 대꾸였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은 그저 놀라운 듯이 웃었고 담임선생님은 바빠 나서 자기의 어깨로 학생을 감추며 어름어름 변명했다.

《저... 이 학생 애명이... <작은 큐리>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큐리가 되겠다는 건가!》

선생님들 사이에 의미 있는 눈빛이 오고 가더니 아무말없이 그를 내보냈다.

며칠 후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김일성종합대학 수물학부(당시) 수험통지서가 왔다.

담임선생님이 고마왔다. 그리고 그때 오셨던 그 선생님도... 본래 녀자는 물리학부에 받지 않는다는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관념이 굳어진 것이었지만 이것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었다.

(참, 담임선생님은 정말 좋은분이었어!)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웬일인지 입학통지서가 오지 않았다. 학급동무들, 선생님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지어 부모님들한테도 창피하였다. 단연코 시험성적은 의심할바 없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밥도 안 먹고 눈물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들어 온 아버지가 말없이 문서장 하나를 손에 쥐여 주었다.

《야!》

통 뛰어들어 올라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다가 그달음에 학교로 달려 갔다.

《선생님, 왔습니다! 입학통지서!

아버지가 가져 왔습니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다.

《훌륭한 여성과학자가 되기 바래요.》

대학에 온 다음에야 그는 입학통지서가 늦어진 까닭을 알았다. 사실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던 것이다.

《체중: 37.7kg.》

이것은 대학생으로서 나라의 민족간부로 준비해야 할 사람의 표준몸중량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담임선생님은 이것을 알고 매일 대학으로 교육성으로 찾아 다니며 사정을 하였다.

《키도 더 크고 몸중량도 더 늘겁니다. 다 큰 처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져 온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달려 가 담임선생님앞에 득의양양하게 흔들어 보였으니 그때 선생님마음이 어떠했을까.

아, 그리운 선생님! 용서하세요...

대학시절 그는 물리화적인 사고방식과 독서능력을 키웠다.

유명한 교수선생님이 좋은 말을 하셨다.

《동무들이 대학기간에 배워야 할것은 어떤 이론이나 문구들을 외우는것이 아니라 물질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리적인 사고방식을 터득하는것입니다...》

그는 드문히 강당의 맨 앞석에 꽃그루처럼 자리를 앉아 있는 세명의 녀대학생들 머리너머로 야릇한 웃음을 던지면서 말하곤 하였다.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세명의 녀대학생들은 지금 온 대학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한후에 가서 참으로 나라의 자랑이 되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밝혀 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물리화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듯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교수의 해학속에는 가슴을 때리는 뭉툭한 회초리가 있었다.

(선생님께 실망이 되지 않도록... 대학에 망신이 되지 않도록... 두고 보십시오!)

그러나 인생은 순진한 처녀를 쓰거운 미소로 지켜 보다가 심술을 부렸다.

불행은 갑자기 들이 닥쳤다.

아버지가 만회할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먼 북방의 광산으로 내려 가게 되었던것이다. 졸업을 얼마 앞둔 때였다.

평양에 홀로 남을 처녀는 기숙생이 되었다. 학구열에 온념을 불 태우고 있던 시절이어서인지 그는 처음에 이것을 그리 절망적으로 감수하지는 않았다. 사실 아버지는 혼자 내려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부득부득 집을 싸가지고 따라 내려갔던것이다.

대학기간 그는 언제나 중앙도서관의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독자였다.

《이젠 일어 납시다-아.》

마지막말을 높은 음계로 길게 끄는 관리원의 피곤한 목소리에 그는 책의 세계에서 깨어났다. 넓은 열람실에 자기 혼자 앉아 있고 관리원은 밀대질을 하면서 마지막빠스를 놓칠가봐 연방 시계를 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황망히 책을 거두어 들고 도서관을 나왔다. 독서내용을 꼼꼼히 되새기면서 인적 드문 길에 나섰다. 집은 그리 멀지 않았다. 웬 일인지 부엌불이 꺼져 있다. 밤 늦게 들어 오는 딸때문에 늘 부엌불을 켜두고 사이문가에 앉아 조율면서 기다리곤 하는 어머니였다.

(또 아버지가 꾸짖은게지.)

《다 큰 처녀가 제 집 못 찾아 올가봐 부엌불 켜놓구 있소?》

《크나새나 나 같은건 에미래두 불 꺼진 집에 들어 서기 싫습디다.》

《제 딸 귀한줄은 알구 나라전기 귀한줄은 몰라?》

어머니는 잠자코 부엌으로 나와서 공연히 빈 그릇가지를 떨그럭거린다. 그러다가 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 주기 바쁘게 화불이를 한다.

《좀 빨랑빨랑 들어 오군 하려무나, 으-응. 계집애가 뭘 그리 크게 될거라구 원!》

딸이 크게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아버지한테서 《나라전기》때문에 억눌림을 받은 어머니의 보복이었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부엌불이 켜지면서 잠에 취한 녀인의 생소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제서야 처녀는 이미 남의 집이 된 집으로 저도 모르게 찾아 온것을 깨달았다. 급해 맞아 도망쳐 내려 왔다. 거리쪽으로 뛰쳐 나오니 5층, 그 정다운 창문에서 서글픈 불빛이 흘러 나왔다. 이제는 정말 저 창문안에서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단 말인가! 자리를 차던지고 한구들 널려 자던 동생들도 없단 말인가!

창문가에 그림자가 얼른거리고 귀에 선 목소리가 웅얼거리더니 이내 불이 꺼졌다. 아, 목이 메고 눈물이 솟구쳤다. 푸름한 가로등불빛아래 홀로 앉아 빠스를 기다리면서 불 꺼진 그 창문을 눈물속에 울려다 보던 슬픈 밤, 외로운 정류소!

처녀는 처음으로 집 없는 도시에 홀로 남은 자기의 처지를 절감하였다. 평소에 혈육이 함께 사는 집이라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너무나 몰랐었다. 아, 아버지! 전등 하나 켜는것도 나라전기때문에 어머니를 책망하시던분이 어떻게 되여 그렇듯 엄청난 국가적손실을 빚어 내고 온 가정을 불행에 빠뜨렸나요?

그래도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였다.

졸업배치! 그때 처녀는 동요하였다. 그의 꿈을 실현할수 있는 과학원금속연구소가 지방도시 남포에 자리 잡고 있었기때문이었다. 나머지 평양을 떠나 지방으로 가야 하는가?...

그는 묵묵히 평양에 있는 10월5일전기공장 현장기사로 배치를 받았다. 배치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아 어쩔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기만하였다.

공장에 가니 손바닥만한 현장배치장을 주고 나서 현장구경을 시켰다. 도저히 마음 끌리는 구석이 없고 돌아 볼수록 어설피고 피곤하기만 했다. 현장구경을 끝마치고 났을 때 처녀는 마침내 자기를 한껏 타매하고 비웃었다. 온 대학에 소문을 낸 《현규리》가 택한것이 기껏해서 이런거야? 그 주제에 교수선생님이 말씀하실 땐 분해서 눈을 똑바로 뜨곤 했지. 《...하지만 졸업후에 가서 그들이 참으로 나라의 자랑으로 되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밝혀 지지 않았습시다.》

그때마다 속으로 대답해 오지 않았던가.

《두고 보십시오!》

아, 평양을 떠나기가 그리도 어려웠던가. 쓰거운 패배감, 잃어 버린 꿈, 지켜 내지 못한 량심, 이 모든것들이 그를 공격하였다. 지금도 대동강기슭의 그 살림집에 우리 집이 있다면야 무엇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놓고 량심에 쫓기우라... 은근한 원망과 쓸쓸한 고뇌를 감추고 부모에게 잘못된 전보를 쳤다.

《<10월5일>현장기사로 배치.》

그런데 아버지한테서 장문의 편지가 왔다.

《...만일 이 아버지의 과오가 너에게 교훈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은 나라앞에 2중으로 죄를 짓게 된다.

너의 선택은 중학교를 졸업한 처녀들이 로동과에서 직장배치를 받는것보다 훌륭하지 못하구나.

너는 마땅히 이 나라 배움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졸업생단계 물리학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사람은 매사에 개인의 욕구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요구로부터 출발해야 성공할수 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우리 당을 위하여 일생을 통하여 단 한번이라도 기쁨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선택하거라. 한순간도 개인적인 성공이나 영예에 유혹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의 충고가 아니라 나라에 커다란 손해를 끼친 한 공민의 인생교훈이다.

<규리>는 그 다음이다.》

하여 운명은 다시 결정되었다.

(고마와요, 아버지!)

그는 간부처에 찾아 갔다. 조금 으쓱해 가지고 약간 방자한 태도로 남포에 자리 잡고 있는 합금연구소로 보내줄것을 제기하였다. 간부처사람

은 의혹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심이요?》

처녀는 요란한 문구들을 고르면서 많이 말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고 벌써 그랬어야 했을것이었던만 마치 큰것을 회생하고 나서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처신했더랬지. 그저 《예!》하고 조용히 물러 나왔더라면 후날 그 일이 두고두고 부끄럽게 생각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영라!

운명은 결정되었다. 물리학자의 인생, 끊임 없는 난관과의 투쟁, 자연과의 1대1 대결이 너의 생애를 관통시킬것이다.

승리자로 남느냐 패자로 물러 나느냐.

너의 온 일생을 통하여 승부를 내라!)

동창생들이 배웅을 나왔다.

역앞에서 동무들과 마주 섰을 때 그는 처음으로 평양사람이 아닌 자기를 느끼었다.

정들었던 도시의 모든것이 뜻 깊게 안겨 왔다. 역사앞 소공원의 의자며 나무들사이로 바라보이는 빠스정류소에 줄 서 있는 사람들조차 리별의 아픔을 자아냈다. 윤미, 추월이, 《현규리》, 이 물리학부 《명물》들이 마주 서면 언제나 교수선생들의 매혹적인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애써 학문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있다.

《너성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인것이 아닐가.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물리학부 선배졸업생과 결혼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윤미였다.

나에게도 지금 그런 문제가 나섰다면 옳게 결심했을까? 윤미는 생의 기본목표를 허물어 버리고 너자의 그 법칙에 항복하고 있다. 추월이도 자기의 배치지로 가지 않고 결혼을 서둘러 곧장 평양에 눌러 앉으려 하고 있다.

《우선 아이를 다 낳아 키운 다음에 그때 가서 물리학을 전공한 부인답게 중앙도서관 사서 같은 직업을 구해야지 뭐.》

사랑과 직업을 동시에 구한 자는 얼마나 행복할가! 하지만 그것이 깨듯한것일가?

그는 문득 그 사에 《배치열풍》의 회오리에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끔 겪어 나오다 보니 너무나 낮은 준위에서 작별하게 되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손들을 꼭 잡고 서로 고무해 가면서 자세를 지켰더라면 우리는 보다 훌륭한 녀성으로서 보다 훌륭한 우애의 마당을 마련하였을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귀중한 시기를 귀중하게 보낼수 있었건만 결국은 삶은 시래기모양이 되어 버렸던것이 다.

처녀는 렬차에 올랐다. 손을 흔들었다. 손가락

을 부채살처럼 활짝 펴서 마주 흔드는 윤미, 추월이.

그것은 그후 오래동안 대오에서 떨어 저 나간 동무들의 측은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그때 누가 웅얼던가.

주체68(1979)년 3급연구사로서 독자적인 연구사자격을 가진 그 해에 그는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나갔다.

온 나라의 이목이 그곳으로 쏠리고 있던 때였다. 그곳에는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어 있었다. 막장에 들어 가보니 그곳은 자연과 인간의 대결전장이었다. 몇시간 구경이나 하는데도 산소부족 때문에 온몸이 숨처럼 나른해 졌다.

《좀 더 구경하구 가지요.》

그날 채탄기를 운전하던 소대장!

그 동무가 후에 그리도 큰 흔적을 자기 인생에 남기게 될줄이야...

번쩍이는 눈과 하얀 이를 내보이며 싱긋 웃는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려 교대가 끝날 때까지 그의 작업모습을 지켜 보았다. 함께 퇴근하여 갱방으로 나오니 머리우엔 은하수가 펼쳐 지고 시원한 가을공기가 폐장으로 흘러 들었다.

《저 접촉기점점 같은것은 어떻게 못합니까.

고놈의 작은 쇠볼이가 뭔지...》

당에서 귀한 외화를 들여 마련해 준 채탄설비들이 1~2년 지나서부터는 점점들이 완전히 마모되어 멀쩡한 기계를 세워 두거나 대용점점을 물고기뼈미처럼 매달아 놓고 부지런히 교체해 가면서 근근히 가동시키고 있었다.

《마음 놓고 채탄기를 운전하면서 탄벽을 팡팡 밀어 내는게 소원입니다.》

현영라는 돌격대참모부에 이것을 반영하고 련합부기사장을 만나 전반적실태를 료해하였다.

《문제를 바로 잡았소.

그 점점이란 놈이 탄광의 <암>이요.

아, 오죽하면 책임비서동지가 누구든 이 탄광의 <암>을 치료하면 업고 다니겠다고까지 했겠소.

아니, 웃지 마오. 현재 련합채탄설비실동물은 공칭능력의 70프로밖에 못되는데 그게 대부분 점점때문이요. 도이힐란드의 시멘스전기회사에서 점점일식만 따로 사오자니 그 사람들이 엄청난 값을 불러 대지 않소...》

탄광의 《암》!

그는 이것을 자기의 과제로 정했다.

그러나 돌격대 참모부는 처녀연구사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우선 할수 있는지 료해해 보오.》

평양에 갔다.

중앙도서관에서 점점과 관련한 외국기술문헌자료들을 조사해야 하였다.

정다운 2층 7호열람실!

카드철을 살살이 뒤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서들을 모조리 뽑아 냈다. 사서에게 접수를 시킨 다음 창가에 있는 자기의 옛 고정자리에 가앉았다. 한동안 눈에 낀 피로를 가시며 멀리 건물들 사이로 실실이 드리운 대동강변의 버드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윽하여 신청한 기술문헌들을 한아름 안고 온 사서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서로의 얼굴을 가로 막은 책무지너머에서 사서의 실무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정확히 대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접수 받던 처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책들을 하나 하나 옮겨 쌓으면서 제목들을 확인해 나갔다. 절반쯤 옮겼을 때 별안간 어릴적에 명이 울려 왔다. 가만히 속삭이듯이.

《깜장꾸리!》

놀라 눈을 들었다.

《윤미!》

두 녀인의 손이 책무지우에서 와락 뭉쳐 졌다.

그리고 그 손등우로 그리움에 젖은 눈빛을 주고 받았다. 소리없이 웃다가 소리없이 울었다. 또 웃다가 또 울고... 이렇게 10년만에 만난 두 녀인은 책무지사이로 이윽도록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두 녀성지식인의 판이한 인생 10년이 눈길로 오고갔다.

《행복하니?》

첫 마디에 인생을 건주어 보려는듯 한 말이 흘러 나오는 바람에 현영라는 당황했다. 어차피 이런 이야기는 나누기마련이지만 10년만에 만난 첫 인사가 이런 말로 되어서는 안되리라는것을 뒤미처 깨달았던것이다.

《글쎄...》

윤미는 어린애한테 갑자기 뺨을 얻어 맞은것처럼 한순간 굳어 졌다.

《저녁에 우리 집에 가자꾸나... 헌데 넌?》

윤미가 부러웠다. 《우리 집에 가자!》 동무를 만나서 이렇게 말할수 있는 녀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서른을 넘긴 녀자에게 있어서 《집》은 곧 가정이다. 남편, 아이들, 살림살이, 이웃, 직장... 이런것들로 녀성의 삶은 이루어 지는것이다. 그런데 나에겐...

윤미는 동무를 위해서 하루밤 남편과 아이들의 곁을 떠나 그의 곁에 잠자리를 뒀다. 그러나 깊은 밤 꿈을 꾸다가 깨여 난 그는 자기가 그동안 혼자 잤다는것을 알아 차렸다. 윤미는 어느새 아래방에 내려 가 있었던것이다. (아이들 잠자리를 보살피려고 잠시 내려 갔겠지. 인차 내곁에 돌아와 누울거야.) 헛된 미련을 품고 날이 새도록 뜬 눈으로 윤미를 기다렸다.

창문이 푸름푸름 밝아 왔다. 미담이가 가만히 열리었다. 윤미가 속옷바람으로 살며시 올라 왔

다. 그는 옷몸을 숙이고 가까이 다가앉는 윤미를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윤미의 형클어 진 머리카락과 속옷자락에 묻어 온 아이들 냄새가 그의 몸안으로 흘러 들었다. 눈물이 나왔다. 아, 외로운 새! 너는 누구와 더불어 이런 냄새를 즐기겠느냐.

《용서해!》

윤미는 그의 눈귀에 맺힌 눈물방울을 훔쳐 주면서 민망스레 변명했다.

《너에게야 사업이 있지 않니...》

윤미는 진정 그의 《사업》을 부러워 했다.

《우리 둘을 합쳐서 한사람의 생활을 만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꾸리부인도 두가지를 다 얻지 않았니. 글썄 뼈에르를 너무 일찍 잃긴 했지만...》

위인들의 생애가 다 행복했던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점점이라는건 그리 훌륭한 종자가 못되는것 같구나. 세계적인 발견을 꿈 꾸던 네가 아니니. 점점이야 공학적인 문제인데 그런거나 불들고서야 어떻게 꾸리가 되겠니.》

10년전 아버지의 편지구절이 생각났다.

《<꾸리>는 점점다움이야!》

하지만 윤미와의 상봉은 은근한 충격을 주었다.

(나는 너자다. 너성으로서 살고 싶어. 시절이다 가기전에...)

금, 은, 동 합금을 대신하는 몇가지 합금조성을 추천해 냈다.

연구소의 시험용해로에서 시료를 만들어 점점을 만들었다. 그런데 용량이 큰 점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체계가 없다.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직접 생산환경에서, 그것도 기동부하가 제일 큰 채탄기에 걸고 실험할것을 결심하였다.

시작해 보자, 현영라!

너는 이제부터 탄부가 되라. 갱안에 들어 가 탄 캐는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막장시험을 진행하라.

《태향》의 채탄소대장 《그 동무》의 채탄기에 시험도입하기로 하였다.

밀폐식대용량접촉기를 해체하고 접촉부에서 《암》을 뜯어 낸 다음 시험점점들을 붙이였다.

보조갱에 따로 설치된 기동기는 막장에서 채탄기를 운전하는 운전공의 조작에 따라 팡! 팡! 소리를 지르면서 전원을 이었다 끊었다 하고 그는 이 기동기결에 부엉이처럼 안전등을 켜고 지켜앉아 동작회수를 세였다.

이때 《그 동무》가 그에게 《작은 매》라는 정다운 애명을 달아 주었다.

《작은 매》는 처음에 요란한 폭음이 무서워 멀찌감치서 지키다가 차츰 담이 커져서 기동기가바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바닥에는 비닐박막을

깔고 몸에는 비옷을 뒤집어 썼다. 습기에 신발이 젖고 석수에 옷이 젖기때문이었다.

어느날 《작은 매》는 쓰러졌다. 기동기가 폭발하면서 푸른 섬광에 화상을 입었던것이다. 《그 동무》는 《작은 매》를 대신하여 조작할 때마다 샘을 세는 식으로 기동회수를 기록해 주었다. 그리하여 하루 한교대동안은 비옷을 입고 갱벽에 쪼그리고 누워 단잠을 잘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달 시험한 결과 순동으로 만들어 쓰던 대용접점보다 10배나 우월하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대단한 성공이요!》

돌격대참모부는 만세를 불렀다.

련합당위원회에서도 웃음이 흘러 나왔다.

어려운 시기의 간고한 첫 걸음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에게 바로 그러한 시기가 닥쳐온듯 싶었다.

4월 15일까지 련합보수사업소에 용해로를 만들고 시험점점생산기지를 꾸릴것. 10월 10일까지 모든 설비들에 시험점점을 취부하며 실험계획법에 따르는 과제들을 수행할것...

방대한 작업량을 앞에 놓고 계속 미열과 정신미약이 왔다. 분명 간장이나 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 나고 있다. 치료할것인가 내버려 둘것인가... 제발 점점이 끝날 때까지만 견디여 주으면 좋으련만.

한편 《생활의 법칙》도 그를 유혹하였다.

윤미가 부인들이 잡힌 추월을 휘둥해 가지고 탄광에 찾아 왔던것이다.

그때 추월이가 어떻게 말했는가?

《어느 날 나는 별다른 계기도 없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궁극에 가서는 자산을 위하여 사는것이 아닌가!

그러자 세상물정이 환해 지지 않겠니...》

그는 놀랐다.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을까?

《그래. 사회에서 자기를 위해 투쟁할줄 모르고 생활에서 자기 몫을 찾을줄 모른다면 유치원생이나 같애.

네가 일단 모든것을 버리고 과학에 운명을 건 이상 세계적인 목표를 세워야 해. 우리도 힘껏 돕겠으니 해봐!》

점점파위에 집착하지 말고 세계적인 발견을 목표하라는것이였다.

훌륭한 리상을 지녔던 사람이 현실에 굴복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세상물정》을 그는 웃음으로 물리쳤다.

《그건 이 다음에!》

인생의 옳고 그름을 어찌 선 자리에서 관가름할수 있으랴. 살아 보자. 일생을 통해 너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라. 그래서 생활은 곧 투쟁이라고 하는거야...

처음에 그의 투쟁은 유치하기 그지 없었다.

책임비서를 찾아 가 그의 방에 모인 책임일군들 앞에서 탄광사람들의 무책임성을 타매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혀를 깨물고 싶다.

《<태향>의 청년갱을 내놓고는…》

거기엔 믿음직한 《그 동무》가 있다.

《다른 갱 도입대상들에서는 기동회수를 대충 기록하고 지어 어떤 갱에서는 기록일지를 없애버리기까지 합니다.

4월 15일이 코앞인데 용해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련합보수사업소 지배인동지는 찾아 갈적마다 로력평계고 자재상사에서는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할 전기동에 대해서 아무 마련도 없습니다.

마치 탄광일이 아닌것처럼 모두가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책임비서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없는듯이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매일 나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시오. 어드런 사람들인지…》

이튿날 새벽 합숙마당에서 승용차경적소리가 울렸다.

《책임비서동지!》

이른 새벽 《그 동무》가 자전거종소리로 그를 깨우며 창문을 울려다 보곤 하는 그 자리에 까만 승용차가 서 있었다.

《늦지 않았소?》

《아닙니다!》

책임비서는 이 하루 전적으로 연구사처녀에게 바칠것을 암시하면서 운전사에게 일렀다.

《돌아 가요. 난 이 동무와 함께 걸어 다니겠소.》

《뭘니다, 책임비서동지.》

《떨어도 동무가 늘 걸어 다니는 길이겠지?》

《아니 저…》

얼결에 자전거소리가 들렸다. 《따르릉!》

《그 동무》의 자전거종소리와 함께 그의 하루는 시작된다. 이른 새벽 인적 없는 들판으로 《그 동무》와 《작은 매》는 날아왔다. 《그 동무》의 자전거를 타고 도입대상을 한바퀴 돌아 오면 합숙에서 첫 아침을 내는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만은 자전거대신 차를 탑시다.》

먼저 밭살스러운 ××갱으로 갔다.

《어찌다가 기록일지까지 잃어 버렸소?》

채탄공은 머리를 굽적거렸다.

《사실은 잃어 버린게 아닙니다.

채탄기를 조작할 때마다 센세기를 해야 하니 어떤 때는 기계를 왕청같이 운전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한번은 견인쇠바줄을 끊어 먹구 화가 나서 기록철을 콘베아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쩐다?》

동무네도 점점때문에 채탄기를 세워 두고 온 소대가 곡괭이와 질통으로 계획을 하느라 맥을 뽀곤 하지.》

《그러지 않아두 결집에 기록철을 없애 치우구 나서 계속 생각을 굴려 보았는데… 거 기동동작 때마다 한번씩 동작하는 센세기장치를 만들어 볼 일수는 없습니까?》

현영라는 눈이 반짝했다. 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전기소대동무들과 토론해 보겠어요.》

전자석에 웜치차를 결합한 간단한 자동계수장치안이 전공들속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풀려 나갔다.

그리하여 한달이 지난후에는 첫 시제품이 나왔다.

직접 설계하여 제 손으로 쌓은 로에서 쇠물을 끊어 얻어 낸 합금으로 시제품을 가공해 냈다.

그것을 가지고 련합당위원회로 찾아 갈 때 그는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땅을 밟으며 사는 자기를 느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물리해하고 함부로 무책임성이니 보수주의니 관료주의니 하는 감투를 씌우며 행악을 부렸던가. 지내 보면 진실하기 그지 없는 사람들인데 온통 저 하나 일하는것처럼 야단 피우고 돌아 갔던것이다.

용서하세요. 탄광동지들! 이제는 탄부의 성격을 알았어요. 석탄처럼 검은면서도 광택이 나고 돌덩이 같으면서도 뜨거운 열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돌격대사업총화가 시작되었다.

《련합기술발전실에서 계산한데 의하면 우리의 접점이 국가에 주는 연간 이익이 수백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소. 액상기준으로 보면 영웅이 나올 수 있는 성과란 말이요.》

돌격대정치부에서는 그에게 투쟁자료를 요구했다.

《우리한테서 영웅이 나온다면 그것은 돌격대의 자랑일뿐아니라 당의 과학자돌격대방침의 정당성을 증명하는것으로도 되오.》

내가 영웅이 된다?

나의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실험계획에 따라 각이한 조성과 배합비율로 만든 67가지 시험점점을 다 도입해 보고 그중에서 가장 리상적인 질지표를 찾아 내야 한다. 최대의 질지표를 얻어 내지 못한채 《이것이다》고 내놓는것은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돌격대의 일부 책임일군들은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아직 설익은 열매를 따려고 하는것이다.

《우린 지금 과학자돌격대이지 연구소의 연구사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 아직 당원도 못된 내가 영웅이 된단 말인가. 얼굴이 뜨끈했다.

물론 점점은 소경 문고리 잡은것이 아니다.

중금속가스중독으로 맛과 냄새를 잃어 버렸다. 가끔 내장이 끊어 저 나가는 아픔이 몰려 와 입에 손수건을 물고 진통과 싸우고 나면 살고 싶은

생각마저 없어 진다. 그렇다고 완성되지도 못한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것을 갑자기 영웅적희생으로 묘사해야 한단 말인가.

처녀연구사는 유혹을 이겨 내고 모지름을 쓸 때 큐리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과학자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사물이지 인간관계가 아니예요.》

《작은 매》야! 너 유혹에 끌리어 탄 눈 팔지 말고 바람 부는 바위우에 억세게 붙어 앉아 깃을 다듬어라. 아직 얼마나 멀리 날아야 하는지 모른다.

자기 사업을 끝마친 과학자돌격대는 각기 자기 연구소로 돌아 갔다. 영웅내신을 한다고 떠들던 현영라에게는 그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미해결》 항목에 넣어 버리는것으로 끝났다.

한사코 고집한 결과였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얼마나 야속하고 쓸쓸했던가. 비겁하게도 눈물까지 흘렸었지...

(이겨 내라 작은 매야. 너를 지키라!)

연구소에서 소환령이 떨어 졌다.

한해만 더!... 연구소와의 복잡한 줄당기기가 시작되었다.

탄광에 혼자 떨어 진 그는 야외에 설치한 시험 전동기에 붙어 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모양, 전동기를 켜운 철판밑에 들어 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동무》가 이따금 자기의 영양제식사를 가져 오곤 하였다. 거쳐 세마디도 말을 번지기 힘들어 하는 《그 동무》에게 얼마나 마음이 끌리고 의지가 되었던가.

1년만 더!...

전동기에 제동장치를 해놓았다. 동발목으로 전동기바퀴를 잡아 주는 원시적인 제동장치였지만 관성회전시간을 줄이니 시험기동회수가 배로 높아졌다. 동발목에 동동 매달려 전동기를 멈추고 연기가 펑펑 이는 제동부에 물을 끼얹은 다음 다시 기동시킨다.

《멀리서 보면 작은 새가 들소결에 붙어 돌아 가는것 같소.》

《그 동무》가 즐겨 말하곤 했다.

탄광에서는 시험장소가까이에 있는 버럭산에 의지해서 반토굴식으로 된 작은 휴게실을 지어 주었다. 난로를 들여 놓고 기름진 탄을 짜개 넣으니 연통안에서 왕왕 불길의 울고 방안은 훈훈하기 그지 없었다. 얼마나 행복했던가.

나에게 집이 있다! 전동기너머로 그림속의 새 집 같은 나의 조그만 집이 보이고 집안에서는 유리 한창을 넣은 피창으로 일터가 내다보였다.

한해만 더!...

한주일동안 부하시험한 점점들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이른 새벽 린접군에 있는 지질탐사대를 찾아 떠났다. 마모, 패임, 균열, 중량감소 등을 만분률로 측정해야 하는데 탄광에는 그런 측정설비가 없었다. 다행히 70리 떨어진 이웃 군에 있는 지질탐사대에 그런 설비들이 갖추어 져 있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줄고 줄면서 걸었다. 계속되는 피로와 피곤이 겹치며 태양 그랬다. 그런데 그날 따라 해가 떠오르고 길가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자 무릎이 녹아 내리고 머리가 핑 돌았다. 가로수를 붙들고 인사불성 주저앉았다.

3일만에 그는 탄광병원 침대우에서 눈을 떴다. 살았구나!

온 탄광에 연구사처녀가 길가에 쓰러져 죽었다는 소문이 났다.

책임비서가 문안을 왔다.련합지배인도 왔다. 아는 사람도 오고 모르는 사람도 왔다. 그리고 《그 동무》도...

눈물에 나왔다. 정다운 탄광! 좋은 사람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지 않소.

억지 쓸 생각 말구 탄광료양소에 가서 몸을 추세워야겠소.

그러다가 아예 쓰러지면 점점은 누가 완성하겠소. 이젠 당의 요구요.》

해변가! 경치 아름다운 료양소!

바다는 처음에 두렵고 무서웠다. 멀찌감치서 한결음한결음씩 바다기슭으로 다가갔다. 맨발로 백사장에 밀려 들어 왔다가 물러 가는 물결을 따라 점점 깊이 바다쪽으로 나아갔다.

시원한 바람! 따뜻한 파도!

날이 갈수록 바다는 하나씩하나씩 자기의 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미지의 힘을 안고 설레이는 바다, 곱슬곱슬 흰 물갈기를 말아 올리며 웅장한 파도소리 썩-우! 지르는 물의 장벽이 밀려 오고 밀려 온다.

가슴은 뻥뻥해 지고 불은 빨간 홍조가 피여 나고 웅심 깊은 바다는 그의 넋을 사로잡았다. 해수욕복을 입은 처녀는 바다로 들어 갔다. 파도는 조그만 그의 몸을 휩 감아 올렸다가 파도골짜기로 흥떡 던졌다. 자연의 품에 몸을 맡긴 그 환희에 한순간 가슴이 찢릿했다. 바다는 마침내 그 깊은 뜻과 아름다움, 진할줄 모르는 힘으로 처녀를 매혹시켰다.

《이제 돌아 가면!...》

그는 정든 바다를 향해 아름다운 수평선너머로 마음속 고백을 터뜨렸다.

《<그 동무>의 사랑의 파도에 몸을 던질테야.

뒤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누가 알랴. 나도 행복해 질지... 아마도 행복은 거기 태향의 버럭산에 붙어 있는 작은 집에 《그 동무》와 함께 하얀 회칠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 될것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 동무》의 정다운 자전거종소리를 들으리라. 내 손으로 맛 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 동무》에게 대접할수 없고 그의 몸에서 나는 땀내와 채탄기냄새 그리고 막장냄새를 맡을수 없다면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할수 없다!

료양을 마치고 돌아 가니 책임비서가 그의 작은 집에 찾아 왔다.

《이제는 탄광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동무가 우리 사람이 되면 영웅내신도 할수 있겠는데... 그만한 일을 했거든.》

《고맙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경표요. 당에서 보내준 가극단동무들이 오늘 저녁에 첫 공연을 하오.》

표를 받고 보니 《그 동무》 생각이 났다.

《저... 한장 더 없습니까?》

책임비서는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태향>의 청년갱소대장 주자던 표가 하나있긴 한데 어쩐다?...》

능청스레 시치미를 댔다. 처녀는 공연히 청을 드려 마음속을 엿보인것이 속상했다. 얼굴이 뜨끈해 졌다.

《이 동문 말이요...》 책임비서는 구경표를 흔들었다. 《오늘 같이 앓게 뵈테니까 잘 여겨 보오.

훌륭한 청년이요.》

아, 행복은 이처럼 발 맞추며 다가온다!

하건만 그에게는 행복을 맞이할 물질적준비가 너무나 부족했다. 차림새때문에 극장에 가기가 난처했던것이다. 여기 와서 7년동안 그는 늘 작업복을 깨끗이 다려 입고 다녔다. 노상 일터에 붙어 살아 온 그로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차림새였다. 그런데...

사실 처녀답게 계절과 시절의 유행을 다 따르며 차림새를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품과 노력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가 터득해 낸것이란 나들나들한 혼방보자기를 묘하게 접어서 쇠물통에 뚫린 구멍을 감추어 지도록 목수건을 받쳐 두른 다음 탄광재복의 목깃 위에 살짝 부풀게 만든 매듭을 내놓는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시간과 품이 들어 련합에 찾아 가거나 공정추진을 나가 두루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에라야 꾸미고 나서는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인격이 깎이거나 사업에서 손해를 본적은 없었다. 오히려 연구사처녀의 소박한 차림새로서 탄광사람들의 눈에 익은 모습이였다. 그러나 가극을 감상하는 훌륭한 채탄소대장의 처녀가 이처럼 초라한 차림일수는 없다. 그러니 어쩐단 말인가!

문득 추월의 말이 생각났다.

《백번 아니라고 해도 너자는 차리고 나서야 너자야. 하물며 너야 처녀가 아니냐.》

그렇다. 나는 처녀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처녀다운 행복을 맞이할 아무런 마련도 없어...

망설임끝에 갑자기 화가 났다. 커다란 불행앞에서도 주저 없던 자기가 여태 무시하고 살아 온 차림새때문에 망설이고 있는것을 발견했던것이다.

당치 않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할수 없는 그런 일때문에 위축되는것은 무익한 자기학대야. 보다 중요한것은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거야. 정신 차려, 현영라! 우리에게 외적인 꾸밈새가 중요

했더라면 《그 동무》와 너사이에 어떻게 사랑(우정이라고 해야 할가?)의 감정이 싹 터났겠니...

저도모르게 사람이라는 표현을 마음속에 떠올린것때문에 얼굴이 뜨거워 났다. 벽저울안에 마주 선 자기의 눈길에 못이겨 게면쩍게 물러 나 마가을 붉은 석양이 흘러 드는 창가로 갔다.

옛날 외적을 막으려고 흙을 구워 쌓았던 토성 단덕에 뿌린 봄시금치가 푸릿푸릿 돌아 났다. 곧 추위가 울터인데 생각없이 땅우에 싹을 내민 그것들이 가엾었다. 어려해를 두고 지켜 온 참된 우정을 아니아니 하면서도 끝내는 사랑으로 꺾어버린때문일까? 아니, 나는 처녀다. 아직도 청춘이다.

견잡을수 없이 타오르는 이성의 불길을 더는 꺼버릴수 없어. 영원히 《작은 매》라 불리우면서 《그 동무》의 바다처럼 억센 육체와 하늘처럼 푸른 마음속에서 훨훨 날아 오르고 내리꽂지며 흔히들 말하는 《너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거야...

극장은 초만원이였다. 통로에까지 가득찬 사람들을 비집고 표에 밝혀 진 좌석번호를 찾으니 뜻밖에도 귀빈석이였다. 그 중앙에 빈 자리 하나가 눈에 띄였다. 그리고 바로 옆좌석에 앉아 있는 《그 동무》의 모습이 후드득 안겨 왔다. 그는 모재비결음으로 믿어 지지 않는 행복을 향해 다가갔다.

무대우에서 《전쟁》이 벌어 졌다. ...땅크의 무한케도소리! 마차를 타고 가던 부상병후송대가 갑자기 멈춰 섰다.

《동무들, 적 땅크가 북으로 밀려 오고 있소.》

믿을수 없는 사태가 벌어 졌다. 후송대는 줄지에 적후에 들었다. 후송대를 책임진 처녀간호원 강연옥! 그러니 우리가 후퇴한단 말인가? 적후의 밤, 반짝이는 별무리! 간호원 강연옥은 복념하늘을 우러러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까

...

공연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는 줄곧 그 노래구절이 울렸다.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제신 곳은 그 어데일까

노래소리와 함께 어쩐지 자기도 대오에서 멀리 떨어져 진것만 같은 외로움이 북받쳤다. 노래의 힘일거야. 얼마간 지나면 일 없겠지. 눈 부신 영예와 가슴 벅찬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쓸쓸해 할 까닭이 뭐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거슬러 올려 오는 처녀간호원의 노래소리는 그가 애써 회피하려는 의식을 흔들어 깨웠다.

현영라! 너는 지금 자기 대오에서 리탈하고 있어. 접점을 끝낸 여기에 남아서 네가 할수 있는 것이란 명예와 사랑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일뿐

이다. 물론 7년간의 사심 없는 고난의 대가로 얻은 것이지만 보다 정당한 길을 택한다면 연구소에 돌아 가 새로운 과제를 받고 지금까지의 고난을 또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과학자의 량심과 숨박꼭질을 하고 있어. 어찌할수 없는듯이 자기를 속여 가면서...

돌아 서라, 현영라! 참되게 살려거든 어려운 길을 택하라! 일생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던 당초의 좌우명을 지키라.

배낭에 실험자료들과 성공한 점점들을 넣어 가지고 마치 지질탐사대에 측정하러 가는듯이 남모르게 탄광을 떠났다. 설필이었다.

연구소 정문에 낮 선 접수원처녀가 있었다.

처녀는 그의 증명서를 보고도 의심쩍은 눈초리로 형색을 살피더니 쌀쌀하니 말했다.

《알아 보지요.》

《뭘 알아 본다는거예요. 제 집에 왔는데.》

《글쎄 기다리라고.》

처녀는 그의 증명서를 만지작거리면서 전화를 걸었다. 얼마후 소장이 나와서야 그를 확인하였다.

《현동무가 아니요? 수고했소!

그런데 이젠 무슨 차림이요?》

그는 그제서야 시퍼렇게 언 얼굴을 목수전으로 감고 덜덜 떨고 있는 자기 물결을 의식하였다.

게다가 청남에서 통근렬차에 올라 화독을 불안고 왔더니 얼굴이며 손이며가 온통 탄먼지투성이였다. 왈칵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그는 연구소로 돌아 왔다.

두달이 지난 어느 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연구사업을 료해하시고 1톤의 점점소재를 생산하여 안주탄광에 보낼데 대한 믿음 어린 파업을 안겨 주시였다.

탄광에서는 점점소재를 싣고 온 그를 반겨 맞아 주었다. 정든 땅, 정든 사람들속에서 다시 두달동안 전투를 벌려 2천개의 점점일식을 생산하였다.

그사이에 《그 동무》는 몇해동안 기다려 온 늙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집을 잡고 안해를 맞아 들였다...

연구소에 돌아 보니 민족최대의 명절 4월 15일!

온 연구소가 환영의식을 차리어 그를 맞이해 주었다. 그는 사람들속에서 자기를 향해 꽃보라를 뿌리는 처녀! 전날 쌀쌀하니 눈을 흘기며 눈물나는 푸대접을 안겨 주던 접수원처녀를 보았다.

꽃보라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앞으로 보내주신 선물을 받아 안았다.

그해 점점연구논문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당면하여 새로 맡은 극소형자기원판 구동장치재료를...》

×

현영라는 창문에서 눈길을 거두며 과장선생의 말을 상기했다.

《유선암이라는건 초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치료할수 있는것인데 너무 오래 끼고 있었소.》

운명은 가려는 자는 데리고 가고 안 가려는 자는 끌고 간다고 했지. 어찌겠니. 생활은 너의 의지대로 줄기차게 이끌어 왔건만 죽고 사는 일만은 어찌할수 없으니 운명에 맡겨라. 가슴이 아픈것은 죽음보다도 나의 두뇌, 나의 지식, 나의 경험과 그동안 버리어 온 의지를 가지고 아직도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그것들과 헤어져야만 하는것이다.

현영라는 침대머리맡에 있는 사물함에서 그동안 정리해 둔 자료보따리를 끄집어 냈다. 이것들만은 운명에 맡겨 버릴수 없어.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꼭 완성되여야 한다.

그는 서면화해 놓은 인제자료들을 다시 더듬어 보았다. 놓친 점은 없는지... 보충할것은 없는지...

결국 하나하나의 수치들을 생의 마지막순간들과 바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성공이 내다보이는 이 귀중한 자료들을 두고 떠나야 할 슬픔에 눈물이 났다.

만년필을 들고 언제부터 버르던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초급당비서동지!

당원 현영라는...》 래일 마지막이라고 아니하기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이튿날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기나긴 복도를 걸어서 수술실결에 있는 준비실로 갔다. 인생의 마지막길을 외롭게 걸어 가는 그의 마음은 복도의 창문으로 해서 밝게 흘러 드는 햇빛을 받아 조금 위로가 되었다. 준비실에 들어 가니 밀차가 준비되고 그결에서 마취의사가 격려하는 눈빛을 지어보이고 있었다. 주사기에 모르핀을 빨아 넣는 마취의사의 침착한 동작을 지켜 보느라니 갑자기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다.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 있는 인간으로 남기 위해 사는것이다!

이제야 그것을 깨닫다니...

그는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것을 고결한 인격으로 여겼다. 이제라도 부모형제들과 연구소동지들에게 알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 이다지도 인정이 그리울줄은!...

마취의사가 밀차우에 누운 그의 몸밑으로 손을

넣어 조심히 모로 돌려 눕히고 척추에 선풍하
니 약솜을 비볐다.

그는 생사를 운명에 맡기면서 눈을 감았다.

×

이때 현영라의 생을 간막이 저쪽에서 당중앙위
원회의 두 일군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그의 생을 지켜 보고 계
시었다.

어제 현영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더듬어 보고 있던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원을 현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시관
을 돌아 보시다가 진렬대에 놓여 있는 자그마한
경자기원판을 집어 드시고 경자기원판을 우리가
만들어 낸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유색금속연구소의 녀성물
리학자 현영라라는 일군들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
서는 곧 그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내시었다. 몇
해전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내려 가시었을
때 그곳 책임비서가 자기네 탄광에 와 있던 처녀
연구사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그가 연구해 낸 접
점을 우선 쓸수 있게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고 청
을 드렸던것이다. 그 처녀연구사가 지금 암진단
을 받고 중앙연구소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꼭
살려 내고 건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삼과 록용을 비롯하여 귀한 약들을 보내주시었
다.

그러나 이 감격적인 이야기는 그가 충격적인
홍분을 감당해 낼만큼 회복기에 들어 섰을 때에
야 전달되었다.

그는 울었다. 일생을 통하여 단 한번만이라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
던 인생최대의 희망이 이렇게 문득 실현되다니.

이것이 정말인가 꿈인가!...

×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흘러 간후에야 우리의
주인공은 시대의 영웅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
구자대회 연단에 오르게 되었다.

《...제가 어떻게 달리 살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에 <고난의 행군>이
겹치여 어쩔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수령님의 육
성록음영구보존을 위한 기억매체를 해결할데 대
한 믿음어린 과업을 안겨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
켜 세워 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시었습
니다....

연단우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현영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속에 자기도 있다는것을 느낀다.
새로 받아 안은 연구과제가 두어깨를 무겁게 내
리 누르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고 영광
이 마련된다는것을 그는 안다.

보다 더 명백한것은 너무나 눈부신 대회
의 주석단으로부터 피치 못해 한동안 두고 떠났던 연
구사업으로 마침내 돌아 왔다는 느낌이였다.

노란 라크칠이 군데군데 벗겨 진 책상에 마주
앉아 현미촬영한 금속시편사진들을 한장 또 한장
번져 보는 녀성물리학자의 머리속에서는 어느새
일이 시작되었다.

(확실히 57번을 중심으로 금속조직밀도가 고르
로와 지고 있어....)

마치 어린 소녀가 남의 자리에 앉아서 엄청난
미래를 꿈 꾸는듯 한 평소의 낮 익은 모습으로
그는 돌아 왔다.

탄과 꽃

강성국

탄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에서
불길이 너울너울
강철숲이 자라납니다
비단물결이 굽이쳐 흐릅니다
행복의 푸른 잎새가 무성해 집니다

탄에는 벌나비 날아예지 않습니다
새들의 지저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탄은
생활의 향기를 풍겨 줍니다
창조의 노래를 울려 줍니다

아 탄!
내 구슬땀 뿌리면
우리 장군님 가꾸시는 사회주의락원에
만복이 무르익어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정녕 탄은
꽃입니다
향기입니다
숲입니다

탄이 아니면
아름다움이 시듭니다
향기!
향기가 사라집니다

별이 러치는 목소리

서봉제

귀속말처럼 조용히 불러도
여기 가까운 방풍림숲에서
어머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반기며 나오실듯 싶습니다

소리쳐 부르면 다시금 부르면
저기 신사동의 옛 마을에서
어머님은 두팔을 벌리시고
나를 향해 마주 오실듯 싶습니다

마주 갑니다
내 달음쳐 갑니다
연록색 주단을 깔아 놓은듯이
밀이랑 푸르른 벌의 한복판에서
이 대지의 저 한끝 로은산기슭에
백두산너장군이 오셨던 그 농가로 달려 갑니다

걸음보다 앞서던 이 마음
정갈한 부석뜨락이 멈춰 세웠습니까
오늘도 부엌문은 열려 있건만
오늘도 그리움이 발목을 잡아
내 선뜻 들어 서지 못하는
신사동의 키 낮은 동기와귀틀집이여

해 기우는 그 저녁이 아니었습니까
씨 뿌릴 그 봄은 다 가건만
한되박의 종자가 없어
그 작은 화전뽕기마저 묵이고야 마는
이 나라 농부의 쓰린 마음 헤아리시며
배당숙의 군량미를 밀종자로 털어 내신
김정숙어머님!

음달의 언 땅은 다 풀리었건만
바닥 없는 긴 한숨의 무거운 구름장
차디찬 설음의 얼음장을 녹이시며
무산지구전투의 그 바쁘신 행군길에
광복의 씨앗을 남기고 가신
그 사랑 정녕 봄빛만을 안겨 주신것 아니거니

하늘이 줄수 없었던 해빛으로
백두산장수벌의 하늘을 엮어 주신
사동천가의 이 귀틀집
땅도 남겨 두지 못했던 씨앗으로
광복조국의 푸른 대지를 띄워 주신
그날의 잊지 못할 력사의 이 뜨락

내 되돌아 달려 온 길 바라보니
일망무제한 벌의 한끝에서
봄부터 영글며 실려 오는 가을의 이삭소리여
새 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해빛아래
락원으로 꽃 피여난 대흥단 대흥단
해마다 온벌이 감사의 인사로 고개 숙이며
기름진 가슴으로 터치는 뜨거운 목소리여

아,
땀이 아닌 피를 바쳐
우리 수령님 찾으신 그 땅에서
풀뿌리로 주립을 이겨 내며
우리 어머님 소중히 묻으신 첫 씨앗에서
오늘의 복 받은 이 대지 태어났습니다!
끝 모를 백두삼천리벌 펼쳐 졌습니다!

(대흥단군 홍암농장에서)

노래와 함께

김선지

불 밝은 창가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를 때면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와라
나의 첫 사랑은 음악이라 하신
장군님의 뜻 깊은 그 말씀

철없던 그 시절엔
미처 다 알지 못한 그 뜻
고운 목소리나 자랑했더라
커가면서도 그저 흥에 겨워 부를 때도
미처 다 몰랐던 노래의 세계

허나 총잡고 선 초소의 낮과 밤
군가 높이 담을 키우고
용맹과 슬기를 키우며
조국을 알게 하던 노래
결전가를 부르며
판가리싸움의 불비속에서 느끼던 노래의 세계여

전후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신심 높이 부른 노래가 있어
사회주의터전을 닦았고
힘겨워도 어려워도

노래를 부르며 걸을 때
열정은 가슴에 썸 솟았나니

노래가 없었다면
붉은기를 바라보며
그 퍼덕임소리에 피가 끊고
그 기치 높이 땀 흘리며 달리던
위훈의 순간도 없었으리
고난과 시련앞에
주저앉고 말았으리

노래와 함께
노래와 함께 걸어 온
투쟁과 전진의 나날이어
노래와 함께 이긴
시련의 순간순간을 딛고 서서
신심과 희열에 부풀어 다시 터치던
승리자의 웃음이어 랑만이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우리 장군님 하신 그 말씀
오늘도 이 가슴에 뜨겁게 울려 와

이 심장에 약동하는 희열이 있구나
애국에 불 타는 심장이 있구나
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원췌격멸의 총창을 버려 안고
세상을 굽어 보는 배짱이 있구나

노래는 우리 생활, 우리 행복
우리 삶의 숨결
라남의 봉화 높이 웃으며 가는 천만심장에
강성대국의 래일을 안아 보는
신심의 퍼덕임

내 오늘도 노래를 부른다
가는 길 천만리에
장군님만 따르는 신념의 노래
결사옹위의 노래를

노래가 없다면
이 심장의 박동도 없으리니
노래와 함께 가는 생연
걸음걸음 위훈의 꽃을 피워
승리의 언덕에 안고 가리!

작가일화

《옥류관국수맛》

교수염을 단 단정한 모습이
작가 최명익의 초상이다. 걸불
안이라고 그는 생긴것 그대로
마음도 단정한 랑심인이었다.
작가들모두가 그러한것처럼 최
명익도 작품을 무척 귀중히 여
기고 아끼었다. 자기의 작품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자기의것이상으로 매우 귀중히
여기었다.

어느 작품토론회때였다.

그날 작가 리병수의 단편소
설 《사나운 겨울》을 놓고 많
은 논의가 벌어 졌다. 소설을
분독한 평론가들이 저저마다
일어 나 작품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쏟아 놓았다. 그런데 그
론조가 매우 격렬하였다. 작품
의 운명은 건지기 어려울 정도
로까지 되었다. 작가자신의 얼
굴은 컴컴해 졌다.

그러자 젊은 작가들이 일어
나 작품을 변호해 나섰다. 평론

가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작
품에 결함이 없는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타도식
공격》을 한다면 과연 작품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누가
작품을 쓰겠다고 하겠는가, 토
론들에는 《쇠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집어 드는 무서운 얼
굴들이 보일뿐 작가와 작품을
아끼는 진정이 없다 등... 모임
의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문제
가 작가들의 료리문제로 번져
졌던것이다. 이때 맨 뒤에 앉았
던 최명익이 일어나 앞으로 나
왔다. 모두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할것인가?...

최명익은 침착한 눈길로 작
가들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는
역시 침착한 어조로 말을 뱉다.

《내 오늘 옥류관국수이야기
를 할가 합니다.》

모두들 눈이 커졌다. 때 아닌

국수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럴
수밖에...

최명익은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소복한 닭고기꾸미우에 놓
인 무우, 배추김치며 삶은 닭알,
시뻘건 양념장, 향기로운 배쪽
이며 구수한 잣속살... 그중에
서 어느 하나가 맛이 없다거나
덜하다고 해서 이게 맛 있다,
저게 맛 없다, 요건 좀 참을수
있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해서
야 그것이 진짜 국수의 맛을
평가하는것으로 되겠습니까. 나
는 작품평가도 그와 같다고 보
니다.》

최명익은 말을 마치고는 나
울 때처럼 조용히 자리에 가았
었다. 박수가 울렸다. 그것은
최명익의 말에 대한 공정의 표
시였고 작가와 작품을 진정으
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한류덕

잊을수 없는 생일날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송고한 인간애를 지니고 동지들과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혁명적량심과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혁명가들입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바깥세상과 완전히 격폐된 감옥에서 20년, 30년이상씩 생활하면서도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서로서로 도와 주고 이끌어주며 놈들의 전향강요를 꾀곳이 이겨 나가곤 했다.

이 세상에 생일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남조선땅에 있을 땐 나는 생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공화국의 품에 안겨 고려호텔에서 동지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 줄 때는 더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었다.

더우기 생일 70돛과 80돛을 맞이하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는 행사에 참가할 때는 하늘보다 더 높은 그이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나는 이런 기쁨을 느낄 때면 잊을수 없는 생일날에 대한 추억과 함께 먼저 간 동지들의 얼굴이 떠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감옥밖에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감옥생활에서는 주위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 줄 때에야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때 흰쌀밥을 먹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 어찌다 상우에 흰쌀밥과 삶은 닭알 두개가 놓인 날은 틀림없이 내 생일이였다.

오랜 감옥생활기간 생일을 기억할 정신적여유도 없었고 또 기억한들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감옥에서 생일 특히 60돛생일을 맞는 사람들에 대해 전향공작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는 거의 다 비참했다. 그래서 생일을 잊어버리는것이 차라리 편했던것인데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 버렸다. 또 생일을 기억한다 한들 별수 없는 일인데 혹시나 전향공작반이 또 어떤 공공이장난을 하지나 않을가 걱정도 하게 되였다.

주체57(1968)년 10월 대구감옥에 있을 때였다. 좁은 감방에서 안선생과 신선생, 나 이렇게 세사람이 함께 있었다.

지리산에서 빨찌산으로 활동했던 안선생이 증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병간호를 할 사람이 필요했다. 나이가 제일 어렸던 내가 간병을 하기로 하였다. 나는 밥받기, 설겅이, 세탁을 하며 환자를 간호했다.

어느 날 아침 신선생이 심부름군을 불러 사랑한봉지를 신청했다.

신선생은 위가 좋지 않아서 아들이 약값으로 링치금을 보내주었는데 그 돈을 쓰면 약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것인지 걱정이 앞섰다.

나는 신선생이 심부름군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부탁을 하고 사례를 하려고 물품을 구입하는줄 알았다. 그런데 저녁에 신청했던 알사탕 한봉지가 들어 왔는데도 심부름군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식사후 신선생은 20알이 든 사랑한봉지를 터뜨려 한사람당 두알씩 나누어 주었다.

나는 사랑을 입에 넣고 오래도록 빨아 먹었다. 사랑 두알을 먹어서인지 그날 오전에는 책을 보아도 졸리지 않고 몸도 피곤하지 않았다.

점심식사후 아침에 그랬던것처럼 사랑 두알씩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알사탕을 입에 넣고 되도록 오래 먹으려고 조심조심 빨아 먹었다.

저녁식사후에도 다시 사랑 두알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알사랑 두알이 문제였다.

신선생은 환자에게 한알을 주고 나머지 한알은 굶은 일을 도맡아 하는 내가 먹어야 한다며 내앞으로 밀어 놓았다.

나는 그럴수 없다며 다시 신선생앞으로 사랑을 밀어 놓고 신선생은 또 내 손에 쥐여 주고 이렇게 몇번을 밀고 당기였다. 그렇게 몇차례 싱갱이를 했다.

신선생은 어쩔수 없다는듯 알루미늄합금식기 두개를 꺼내더니 식기 하나를 뒤집어 그우에 알사랑을 올려 놓고 다른 식기 뒤등으로 사랑을 내리쳤다.

그러나 알사랑이 어떻게 똑같이 깨질수 있겠는가.

신선생은 재빨리 작은 알사랑조각을 자기 입에 집어 넣고 큰 조각을 나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다.

더 거절할수가 없어 부서 진 알사랑조각을 입

에 넣고 조심스럽게 빨고 있는데 신선생이 슬며시 내손을 쥐고는 《오늘이 김동지 생일이지? 축하합니다.》 하는것이였다.

정신이 번쩍 들어 날자를 따져 보니 틀림없이 내 생일이였다.

나는 집에 있을 때도 옆에서 어머니가 알려 주지 않으면 생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때문인것도 있지만 감옥안에서의 고된 생활속에서 생일을 기억할 분위기도 아니여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선생이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아 냈는지 알수 없었다.

내 입속에서 단맛이 나야 할 반쪽 알사탕이 달기는커녕 씹쓸해 졌다. 그것은 신선생의 동지적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때문이었다.

신선생은 식사후 꼭 건위산 한숟가락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속이 편안해 했다. 그러나 약값으로 알사탕을 사다 나니 보름동안 먹을 약을 구입 못해서 식사후 소화가 잘되지 않아 몹시 괴롭게 지냈다.

그럴 때면 나의 마음은 몹시 피로와 누워 있는 신선생 배를 쓸어 주곤 했다. 그러면 신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 배가 아플 때 어머니는 내 배를 문질러 주면서 <어머니손은 약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김동지의 손이 어머니의 약손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서 《배가 시원하다》고 하였다.

그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생일날의 감정은 조금도 잊을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생일날이 되면 그 《잊을수 없는 생일날》 추억을 더듬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곤 한다.

함께 지내던 안선생은 주체65(1976)년에 대전 감옥에서 옥사했고 출옥후 신선생에 대한 소식을 알아 보았으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생일은 내 가슴속깊이 울렸던 감격이 있는가 하면 정 반대로 생일이란 단어가 분노와

지옥처럼 들리는 2중적감정이 동시에 일어 나게 한다.

박정희유신독재시절 전향공작이 극도에 달해 사람이 죽고 불구가 되던 주체65(1976)년 대구감옥에서 60돛생일잔치를 한다고 떠들썩했다가 분노로 사람을 죽게 만든 일은 두고두고 잊을수 없다.

당시 전향공작반 책임자 강모란 자는 감옥밖의 사람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사무실에서 《조출한 잔치》를 베풀었다. 감옥안에서는 구경할수 없는 음식을 가지고 왔던 외부사람들이 그런대로 《기본종계》 축하를 해주고 떠난 뒤 일이 벌어 졌다.

전향공작반 책임자가 그날 60돛생일을 맞은 당사자에게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해주었으니 전향서를 쓰라고 했던것이다. 당사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향공작반 성원들이 《생일상까지 차려주니 잘 얻어 먹고 뒤늦게 전향을 거절한다》고 달라 붙어 집단구타를 했다.

정신을 잃고 감방에 돌아 온 그 선생은 구타당한 어혈과 모욕 받은 치욕의 분노로 얼마후 죽었다.

그때부터 전향공작반에서 부른다고 하면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닌가 하고 날자를 쏘아 보는 습관이 새로 생겨 났다.

이처럼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생일이란 말조차 두려워 하며 살아 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그처럼 인간이화의 모욕과 취급을 받으며 살아 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아 주시고 참된 삶을 꽃 피우도록 온갖 사랑을 안겨 주고 계신다.

수십년세월 생일이란 말조차 잊고 살아 온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담긴 생일상을 받아 안을 때마다 세상에 태어난 생일의 의미와 행복을 늦게나마 다시금 느끼고 있다.

상식

소형개인용컴퓨터

어느 한 나라에서 영상표시장치를 분리할수 있고 몸에 착용할수 있는 새로운 소형개인용컴퓨터를 내놓았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보는 형식의 컴퓨터이다.

이 컴퓨터는 질량이 698g 인 이동식영상표시장치와 920g 인 소형개인용컴퓨터로 이루어 져 있다.

충격 및 진동방지구동이 설치되어 있는 영상표시장치는 120cm 높이에서 떨어구어도 견딜수 있으며 소형개인용컴퓨터로부터 50m 까지 떨어 져 있어도 동작한다.

소형개인용컴퓨터는 혁띠에 매달거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수 있으며 4시간정도 사용할수 있는 충전지를 넣을수 있게 되어 있다.

내 고향 외 2편

리동후

1

누구도 알리 없었더라
이름 없는 심산벽촌에
세월이 못 주던 행운이 찾아 온
그날의 그 새벽
젖빛안개 서려 오르는 마식령 넘어
산중턱 갈림목에 차를 멈추신 장군님
희끄무레 날이 밝은 정자나무그늘아래
웅달샘 한모금으로 마른 목 추기시며
이윽도록 양지골에 눈길을 없으시더니
심중에 젖어 오는 감회가 깊으신듯
조용히 이르시는 갈리신 음성
전쟁때 이 고향 인민들이
전선원호에 큰 일을 맡아 했는데
아직도 때뱃이를 못했다고
무거운 마음을 없으시고
다시 전선길로 떠나시는 차중에서도
끝안에 웅기종기 키 낮은 지붕들과
굴뚝에 피어 오르는 푸르무레한 연기가
눈앞에 모연히 어려 와신가
-나라형편이 아직 어렵지만
우리가 좀 도와 줍시다
산촌마을의 밝은 앞날을 낙관하시며
최전연 고지에 오르신 때는 어느덧 한낮
아 그 누가 알수 있었으랴
내 고향 웅달샘 그 한모금이
장군님 아침끼니를 대신할줄은

2

내 어디에 올라 발을 돌우면
한가슴에 다 안아 볼수 있으랴
한쪽의 그림같이 신비경을 펼쳤구나
백학의 무리 깃을 펴고 날으련듯
추녀 들린 문화주택 볼수록 멋이로다
은비늘 번쩍이는 버들방천 양어장들
포천마다 일렁이는 이삭의 바다
산중턱엔 양떼들이 구름같이 흘러 가라
멀리 발전기의 동음 타고 실려 오는
다기찬 발동소리 흥겨운 노래소리, 웃음소리
훈훈한 난방에 전기로 밥을 짓는
호화로운 삶의 기쁨은 한껏 무르녹아라
고마움은 한량없이 더해 지는 그리움속에
날은 가고 해를 넘어 풍요한 어느 가을날
또다시 마식령중턱에 차를 세우신 장군님
서느러운 훈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얼마나 파사로운 한품에 안아 보셨던가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무릉도원
로동당시대의 선경입니다
아, 축복 받은 고향이여
장군님 드신 그날의 웅달샘 그 한모금이
무릉도원을 적시는 생명수로 되었나니
어버이품속에 가장 가까이 안겨 사는
내 삶의 행복한 요람이여
너는 아름다운 상상봉 영광의 절정우에
조국이 다 아는 락원의 기념비로 솟았구나!

여울아 내 사랑아

여울아 여울아
서느러운 물바람 일구며
감뿔며 춤 추며 하냥 즐기이
나를 반겨 웃으며 속삭이는 네 노래
언제면 그 언제면 끝이 나라

감회도 새롭구나
나서 자란 정든 고향 멀리 떠나
해빛 밝은 전당에서 책장을 번질 때도
농장벌을 가꾸면서 구슬땀 흘릴 때도
나를 찾아 이 가슴에 너는 새겨 주었지

봄물처럼 유정하게, 바다처럼 웅심 깊게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마음껏 노래하라고

내 한생 단 한번 그 당부 잊었으랴
너처럼 맑고 깨끗하고 즐기차게 살리라
걸음걸음 마음 다져 온 내 어깨우에
고향은 무거운 짐을 얹어 주었다
너무도 평범한 이름 없는 시인에게

허나 어찌하랴, 여울아 내 사랑아
김치물에 절고 토장국에 푹 배인
이내 몸의 순결한 녀으로 지은 내 노래
고향사람들 가슴에 애정의 샘이 되어 준다면
이 땅에 한줌 흙이 된들 아쉬움 없으리!

젖줄기

아니 글썽 저길 보오
방죽우에 해군복을 차분히 포개놓고
침방 개울가에 뛰어 들었소
코흘리개 아이들과 잘도 어울려
개구리헤엄 치며 기분이 등- 뻗소

-아저씨, 해명도 개구리헤엄을 치나요?

-애들아, 나도 이 고장태생의 해병이란다

추억 깊은 소꿉시절 그리워 못내 그리워
고향의 시내물 바다에 이어 놓고
사나운 파도를 길들인 병사
아마도 산촌의 물소리 물냄새에 취했는가봐
마시며 자라온 어머니젖줄기여서...

라향에서

(로므니아) 미하일 에미네스꾸
역 홍현양

사람들이 즐기고 사람들이 여기서 노래할 때
사람들이 저마다 향락에 잠기고 구름 없는 나날
을 보낼 때
조국의 달콤한 낮, 옷는 들판을 안고
한 심장만은 미친듯 그리움의 눈물 흘린다

피로움에 모대기는 그 심장
슬픔의 노래 부르는 그 숨결
그것은 피로운 내 심장 애무할 길이 없고
그것은 내 숨결 끝 없는 그리움에 탄다

지금 보고 싶다, 내 고향 샘물터
미역 감던 은빛 시내물의 번쩍임을
지금 보고 싶다, 내 그토록 사랑한
시처럼 신비로운 숲의 설레임을

시인의 속삭임인양 신비로운 꿈결속에
맑은 공기 고요한 정적속에 잠이 든
달콤한 숨결을 주던 내 고향 깊은 골짜기에
다시 한번 큰 절을 하고 싶다

구름이 이마를 시원히 스치는 산정
그 높은 산정에서 눈이 시리게 바라보이는
꿈속에 묻힌 내 고향 정든 골짜기에

옛 조상의 오막살이 한채 나에게도 있었으면

나의 어린 시절이 수 놓아 진 꽃 피는 들판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 젊은 날 환희를 맛 본 땅에 찍힌 발자욱소리
다시 한번 들었으면 얼마나 기쁘랴

강기슭의 전설 같은 물결의 속삭임
새들이 나래치며 부르는 노래
처마끝에 울리던 푸른 잎들의 스적임
저 멀리 고향에서 나에게로 오는 못 견딜 그리움
이어

그렇다! 사랑하는 내 고향 내 조국땅에 있었다면
그렇다! 나는 다시 더 없이 행복했을걸
청춘의 푸르름, 랑만의 꿈이
내 온넛에 불 타올랐을걸, 타올랐을걸

만약 비참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맹수의 무서운 발톱이 그곳에서 떨어 있다 해도
내 고향땅에서만은 조용히 달게 잠들리
행복한 내 꿈을 구름에 실어 보내리

(1866년)작

《별나라》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온 시인

-시인 박세영의 창작과 인간모습을 두고-

안정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카프>가 창립된 때로부터 조선의 진보적문학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해 관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리기영, 한설아, 송영, 박세영, 조명희를 비롯한 우수한 <카프>작가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문단에서는 <고향>, <황혼>, <일채 면회를 거절하라>, <산제비>, <락동강> 등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위협하는 화약으로 되었다.》

나와 그

시인 박세영은 나이로 보아 나보다 25년이나 년장자이고 창작년한을 보아도 아득히 쳐다보이는 선배이다.

그는 첫 서정시 《해빈의 처녀》를 세상에 내놓은 이래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심장의 목소리로 쉬임없이 시를 내뿜었다. 그 흔적이 《박세영시선집》을 비롯한 10여권의 개인시집들과 작품집 그리고 근 2,000편의 동요, 동시와 서정시, 서사시, 가극들에 아롱져 있다.

나는 20대의 젊은 시절에 고급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은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시인 박세영을 만나본적이 없었지만 남이 쓴 작가론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마치나 잘 아는듯이 제자들에게 강의 하곤 했었다.

…그는 1902년 7월 7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가난한 사무원의 가정에서 보냈다. 주체11(1922)년에는 서울 배재고보를 졸업하였다. 재학당시 송영과 함께 회람문학잡지 《새 누리》를 발간하였으며 문학수업에 정진하였다. 이 시기 동창생으로서는 라도향, 박팔양, 김소월… 등이 있었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송영과 함께 비밀리에 《자유신종보》를 등사로 발행하였다. 그후 그는 중국 상해에 가서 해령영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주체13(1924)년에 귀국하였다.

송영, 리호, 리적효 등이 《염군사》를 무었을 때 그는 동인이 되었으며 《카프》창건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카프》맹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요, 동시 그리고 《타작》을 비롯한 많은 프로레타리아시들을 썼다....

학생들은 나의 이러한 이야기를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시인 박세영이 《애국가》를 창작한 작가라는것을 생각하면서 호기심에 찬 눈길을 나에게 보내고 있었다. 나는 어조를 둔구어 가며 계속 말하였다.

…시인 박세영은 주체15(1926)~주체23(1934)년까지 프로레타리아소년잡지 《별나라》를 책임지고 편집하였으며 이때에 많은 동시, 동요를 써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국적이며 전투적인 양식을 안겨 주었다. 주체35(1946)년 6월 공화국 북반부로 넘어 왔다. 주체36(1947)년부터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에 의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을 하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나팔수》를 비롯한 우수한 서정시들을 많이 써서 인민군용사들과 우리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로 고무하였다. 그후에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청춘의 기백으로 시를 왕성하게 쓰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아는데 한것이 쏙 쏙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기 에 제자들앞에 지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것이다. 흐르는 세월속에 내가 시인 박세영과 한 창작실의 한호실에서 20여년간을 같이 있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1960년대 중엽에 작가동맹 평양시창작실에 배치되어 왔을 때 창작실장이 나의 손을 잡고 10호실에 데려다 자리를 정해 주었다. 이것 또한 시인과의 인연을 맺게 한 하나의 계기로 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때 처음 만난 박세영의 모습은 내가 어느 한때 학생들에게 말해 주던것과는 판판이었다. 체소하고 수수한 보통 《령감》이었다.

그때 창작실 10호실에는 박세영, 리용악, 안룡만 그리고 내가 있었다. 나를 내놓고는 모두 이름있는 당당한 시인들이고 머리엔 하나같이 흰서리가 내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심부름도 기꺼이 맡아 하곤 하였다. 때로는 서문거리의 맥주집에도 먼저 가서 표를 떼고 담배가 떨어 지면 눈치 있게 1백화점에 나가서 사오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나도 그때 그리 젊지는 않았으나 그들에 비하면 아직 《애송이》였고 나에게 대한 그들의 애칭대로 말하면 《10호실의 막내》였기때문이다. 그후에 내가 세포

비서를 했지만 이 생활관습만은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문학의 선배로 존대했다고 생각한다.

시인 박세영은 우리 집과 같은 보통강구역에 있었기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자주 만나 함께 걸곤 하였다. 그때 내가 그에게서 받은 인상은 다음과 같다.

...시인 박세영은 성격이 온순하고 친진란만하다. 속임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순결하다.

일단 문학에 들어 가면 엄격하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숭배심은 남 다르다. 아마도 해방후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맨먼저 평양으로 달려 왔고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애국가》를 창작한 그 하해 같은 은혜와 고마움이 뼈속에 스며 있기때문이라.

그의 시는 담담하고 진실하고 가식이 없다. 심장이 시키는대로 진정을 내뿜는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 사회주의제도와 우리의 모든것을 뜨겁게 사랑한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많다. 인생 70고래회라고 하였는데 자신도 이제는 그것을 넘어 시인을 회억하게 되니 감회가 깊어 진다.

오랜 세월 나와 한방에서 지내며 현실체험도 같이 나가고 나에게 시도 배워 주며 당의 문예전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자고 조용히 말하던 그, 허물없는 문우가 되어 나의 별치 않은 시도 애정을 가지고 보아 주던 백발의 로시인, 그에 대하여 내가 글을 쓰게 되다니...

나는 생각에 잠긴다. 그의 방대한 작품들을 놓고 그리고 그의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모습을 두고 내가 무엇을 쓰며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걱정이 없지 않다. 물론 다 쓸수는 없다. 나의 필력도 모자란다. 그러나 될수록 덜지 말고 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충분하지는 못할것이다. 독자들은 나의 심정을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별나라》의 시인

《박세영 동시선집》[주체51(1962)]에 회곡작가 송영은 서문을 썼다.

《...문학으로써 왜놈을 반대하여 싸우던 <카프> 시기에 세영선생은 불같이 뜨겁고 총알 같은 동요와 동시를 많이 썼다. 동화극도 쓰고 동시극도 썼으며 소년소설도 썼다. ...<카프>의 아동문학부에서 신인들을 지도할 때나 프로레타리아아동잡지 <별나라>를 편집할 때에도 언제나 전투적인 동요와 동시를 많이 써서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지주와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계급의식을 높여 주었으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애국심과 투쟁심을 불러 일으켰다. ... <카프>시기 머리칼이 새까맣고 다리와 팔이 쇠처럼 단단하던 새파란 젊은 시인이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오늘은 어느덧 예순이 되었

다. 나이는 예순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어도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마음은 어린이같이 순진하고 깨끗하다. 아홉살때 동무인 송영》

박세영은 《별나라》의 시인이다. 그의 동시집들을 읽은지가 하도 오래서 나는 평양시 어느 한 대학에서 문학교원을 하는 그의 손자를 찾아 가책을 빌려 왔다. 다시 읽었다. 일제통치하의 그 삼엄한 시기에 참으로 대담하게 썼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그중에서도 동요, 동시 《풀을 베다가》, 《대장간》, 《오월행진곡》, 《구름을 모으는 마음》, 《할아버지의 흰 시계》, 동시극 《소병정》 등이 마음을 끌었다.

시내가 잔디에서
풀을 베다가
낮에 찢린 개구리
한마릴 보고
미운놈들 부른 배를
생각하였다

논두렁에 앉아서
풀을 베다가
황금이삭 물결치는
들판을 보며
지주놈들 고간을
생각하였다

언덕에 올라서
풀을 베다가
낮을 놓고 붉은 노을
바라다보며
북쪽나라 기발을
생각하였다

[동요 《풀을 베다가》, 《별나라》 주체17
(1928)년]

여기에 설명을 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제통치하의 암담한 시기 농촌의 아이들이 이 동요를 읽으며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의분으로 종주먹을 틀어 쥐고 어서 커서 왜놈들, 지주놈들을 쳐부실 생각으로 가슴이 끓었을것이다.

동시 《오월행진곡》은 당시 시인의 사상을 유감없이 대변하였다.

우리들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무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정다운 동무
온 세상의 동무야
모두 나오라
××기발밑으로
우리는 가자

맑게 개인 오월의
하늘을 보라
붉게 타는 오월의
태양을 보라
온 세상의 동무야
모두 나오라
××기발밑으로
우리는 가자
...

※ 《××기발》은 붉은 기발을 의미함[《별나라》주체20(1931)년]

나는 《별나라》시기의 그의 동요, 동시들을 여기에 다 펼쳐놓을수 없다. 동요 《대장간》[주체16(1927)년]에서는 근로자들이 모두다 손을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를 은유적수법으로 표현하였으며 《할아버지의 흰 시계》에서는 몇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흰 시계를 놓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갈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시계는 멎고 할아버지의 병은 더해 간다. 그러나 시계는 댕각댕각 다시 간다. 시인은 《이건 이 건 새날로 달려 가는 발소리 세상의 소리》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더 살아 갑쇼. 우리들의 새날을 보고나 갑쇼.》라고 한다. 이것은 기어이 오고야 말 새날에 대한 확신이며 락관인 동시에 시인의 주장이며 신념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서정이 듬뿍 담긴 동요, 동시들이 많다. 이 모든 작품들은 레외없이 무산계급의 편에서 아이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것으로 일색화되어 있다.

동요, 동시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겠기에 해방후에 창작한 작품들을 여기서 언급하려 한다. 우리들속에 적어도 60대의 사람들까지는 그의 동요, 동시를 읽으며 노래하며 자랐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뒤동산에 핀 꽃은
흰빛무궁화
개울앞에 핀 꽃은
보라무궁화
피고 피고 또 피어
수를 놓나니
금수강산 삼천리
아름답구나

노래 《무궁화》의 선율이 들려 온다. 나도 조용히 불러 본다. 이것은 주체34(1945)년 8월 28일에 시인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서울에서 쓴 아동가사이다. 아이들도 부르고 어른들도 불렀다. 눈물이 났다. 해방된 조국, 아름다운 내 나라 강산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짝 차올랐다.

그에게는 해학적인 노래도 있다. 《저 건달》은

동요가 노래로 된것이다.

건달 건달 놀고 먹는 저 건달
저 혼자만 잘 살려는 저 건달
아저씨는 나라일에 밤낮 바쁘데
저 건달은 허구한 날 놀고만 먹지
[주체35(1946). 12. 8]

누구나 다 아는 노래가 여기에 또 있다. 그때도 부르고 오늘도 부른다. 앞으로도 부를것이다.

보고 싶은 원수님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 봐도 기뻐요
우리들이 어느 때나
보고 싶은 원수님

나비 같은 리봉에
아름다운 무용복
노래하며 춤을 추면
웃어 주실 원수님
...

[주체44(1955)년]

어찌 그뿐이겠는가. 《아름다운 우리 나라》도 그가 쓴 노래이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파란 하늘 푸른 강에
산은 보라빛
개나리 진달래
앵두 살구꽃
 시내가의 수양버들
춤을 추지요
...

[주체37(1948)년]

시인은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 천리마가 날아 오르던 시기... 그후에도 동요, 동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서정서사시를 계속 써내었다.

서정서사시 《<김일성 원수 만세>를 부릅시다》[주체43(1954)년]에서는 만경대학원 원아들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과 그들이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운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 《인민의 태양 우리 아버지》[주체51(1962)년]에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들(아이들)을 해빛처럼 품어 주시는 고마움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

래하고 있다. 채더미를 헤치고 맨먼저 지어 주신
우리 집(학교)에 대하여, 야영소를 세워 주시고
고운 옷과 책가방, 신발을 안겨 주신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겠다고 다짐하
는 아이들의 심정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땅크사냥군조》, 《어디라도 와봐라》,
《천리마건설장》, 《인민군대 만세》 등 수십편의
동요, 동시들이 있다. 내가 아동문학을 잘 모르는
주체에 그의 동요, 동시에 대하여 더 파고 든다
면 무리한 일로 될 수 있다. 더우기 해방전후에
걸쳐 그가 쓴 동요, 동시들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산제비》는 오늘도 날고 있다

시인 박세영의 창작에서 아동문학분야는 큰 몫
을 차지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여 그는 역시 성인
시를 기본으로 한 작가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해방전에 쓴 그의 서정시에서 대표작은 《산제
비》 [주체25(1936)년]와 《타작》 [주체17(1928)
년]으로 공인되고 있다.

주체26(1987)년에 발간된 시집 《산제비》를
펼쳐보자.

민촌 리기영은 이 시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
이 썼다.

《나는 시인 박세영군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시를 모른다. 모르는것을 아는체 하고 주적거리
는것처럼 쑥스러운것은 없다. …허나 나에게도
기어코 한마디 말을 청하는데는 굳이 사양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다.

군의 시는 그의 인품과 같이 고옴다. 나는 <랑
만 제1집>에서 군의 근작 <산제비>를 재미 있게
읽었다. <산제비>는 호평을 받았다. 하거니와
나같이 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슴속에 느
껴 지는 무엇이 있었다. 무릇 시처럼 어렵다는
말이 있다. … 그런데 군의 시 <산제비>는 첫째로,
알기가 쉽다. 가장 쉬운 말로 간결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탈속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었
다. 그리고 의미가 심원한 리상을 독자로 하여금
동경하게 하였다. <산제비>의 리상! 그것은 실
로 전 세계인류의 위대한 리상이 아닌가? 현하의
정세에는 건실한 리상을 부쳐 주는것만도 우리
는 그것을 값높이 사지 않으면 안될줄 안다. …》

(1937년 6월 민촌 생)

나는 《산제비》를 다시 읽어 본다. 60여년전에
리기영선생이 흥분해서 읽던 그때를 마음속에
새겨 보며…

남극에서 왔다
북극에서 왔다
산상에도 상상봉

더 오를수 없는 곳에
깃들인 제비

너희야말로 자유의 화신 같구나
너희 몸을 붙들 자 누구냐?
너희 몸에 알은체 할자 누구냐
너희야말로 하늘이 네것이고
대지가 네것 같구나

록두만 한 눈알로
천하를 내려다 보고
주먹만 한 네 몸으로
화살같이 하늘을 꿰어
마술사의 채찍같이
가로세로 휘도는
산꼭대기 제비야
너희는 장하구나

…

산태지가 붉은 흙을 파헤칠제
너희는 별에 날아 볼 생각을 할것ियो
갈범이 배를 채우려 어슬렁거릴제
너희는 인간의 서글픈 소식을 전하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알려 주는
천리조일것이다

…

땅이 거북등같이 갈라 졌다
날아라 너희는 날아라
그리하여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구름을 모아는 못 올라
날아라 빙빙 가로세로 솟치고 내닫고
구름을 꼬리에 달고 오라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헤치고 안개를 헤쳐라

[주체25(1936)년 9월]

나는 시평을 하고 싶지 않다. 시 《산제비》를
두고 그날과 오늘의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 찬양
한것으로 대신하면 그뿐일것이다. 나는 다른것을
생각하고 있다. 해방후의 박세영 하면 《애국가》
가 울려 오듯이 해방전의 박세영 하면 《산제비》
가 떠오른다.

그렇다. 시 《산제비》는 청춘시절의 박세영이
다. 왜냐 하면 시인은 《산제비》에 자신의 희망
과 랑만, 리상과 사상을 깡그리 담았기때문이다.

구름을 헤치고 안개를 헤치며 화살같이 날 그

날과 혁명의 번개구름을 모아 오라고 시인이 그
 로록 웨치며 갈망하던 희망의 새 산제비, 그 산
 제비는 오늘도 날고 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남녘의 하늘에 그리고 시인의 리상이 실현된 북
 녘의 맑고 푸른 하늘에,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자
 주의 강성대국인 사회주의 우리 하늘에 사랑의
 새 행복의 새로...

당시 일제의 가혹한 검열을 피하여 프로레타리
 아작가들이 우회작전을 하며 암시와 상징적수법
 을 쓰지 않을수 없었던 형편에서 이런 높이, 이
 런 열정으로 시를 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정시 《잃어 진 봄》이나 《타
 작》도 《산제비》와 같이 상징적수법으로 씌어
 진 우수한 작품들이다.

나는 다시금 이 시를 보면서 어려서 지주집 땅
 을 빌려 소작을 하던 할아버지를 생각한다. 새까
 망고 강마른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 불쌍
 한 모습을 생각한다. 지주집 마름이 타작마당에
 지켜 앉았다가 북데기까지 달구지에 실어 가던
 그날을 통탄한다. 서정시 《타작》은 우리 할아버
 지들의 그 원한의 가슴을 헤쳐 보인것이나 아닌
 지... 착취자들에게 살림을 빼앗겨 뒤뜰에 피는
 화초들마저 길들일 마음의 여가가 없고 래일에는
 마을의 개조차 늑대가 될지 모르는 세상, 자빠
 지려는 허재비꼴이나 다름 없는 그들의 참상, 그
 러나 시인은 그들의 비애를 안고 울지만 않았다.
 벼 한알없이 쓸어간 마당에서 하늘타를 잊어 버
 린 농민들이 분노에 사무치도록 시를 끌어 올렸
 다.

...

우리들의 마음까지 비수에 찢린
 땅처럼 되려나 보
 라는 가슴에 폭풍이 일려나 보

그렇다. 시 《타작》의 생명은 여기에 있다. 시
 인이 사실을 확인하는데만 그쳤다면 이시가 어
 켜 세월을 넘어 우리의 가슴을 그토록 강하게 울
 리겠는가.

별은 태양이 있어 빛난다

피가 지도록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과 분노로
 시를 쓰던 참담한 세월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20여성상 눈보라를
 헤치시고 불바다를 넘으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찾아 안고 개천하신것이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민족재생의 불길이 황황 타오를제 서울의 단칸세
 방에서 실성한듯 큰소리로 웃어 대며 감격의 눈
 물을 팔팔 흘리던 시인이 위대한 수령님품에 안
 겠던것이다.

시인 박세영은 그날부터 43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서 각별한 사랑과 배려속에 살며 주체문학의 한

길을 끝추 걸어 왔다.

주체35(1946)년 6월 27일, 이날은 시인이 한생
 을 두고 잇을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의 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시인을 만나주시였
 던것이다. 시인은 오매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수
 령님품에 와락 안기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장군님, 자나깨나 장군님을 뵈옵고 싶던 시인
 박세영이 삼가 문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에 넘쳐 있었지만 눈물은 계
 속 흘러 내렸다. 《산에서 왜놈들과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
 아주시여 이제는 온 겨레가 내.조국, 내 땅에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
 은 박세영이 드린 심장의 목소리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애 깊은 시선으로
 시인을 바라보시며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에 대하
 여 묻기도 하시고 해방된 우리 나라에 민족문화
 를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작가, 예술인들
 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나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앞으로 일
 을 하려면 우선 마음이 안정돼야 합니다, 가족들도
 속히 오도록 합시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
 면 꺼리지 말고 후에라도 말하라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시인은 경애하는 수령님앞에서 건국로선을 높
 이 받들고 새 민주조선의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껏 일하겠다고 뜨겁게 맹세를 다지였
 다.

그해 9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수봉기슭에 아
 담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서울에 남겨 두었던 안
 해와 아들딸까지 데려 오도록 해주시였다. 그리
 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옥백미 10
 가마니를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이때 함흥에 나가서 현실체험을 하던 시인은
 문예총으로부터 어서 돌아 오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 왔다. 시인은 꿈같은 현실을 보고 아
 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감사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시인은 그 자리에서 시 한편을 읊었다.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고 썼던 시 《해별에서 살
 리라》였다.

당신은 이름도 거룩한 김일성장군
 정의의 칼을 뽑은지 몇해이며
 조선인민이 살아 갈 리치를 깨친지
 무릇 몇해시뇨

...

영명하신 우리 장군님 계시기에
 새 나라 민주조선은 융성하고
 날로 새로와 짐이 아니오리까

그 빛 해살같이 온땅에 비쳐

우리를 행복에로 이끌어 주나니
무엇을 서슴오리까

우리 다 그 해벌에서 살리라
하여 밝으신 그 령도 따라 나가리라
빛나는 민주의 새 나라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9월 27일
또다시 혁명시인 조기천, 리찬과 함께 박세영을
불러 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랜 지기를 다시 만나신
듯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 주시며 매우 반가와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시인들에게 하루빨리
《애국가》를 창작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두시
간나마 이야기를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산들은 기세차고 장엄
하며 전원에는 옅은빛깔이 무르익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 금은보화도 무진장합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인민
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한다고 하
시면서 인민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자기 조국
에 대한 애국심이 더욱더 솟아 날것이라고 하시
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기어이 《애국가》
를 완성하고야 말 결의로 온몸과 온넋을 불 태우
면서 시인은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보내며 쓰고
또 썼다.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면서...

주체36(1947)년 6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애국가》의 시창회에 친히 나오시었다. 《애국가》
의 노래소리가 합창으로 울려 나왔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로운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이것은 시인뿐만이 아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시인은 작곡가 김원균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두손에는 땀이 질펀하게
젖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시인을 몸 가까이 부르시

고 못내 만족해 하시며 책상우에 놓여 있는 가사
를 드시고 친근하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찬란
한 문화로 자라난》에서부터 그아래는 반복하여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면 선
물로 보아서도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될뿐
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 지고 부르는 사람들
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우리의 《애국가》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 태양의 빛발아래
이름 없던 별이 빛을 뿌리게 된것이다.

예로부터 사람은 사람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은
혜에 보답할줄 아는 사람만이 사람이라 하였다.

시인 박세영은 어버이수령님앞에 한생을 끊임
없이 사색하고 글을 씀으로써 변심 없는 인간으
로, 참된 충신으로 자신을 빛낼수 있었다.

시인은 송시 《인민의 태양》에서 이렇게 노래
하였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 같은 행복이 또 있는지

인민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당신이 계시여
아이들은 세상에 부럼 없다 노래하고
젊은이들은 나래치는 희망으로 기개 떨치고
로인들은 구십이 60청춘이라 성수 나오니
당신을 수령으로 모신 우리 자랑
그 무엇에 비하오리까
...

인민은 당신을 우러러 노래합니다
세기의 영웅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아름다운 이 노래 온 강산에 울려 퍼집니다
...

시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과 농촌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대고조
의 불길을 지펴 주시고 남녘형제들의 소원을 풀
어주시기 위하여 잠 못 드신다고 걱정을 터뜨리
고 있다.

우리는 시인이 어버이수령님께 드린 시를 많이
보았다. 장편서사시 《밀림의 역사》는 항일혁명
투쟁시기 간삼봉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
의 령활무쌍한 전략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서사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50돐에 드린 송
가로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외에도 시인의 서재에는 발표되지 않은 수령
형상주제의 유고들이 많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와 그밖에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서정시, 서정
서사시, 서사시 그리고 시집 《지상락원》이 해빛

을 보고 싶어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

시인 박세영은 1970년대 초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총속에 창작의 꽃을 더 활짝 피워 나갔다. 시인은 주체61(1972)년 9월에 있는 문예총산하 작가들의 모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처음으로 몸 가까이 우러러 뵈옵게 되었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안고 돌아 오는 저녁에 너무도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우리 문학의 백과사전이요, 내가 한생 살아 처음으로 들은 위대하고 새로운 문학강령이요, 그분은 우리 수령님과 꼭 같은 분이요, 나는 붓을 쥐고 숨지는 순간까지 그 이만을 따르겠소...

시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살며 글을 썼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많은 시들중에서 서정시 《크나큰 믿음의 손길》 하나만을 펼쳐 보아도 그의 충심을 알수있을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묻더라
백발이 훔날리는 나를 두고
그 기백 그 정열이 어디서 오는거냐고

그러면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하여라
사람도 강산도 청춘이 나래치게 하는
은혜로운 당의 품을 두고
그 모든 파사로움을 두고
...

아 잊을수 없어라 영광의 그날을
꽃을 피웠다면 한낱 방울꽃일까
별로 기쁨을 드린적 없건만
환성을 받으시며 우리앞을 지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몸 가까이 다가오시여
나의 손도 뜨겁게 잡아 주신것을

받아 안은 감격은 순간이여도
내 지닌 영광은 영원하여라
파사로운 그 손길에서 흘러 드는 은정은
청춘을 불러 내 온몸을 끓게 하였거니
그것은 친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손길!
그것은 하찮은 나에게도 안겨 주신
크나큰 믿음의 손길!
그것은 바위도 뚫고 솟구칠
창조의 샘을 터쳐 주신 은혜로운 손길!
...

사람들이여!
내 늙었다고 생각지 말라
충성심이야 나이로 셀수 없는것
오직 그 한길에서 살려는 이내 마음

저 맑은 하늘을 떠인 푸른 소나무 같은데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서야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서야
내 어이 늙을수 있으리
...

이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린 심장의 송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새삶을 찾은 시인, 그가 오늘은 위대하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약동하는 청춘으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손길에 이끌려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시인이 어찌 충성의 메부리에 오르지 않을수 있으랴, 어찌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의 송가를 드리지 않을수 있었으랴.

심장은 사랑으로 뜨겁다

시인은 사랑하였다. 몸으로, 녀트로 불같이 사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우리의 조국, 우리의 강토, 우리의 아이들과 어머니들, 우리의 군대, 우리의 제도 그리고 우리의 일목일초를 사랑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50대의 허약한 몸으로 종군작가가 되어 불이 오가는 고지에, 비 오고 눈이 오는 행군길에 자신을 서슴없이 세웠다. 군관복을 입은 그의 사진은 오늘도 웃으며 말하고 있다...그때 내가 전선을 탄원하지 않았다면 어찌 당의 문예전사라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가렬한 전화의 날에 그가 쓴 시 《나팔수》를 뚜렷한 성과작으로 기억하고 있다.

시인은 나 어린 나팔수 문용기에게 끝 없는 사랑과 애정을 퍼붓고 있다. 적탄이 가슴을 뚫었어도 그는 돌격의 나팔을 불었다고, 그것은 조국에 바치는 너의 심장이 분것이라고... 이것은 인민군대모두에게 주는 사랑의 감정이며 찬양이며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군대를 누가 당하겠는가. 시인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도 훌륭히 해결하였다.

시인은 이 시기 《숲속의 사수 임명식》을 비롯한 전투적인 시들을 많이 씀으로써 자신이 승리의 나팔수로 되었다.

재가루만 날리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인상깊이 남겨 놓은 서정시를 다시 읽어 보는것도 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시인 김상오는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색 날은 군복을 입고 복구건설장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남들이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글이나 쓰라고 권하면 성을 냈습니다. 이 박세영이 건설장에 안 나가고 무슨 글을 쓰겠는가? ... 세영선생은 걸어서 강선제강소에도 여러번 나가고 평양시복구건설장에는 늘 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우리의 수도, 우리의 거리를 사랑하였으며 맑은 앞날에 대하여

신념에 차 있었는가를 알수 있을것이다.

시인은 우리와 함께 광복거리건설장에 나가서
물탈이 흩어 진 진창길도 걸고 아직은 승강기도
없는 고층건물우에 허이허이 뿔아 오르기도 하였
다. 그러나 시상은 잡히지 않았다. 건설규모가 방
대하고 가는 곳마다 일하는 모습, 우르렁거리는
기계소리밖에 없었다. 며칠을 모대기던 그는 땅
우에 쌓아 놓은 벽체우에서 갑자기 소리쳤다.

《여-친구들! 잡았소. 잡았소.》 우리는 어안이
병병해 졌다. 《시상을 잡았던 말이요. 통이 큰것
만 보아도 모르겠소?... 그이께서 인민에게 베푸
시는 사랑의 거리란 말이요. 그러니 모른 시가
다 그이께 바쳐 저야 하오...》

그의 시는 그날 저녁 일사천리로 씌여 저 세상
에 나왔다. 그것이 바로 시 《오, 광복거리여!》 이
다.

크구나 모든것이
넓구나 모든것이
정교롭구나 호화롭구나
그 모든것이
...

그것은
위대한 태양이 솟아 오른곳에
그 태양의 위업 이어 빛내시는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통이 큰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높이도 안아 올려
다듬어 세우시는 영광의 노래이거니
아 광복거리
태양의 거리
이 거리를 안겨 주시고
이 늙은 시인에게도
새 시상의 넓은 바다 펼쳐 준
당이어!
...

시인의 붓은 유치원어린이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장과 농촌, 푸른 잔디와 이름 없는
산촌의 계곡 그리고 조국통일에 이르기까지 미
치지 않은데가 없다. 이것은 그의 사회주의조국
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의 도수이며 주제의 다양
성이기도 하다. 이 모든것을 제한된 지면에 어찌
다 펼칠수 있겠는가.

나는 다만 그의 한겨레, 한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 문제를 마치려
한다.

시인은 해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았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한때 이국땅에서 받
은 민족적멸시와 참기 어려운 빈궁의 체험자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총련의 한덕수의장은 여러번 그에게 편지를 보
내왔다. 그가 시인 박세영에게 보낸 편지 한토막
을 공개하는것을 랑해하시라.

...총련결성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시인들
이 축하의 집회를 가졌다는것과 거기에서 동지는
송가를 발표하여 총련의 사업을 찬양하여 주었
다는것을 듣고 감격하여 마지 않습니다...

의장은 편지에서 총련일군들에 대한 가사를 동
봉하고 편달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시인은 여
기에 기꺼이 응하였으며 성의를 다하였다.

시인이 재일동포들의 첫 귀국선을 맞이하여 쓴
노래 《귀국동포환영곡》은 우리 인민이 많이 불
렀으며 그들이 귀국하여 올 때마다 청진, 원산항
에서 하늘높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시인은 귀국선이 올 때마다 현지에 달려 가 열
렬히 그들을 환영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시인은
자신이 지은 노래를 목이 쉬도록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목소리는 작아도 심장으로 부
르고 부른 그 울림소리는 누구보다도 컸던것이
다.

랑심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시인을 아는 사람이면 그가 한평생을 량심적으
로 살았으며 그의 시 또한 량심의 분출이라는것
을 알고 있다.

남조선의 현실을 두고 분노한 시인의 목소리는
주제36(1947)년에 출판된 그의 시집 《진리》에
실린 시 《진리》에서 높이 울리었다.

남의것을 탐낸 일이 없고 영달을 꿈 꾀 일도
없는 시인이 검은것을 희다고 가르치는 강도들을
놓고 호랑이가 되고 화산이 되는것은 너무나 웅
대한 일이라 할수 있다.

이것은 곧 시인의 정신세계이며 량심의 웨침이
며 불의에 대한 증오이다. 인민을 위해서만 자신
을 다 바치려는 그의 사랑의 정신이 그만큼 원수
에 대한 증오를 터쳐 놓은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 또 있다.

자신에 대한 꾸짖음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철
학적인 시-랑심의 불길로 우리의 심장을 더웁히
는 서정시-《나에게 주는 시》이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
한 일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나
소년시절은 아니 청년시절은?

지금 생각하면
땀땀치 못했던 일도 하 많아
너는 대답하기를 거북해 하는것이냐

이 강토 모래불에 파묻혔던
작은 조약돌 하니도
단란한 새 살림을 함께 즐기며
푸른 하늘을 떠이듯
고층건물의 벽체가 되었는데
...

너는 얼마나 조국을 생각했으며
무엇으로 인민에게 이바지하여
찬란한 시대에 대답했던 말이나
...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백발이 흩날릴 때까지도
그것이 머리가 희여서가 아니라
참으로 그냥은 있을수 없는
쌓인 노력의 빛발인듯
더 깨끗하고 숭고한것으로 되어야지

나이를 먹었기때문에
남에게 존경을 받는데서야
그것이 더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해 본 일 있거나
...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그저 이 시를 한번 더
읽기를 바란다.

그러면 시인도 알고 자신도 알고 인생도 알게
될것이라고 믿는다.

노래는 세월 넘어 지경 넘어 울려 간다

시인 박세영의 창작에서 커다란 봉우리의 하나
는 가사문학이다.

《애국가》, 《빛나는 조국》, 《승리의 5월》,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 《번영하라 조국
이여》, 《동백꽃》, 《평양은 마음의 고향》 등만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반만년 오랜 력사 문화도 빛나고
수령님 혁명정신 하늘땅에 넘친다
창조와 로력으로 피 땀 흘리는 인민들이
찬란한 인민조국 길이길이 받드세
조선아 조선아 영원무궁 만만세
(《빛나는 조국》)

얼마나 많이 불렀고 또 부르고 있는가. 시인은
말하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은 원래 애국가로 쓴것
인데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의 《애국가》를 선정
해주시고 이 노래도 좋은 노래이니 많이 부르도

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텔레비죤에서 시작은 《애국가》가 나오고 마감
에는 이 노래가 나온다. 그러니 시인의 노래가
다른것은 그만 두고라도 매일 두번은 세계에 울
려 가는셈이다. 그의 명가사들을 몇편 상기해 보
자.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자유기발 휘날리며 나아가나니
온 세계를 진감하는 단결의 웨침
동무들아 이 기세로 굳게 뭉치여
인민경제계획을 승리로 맺자
(《승리의 5월》)

우리는 자랑스런 사회주의건설자
천리마 타고서 번개처럼 달린다
혁명의 열매로 지상락원 꾸미며
당과 수령 부름 따라 돌진해 나간다
(후렴)
아 세기에 떨치는 장엄한 이 모습
인민들 행복스런 락원을 펼친다
새 희망 바라보며 고난 겪은 우리니
천리마 타고서 승리에로 달린다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

아름다운 강산에 아침노을 붉은데
푸른 하늘 저높이 나래치는 천리마
수령님의 높은 뜻 이 땅우에 넘치니
번영하는 나의 조국 영광속에 빛나라
(《번영하라 조국이여》)

...

1절씩만 인용하였다. 노래는 오늘도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주체
의 조국, 강성대국건설의 하늘을 넘어 끝없이 울
려 가고 있다. 그의 이름과 함께...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의 공로를 헤아리
시여 주체76(1987)년 7월 생일 85돛을 맞는 시
인에게 생일상을 친히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한량없는 은정을 생각하며 시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많고도 많은 나라일에
그처럼 다망하시운데 백발이 어린 신하의 생일마
저 잊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까...》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슬
하에서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 온 한생을 눈
물속에 돌이켜 보았다.

시인은 축하하러 모여 온 친지들과 문우들에게
거듭거듭 말하였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리라고...
영광의 그날로부터 날과 달이 흘렀다. 주체 78 (1989)년 2월 20일경이었다. 난치의 병으로 신음하던 시인은 침상옆에 아들을 불러 들였다.

《아마도 내가 이번엔 안될것 같다...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은 하해 같은데 보답을 못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거라. 대를 이어 말이다...》

이것은 시인의 마지막부락이며 유언이었다.

주체 78(1989)년 2월 28일 시인은 반세기를 넘어서 달리고 달리던 붓을 조용히 놓았다.

이 비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애석해 하시며 여러가지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다. 시인의 서거를 알리는 부고를 중앙급 신문들에 내도록 하여 주시고 시인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할데 대한 은정도 베풀어 주시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련사가족으로 내세워 주시고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거듭 크나큰 은정을 안겨 주시었다.

시인은 갔으나 영광은 끝이 없고 그의 생명도 끝나지 않았다.

그가 내뿜은 심장의 노래들은 더 큰 울림을 가지고 세월을 넘어 지경 넘어 오늘날도 래일도 울려갈것이다.

그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카프》작가편)의 창작사업을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카프》작가편)을 송영과 박세영을 중심인물로 그리는것이 좋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친한 사이였기때문에 영화를 재미 있게 만들수 있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시인은 떠나갔으나 우리 장군님의 사랑속에 그는 다시금 세상에 태어났던것이다.

산 인간의 모습으로...

일화에 비친 시인의 인간모습

길거나 짧거나 사람은 한생을 산다. 그 한생에 동지들과 벗들속에 값 있는 일화를 남겨서 그것이 그에 대한 추억으로 되고 사랑으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인생이 걷는 걸음걸음에, 생활의 갈피갈피에 아름다운 일화를 수 놓아 그것이 지워 지지 않는 향기가 되고 후대들의 거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것이 인간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특전은 우연히 차례지는것도 아니고 욕망으로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인간자체의 성격과 품성, 지성과 량심, 리상과 사상에서 스스로 뿜어 나오는 생활의 자욱이기때문이다.

시인 박세영은 세상에 자기나름의 일화들을 남

겨 놓았다. 남달리 아름답고 재미 있는 일화들이 그를 추억하게 하고 있다.

-백발동심

시인 박세영은 일생을 동심세계에서 살았다. 깨끗하고 천진하고 앞뒤가 없었다. 아마도 동심은 그의 천성이었던가 싶다.

어느해 봄날, 내가 좀 늦어서 출근하다가 맞닥뜨린 광경이 지금도 선히 떠오른다.

아이들이 오그그 모여서 싸움판을 벌리고 있는데 자그마한 로인이 거기에 끼여 들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가 바로 백발의 시인 박세영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하고 내가 그의 팔을 잡아 당기자 그는 성이 나서 나에게 소리쳤다. 《아니아니, 그냥 가다니, 혼썰을 내주어야 해.》 하더니 몸을 뒹 돌리고 《너희들 게 켜 거라. 큰것들이 어린 동생들을 때려? 어디 나하고 해보자.》 하며 팔을 걷고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 갔다. 좀 큰 학생들은 그만 우- 하고 도망쳐 버렸다. 꼬마들이 난데 없는 구원자를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일제히 둘러쌌다. 그는 조무래기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친데나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것이였다.

나는 그것이 너무 우스워 눈물이 질끔 났다. 잘잘못은 고사하고 더구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약한자를 무조건 동정하고 옹호하는 그의 마음이 참으로 가루해서였다.

이것은 딴 이야기다. 그는 때때로 나와 함께 퇴근길에 나서곤 하였다.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오늘은 또 얼마나 늦어야 집까지 가노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 마음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10년째나 들고 다니는 작은 자색가방을 휘저으면서 땅바닥만 보며 걷는다. 그러다가 길바닥에 작은 돌이나 나무때기 같은것이 보이면 탁하고 기슭으로 차버린다. 발로 찰수 없을만큼 큰것들은 가방을 땅에 놓고 손으로 들어다가 멀리 던지고야 돌아온다. 이런 《작업》이 계속된다.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다. 늙은이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그는 그때마다 중얼중얼 입속으로 뇌인다. 《아이들이 밟으면 안돼. 발이 상해.》 이것은 누가 보전말건 아니하고 못 견디는 그의 습성이다.

아이들이 자기의것을 자랑하듯이 그는 자기의 애용품을 몹시 자랑하곤 하였다.

그에게는 큼직한 상아물주리가 있었다. 남들이 부러워 하면 그는 《이런거야 평양에 몇개 있나. 이걸 내가 관속에 가지고 갈 애용품이야.》 하고 껄껄 웃는다. 그러면서 코와 이마에 대고 가로세로 문지르며 반짝거리도록 닦아 낸다. 그런데 하루는 그 자랑 많은 물주리가 없어 졌다. 로시인은 사기가 푹 떨어 저 영 식사도 잘 안하고 말

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누가 장난을 했으면 내놓으라고 서로들 말하였다. 며칠이 지나서 시인은 노래를 부르며 출근하였다. 그는 호실문을 열어 젖히며 물주리를 높이 쳐들었다.

《보게나, 요것이 글썄 우리 집 책상우에 있지 않겠나. 허 참, 꺾꺾하게도 책갈피속에 숨어 있단 말이요. 나와 숨박꼭질하자는거지 뭐야...》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유쾌하게 웃었다. 모두 마음이 개운해 졌다. 그날저녁 그는 시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였다. 《물주리력》이었다.

그는 자신을 탁구조상이라고 뽐내기도 하였다. 사실 그럴만도 하다. 우산장창작실에 나가면 젊은 동무들과 곧잘 대항을 하였다. 탁구채를 쥐는 법이며 걸어 치는 동작이 맵시 있고 재빠르다. 그의 말에 의하면 탁구가 우리 나라에 1920년대 초에 들어 왔다는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한 몇 사람의 하나가 자신이며 그중에도 《선수의 선수》가 자기라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탁구시합을 해서 《백전백승》 하지는 못하였다. 아마도 나이 탓이리라.

그의 《자랑》은 더 있다.

그는 명절때 찾아 가면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퍼놓는다. 수정과는 무슨 재료로 어떻게 담가야 이렇게 되며 진짜 신선로는 금강산의 돌이 끼가 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유감이라는 것이다. 그의 《자랑》은 이외에도 많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카프》시인이며 왜정때 감옥살이를 했으며 해방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으며 《애국가》를 썼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인지 그가 하는 《자랑》은 참으로 귀맛 좋게 들렸다.

그의 《자랑》은 그의 아름답고 순진한 동심세계의 반영이리라.

-락천가

시인 박세영은 보기 드문 락천가였다. 그에게도 창작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고충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태평스럽고 조급해 한적이 없었다. 사소한 걱정이나 근심은 아예 하지도 않는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문제 없다》이다.

우스개소리를 잘하는 동년배들이 그의 곁을 쏙 지나가며 《문제 없다, 문제 없어.》라고 하면 그도 역시 웃으며 《그래, 문제 없다, 문제 없어.》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시인 조령출을 접견하시고 오래오래 살아서 좋은 글을 더 많이 쓰라고 고무하시며 장수의 비결은 락천적으로 사는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었다. 시인 박세영도 락천적으로 산덕에 90을 가까이 살고 별세하였는지 모른다.

한번을 이런 일이 있었다.

평양신문사의 문예부장이 창작실에 찾아 와서 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물었다. 《선생님, 신년시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응, 그래 그래. 그건 내가 쓰게 되어 있지. 마음 놓고 돌아가라구. 래일이면 뵈테니까.》라고 하였다. 부장은 《마음 놓고》 돌아 갔다. 그 이튿날 다시 찾아왔으나 또 같은 대답이었다. 부장은 이렇게 세번을 찾아 왔다.

시인은 그때마다 머리안에 다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이제 어느 시간에 일사천리로 쓴다는 것이었다. 부장은 마음 놓을수가 없게 되었다. 원고회부날자가 박두했다면서 얼굴이 벌개 졌다. 그가 나를 슬쩍 다치며 좀 나가자고 눈짓을 하기에 따라 나갔더니 《이거 이리다간 튀는게 아니요.》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세포비서인데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문제 없다》고 우스개소리를 하고 나서 래일은 점심밥을 싸가지고 오라고, 시를 다 쓸 때까지 마주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박선생에게 그 유명한 코노래를 부르도록 꼬드기라고 방법을 대주었다.

부장은 다음날 아침부터 찾아 와서 시인과 마주 앉았다. 결판을 내자는 것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써주시겠지요. 끝장을 보고야 돌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심밥을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잡도리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러나 시인은 태연자약하였다. 《저기 대동강에 나가서 산보나 하다가 들어오게나. 설경이 참 멋이 있다네.》 시인은 아직도 여유작작하였다. 부장은 늑장을 부리는 시인에게 《아니요. 난 여기에 마주 앉아 있겠습니다.》라고 하며 점점 죄여 들었다. 누가 이기겠는가. 끝내 시인은 서랍에서 원고지를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부장이 꼬드기지 않아도 코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시는 점심전에 완성되었다. 부장은 기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한마디 하였다.

《그 코노래가 시를 쓰는구만요. 그 코노래는 시마다 다르겠지요?》 시인은 《그야 물론이지.》하고 허리를 쭉 펴더니 이번에는 휘파람을 부는 것이었다. 내가 듣기엔 코노래도 휘파람도 선률은 늘 같은 것이었다. 나는 더 참을수 없어 배를 그러안고 복도로 나갔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이때의 일들을 푹푹히 기억하고 있다.

시인은 늘 길을 오가며 이미 시상을 무르익혔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표현대로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창작을 할 때마다 꾸준히 사색하고 만단의 준비를 함으로써 조급해 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락천가가 된것 같기도 하다.

한번은 평양시의 시인들이 창작전투를 하려고 우산장에 나갔었다. 시인 박세영도 기차를 타고

함께 나갔는데 남포에 내려 보니 그날 따라 우산장까지 가는 뺨스가 없었다. 젊은척들은 신들메를 조이며 30리를 걸어 간다고 욕속 기세를 돋구었다. 그런데 고향의 시인을 돌아 보고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선생님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3시간반 있으면 동맹에서 승용차가 나옵니다.》 시분과위원장이 말하였다. 시인은 《문제 없어.》 하고 쑥 나섰다. 그리고는 제일 건장한 동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다가 동무가 쓰러지면 내가 업고 잡세. 어서 떠나자구.》 그래서 모두 즐거워 졌다. 그는 맨 앞장에서 레의 휘파람을 불며 걸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보란듯이 통통 뛰었다. 이렇게 먼 길을 《문제 없어》 갔다. 우산장숙소에 들어서 모두 다리쉬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들, 어서들 나오라구. 한바탕 쳐봅세.》 시인 박세영이 정구채를 들고 운동장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시인들이 달려 나왔다. 체소한 백발시인을 둘러 싸고 진정으로 칭찬하였다. 백살은 문제 없겠다고... 시인은 말하였다. 《내가 젊었을 때 씨름에서 황소를 탄줄을 자네들은 모를테지.》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소시때 장수 아닌 사람이 없다더니 그도 장수였는가... 하기가 그것이 거짓이면 어쩌랴. 우산장의 온 끝안을 락천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우는데야...

그는 한생을 자신이 개조했다는 건강체조(일명-스위스체조)를 매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침마다 보통강유보도를 달린다고도 하였다. 내가 며칠동안 감기에 걸려 결근하고 있을 때였다.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아이들이 문을 열었다. 시인 박세영이 체육복바람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동무, 생활비를 가지고 왔어.》 하고 숨이 찬 소리를 하였다. 5층계단을 뛰어 올라 왔던 것이다. 나와 안해가 달려 나가 어서 들어 오라고 하였으나 그는 《괜찮어. 이쯤이야 문제 없지 뭐. 아침체조중이요.》하고 또다시 뛰어 내려 갔다.

퉁탕퉁탕 계단을 내리뛰는 소리가 한참이나 들려 왔다. 그는 이런 시인이었다. 언제나 유쾌하고 그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건망증

독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것이다. 젊었을 때 그가 작가 송영과 함께 거리를 가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리발소에 들어 가 머리를 깎고 나오다가 문어귀에 서 있는 송영을 보고 《자네 어떻게 여기에 왔나, 그간 잘 있었나?》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도 있다. 그는 나를 만나면 늘 나의 어머니의 안부를 묻곤 하였다. 《자당께서 안강하신가.》 나는 그때마다 《예, 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는 《하για 세월이 좋은데 왜 건강하지 않겠나.》라고 한다. 하루는 내가 빌렸던 책을 가지고 찾아 갔다. 그는 물었다. 《자당께서 안강하신가.》 나는 또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인차 돌아 섰다. 그는 신발을 신는 나에게 《아, 그래 자당께서 안강하신가.》 하고 또 물었다. 그의 부인이 《아이참, 령감두. 방금 묻구서 또 물어요?》 하고는 웃기 시작하였다. 그는 안해에게 성을 내며 총알처럼 내쏘았다.

《내가 언제 물었어, 공연히 중뿔나게 나서면서...》 나는 선생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부인에게 가만 있으라고 눈을 꾹꾹해 보였다. 내가 문밖에 나왔을 때도 부인은 계속 웃고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당시 석탄공업성 국장이었던 그의 아들이 뿔스까에 갔다가 기념품들을 사가지고 왔었다. 그 덕에 시인들이 하나씩 받게 되었다.

나에게는 들놀이용술잔이 차례졌다. 그런데 며칠후 진짜 들놀이를 가게 되었다. 모두 즐겁게 노는 때에 그는 나에게 그런 술잔을 또 주는것이였다. 나는 이미 받은 술잔을 가방에서 꺼내보이며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는 정색해서 《오, 그럼 자네도 언제 뿔스까에 다녀왔는가. 나도 모르게 언제 갔다 왔는가.》 라고 하였다.

나에게 그것을 주었던 일을 까맣게 잊었던것이 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야 어떻게 글을 쓰겠는가. 아니다. 그는 시를 생각할 때 한 일은 다 잊어 버리고 머리에 시만을 남겨 두는것이다.

-승벽

소제목은 《승벽》이라고 달았지만 어찌 보면 남에게 덮어 놓고 자기 싫어 하는 어린 사내아이들의 억지वाद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어느 해인지 희미하지만 시인의 생일이었던것 같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시인의 집을 찾아 갔다. 우리가 집안에 들어 섰으나 시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작가 송영과 장기를 두며 열을 올리고 있었던것이다. 그는 송영의 손에서 장기쪽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거 내 놓으라는데... 줄이 차를 먹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제편에서 오히려 고함을 치고 있었다. 송영은 시물시물 웃으며 《한번 졌다고 하게나. 아니면 코를 쥐고 절을 하던지.》 하고 약을 올렸다. 시인은 걸이 나서 장기판을 활 쏘어 버리고 《그럼 다시 시작하세.》 하고 서술이 덩딩하여 달려 들었다. 송영은 《이젠 일수불퇴다.》 하고 장기쪽을 놓기 시작하였다. 시인도 《어림 있나, 일수불퇴.》 하고 제각제각 쪽을 놓아 갔다.

우리는 둘러 앉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이런 때 어느 누구를 훈수하다가는 장기쪽세례를 받을수도 있다. 장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손님인 송영도 무정하지 끝세 오늘이야 시인의 생일날이

아닌가. 이번에도 또 시인을 수세에 몰아 넣고 시물시물 웃고 있는것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딱 하고 시인이 송영의 포를 조여 댔다. 《이것도 못 보고 뭘해.》 시인은 기고만장해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송영은 《그걸 진짜 잡수셨소? 그럼 나도 하나 먹어야지.》 하더니 시인의 궁을 슬쩍 들어 가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일수불퇴.》 하고 또 약을 올렸다. 시인은 왈각 성이 나서 《그따위 속임수가 어디 있어.》 하고 열린 문을 향하여 장기관을 통채로 내던졌다. 장기쪽들이 트락에서 나딩굴었다. 송영은 여전히 웃고 있는데 시인은 《이제는 자네하고 장기결별이야.》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물주리에 담배를 꽂아 물었다. 그러나 5분도 못되어 시인은 트락에 나가서 장기관과 쪽들을 다 걸어 안고 들어 왔다. 그리고는 이번엔 최후결판을 보자고 하였다. 장기의 《국수》가 또다시 무참하게 되거나 않겠는지?… 모두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볼 때 다행히도 술상이 들어 왔다.

이튿날 거기에 갔던 한 시인이 그에게 물었다. 《이제 저는 먼저 돌아 갔는데 장기결승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인은 말하였다. 《송영을 당할 사람이 없을거네. 그런데 나하고야 뭐 대상이 돼야지…》

나는 그에게서 한번도 장기에서 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서 장기군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당심들은 장기에서 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 시인의 심정을 이해할수 있지 않는가…

시인 박세영은 다른 일에서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것 같다. 그는 술을 석잔도 못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관혼상제에도 부조를 제일 많이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 식당에 가서도 제가 다 내야 마음이 편안해 한다. 또 그는 점심을 먹을 때마다 반찬을 더 많이 가져 와서 자꾸 나누어 주고 싶어 안이 달아 한다. 이것은 남에게 주는것도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는 승벽인 동시에 남을 위한 마음과 선량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진심

진심과 거짓은 량립될수 없다. 시인 박세영은 전자만을 알고 후자를 몰랐다. 그러기에 그는 주위의 모든것을 진실로 대하고 뜨겁게 사랑할수 있었다. 누가 공원의 나무 한가지를 꺾어도 몹시 언짢아 하였다. 창작실의 벽지가 떨어 지면 스스로 풀을 쑤어 가지고 나왔다. 길거리를 가는 녀인이 제 아이를 욕하거나 쥐여 박으면 기어이 따라 가서 《교양》을 하고 《항복》을 받아 내고야 돌아 왔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느 초가을 일요일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가사관계로 만수대에술단에 나가는데 그가 아침부터 손녀를 데리고 보통문앞에 나와 있었다. 어떻

게 이렇게 일찌기 나왔는가고 물으니 그는 그저 산보를 나왔다고 하였다. 나는 무심히 갈 길을 가고 말았다.

오후에 느지막해서 나는 그 길을 다시 돌아 왔는데 그는 거기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다. 나도 거기에 한참 앉아서 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잔디밭을 향하여 짹 소리를 질렀다.

《여보, 여보. 그게 어디 길이요? 몇걸음 돌아가면 되겠는데 잔디를 밟는단 말이요? 썩 나오시오.》

잔디를 밟고 가던 사람이 그만 무안해 하며 되돌아 갔다.

시인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것이였다. 손녀가 청일거리면 주머니에서 사랑을 꺼내주며 달래었다. 어찌다가 차례지는 휴식일에 날씨도 청청한데 모란봉도 아닌 여기에 나와 온 종일 스스로 《잔디밭과수병》으로 서 있는 그, 나는 생각이 많아 졌다. 나에게도 이만한 애국심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말하였다.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고정되어 있기때문에 하루만 서서 자극을 주어도 펍 나아질것이라고, 여기가 어디인가, 아버지수령님과 우리의 지도자동지께서 인민문화궁전을 건설해 주시고 두리에 잔디밭도 꽃밭도 잘 조성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높은 뜻을 어겨서야 되겠는가고.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그래서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저녁때까지 그와 함께 《잔디밭과수병》노릇을 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 그의 인간모습이 비친 일화가 있다.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시인이 다섯살짜리 손녀의 엉덩이를 때려 울려 놓은것이다. 아이들을 그처럼 사랑하는 그에게 있어 이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레외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오게 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행장까지 나가시여 맞이하신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생화뭉음을 들고 연도환영에 나가야 하는것이다.

시인은 화초원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골라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어 왔다.

장난꾸러기 손녀가 그 꽃다발에서 몇개의 꽃잎을 따놓았다. 시인은 너무도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다 끝내는 손녀의 엉덩이를 때려 놓았다. 손녀는 아픈것보다 할아버지가 때린것이 서러워 몹시 울었다.

시인은 손녀를 달래며 말하였다. 《정란아, 이젠 그거 꽃이 아니다. 아버지원수님을 맞이할 꽃이란말이다. 알겠니…》 그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는 그 밤으로 다시 화초원에 가서 새것으로 더 크고 아름답게 꽃다발을 만들어 왔다.

나는 이 일화들에 생활세태적인 한담거리가 아니라 시인의 인간모습이 비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뿐이다.

새벽

리명

나의 집에서 얼마간 떨어 진 바다기슭에는 나와 같은 화학 공장에 다니는 리동무가 살고 있다. 그는 고분자계통의 화학 기사로서 공장공업시험소의 연구사이다. 얼마전에 그는 원유 가공공업의 첨단기술의 하나인 백유생산에서 새로운 정제법을 세상에 내놓아 고급화장품 주원료의 절을 훨씬 높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작고 담담한 몸집을 지닌 리동무의 거동에서 특징적이라면 시간에 맞춰 달리는 아침통근 열차의 맨 마지막 《승객》이라는데 있다. 아침마다 통근열차가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첫 자욱을 뿜 림박이면 묵직한 가방을 옆구리에 낀 그가 어김 없이 나들문에 나타난다. 그는 약간 팔자형의 쎄 걸음으로 흙을 지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열차승강대에 뛰어 오르곤 한다.

초기에는 철도역 안내원들은 물론 통근열차 승무원들의 힐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느렁뱅이야찌, 빨리요!》 하며 장난기어린 정찬 소리로 안내원들이 마중하는가 하면 규정으로 다듬어놓은듯 틈없이 생긴 처녀차장도 그가 승강대에 올라 설 때까지 푸른 기발을 흔드는것을 서두르지 않는다. 아마 그의 얼굴에 어린 선하고 먼구스러워 하는 미소가 그들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늦잠꾸러기이며 게으름뱅이로 통해 있는 그의 뒤생활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새벽일과가 있다. 나도 퍼그나 뒤늦은 얼마전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 정초에 공장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이해를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인 정보산업기술로 개조할 《기술혁

신돌격대》를 무었다. 돌격대는 현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낮에 밤을 이어 결사관철의 투쟁을 벌려 나갔다. 나역시 기술개건 정치분과의 한 성원으로서는 그들의 투쟁소식을 공장신문과 방송에 널리 소개선전하기도 하고 또 고무추동하기도 하는 권고들을 써주곤 하였다. 허지만 그런 정도의 일감을 가지고는 도무지 성차지 않아 그들의 뒤바라지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풍족치 못한 현장 식생활에 적으나마 보탬을 주고 싶어 새벽 낚시질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나의 소시적부터 익힌 취미이기도 하였다.

날이 푸름해 질무렵이면 나는 낚시대와 미끼그릇, 그물망태를 둘러 메고 바다가의 도래굴이로 나간다. 호젓한 너럭바위에 앉아 시원한 물속에 발을 잠그고 낚시대를 드리울 때면 망망한 바다의 뒤흔칠질과 서늘한 입김, 장판지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물결 그리고 미명의 새벽빛에 저마끔 기묘한 룡광을 드러 내는 바위들... 그 모든 대자연의 기꺼움을 무슨 말로 다하겠는가.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푸릿한 물안개가 서린 해변의 모래불과 애슬나무숲에서 나보다 앞서 산보를 하고 있는 낮 익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리동무였다.

(어허, 저 느렁뱅이가?!...)

더우기 별스러운것은 고기가 잘 물리는 비 오는 새벽에도 그가 우산을 머리에 드리우고 백사장을 거닐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는 나대로의 목적이 있어 굶는 날도 마다할수 없지만 한낱 소풍이나 하는 정도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이따금 내가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쪽으로 와서는 물속에 담그어 놓은 고기그물망태를 던지시 들여다 보곤 한

다. 나는 그때마다 슬쩍 피여 본다.

《여보게, 나한테 기가 막힌 낚시대 하나 더 있네.》

그러나 그는 나의 지곳은 권고에는 빙긋이 웃을뿐 도무지 흥미가 없다는듯 인츰 돌아 서서는 버릇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흥, 이 맛을 알턱 있나.)

그는 모를것이다. 물속에 잠긴 낚시줄이 약간 헤어 들며 손끝에 갑자기 미칠 때부터 신경을 당기는 육체의 야릇한 긴장감... 뒤통지 느끼는 쾌감과 실망의 그 류다른 감미를 어찌 알수 있으랴... 나는 이 외진 기슭에서 아무런 생활도 취미도 모르고 메마르게 보내는 그를 시카스르고 싶은 생각이 끓어 올라 어느 날 여전히 뒤짐을 지고 걸어 다니는 그앞에 불룩한 고기그물망태를 무겁게 내흔들었다.

《보게나. 새벽바다가 주는 <혜택>일세. 이젠 다 이 낚시가 낚은거야.》

무슨 생각에 골똘해 있던 그는 웬일인지 흠칫 몸을 떨며 나와 고기그물망태를 번갈아 살피었다. 그물망태안에는 팔뚝 같은 고기들이 은비늘을 휘번 띄이며 푸들쩍거렸다.

《그래, 자넌 고기에 낚시가 물렸다고 생각한적은 없나?》

나는 그의 왕청 같은 물음에 쾡해 졌다.

《똥판지같이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러자 그는 이내 당황한 기색을 짓고는 자못 미안쩍은 어조로 말했다.

《용서하게, 용서해... 실은... 방금 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리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네. 사과가 지구에 떨어 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사과에 떨어 졌다는 그 원리 말일세. 문제는 운동과 정지의 기준점을 어디다 정하는가 하는결세. 기

준점 말이네. 어데다 두는가에 따라 달리 될수 있지. 기준점! 알겠나?...》

그는 내가 반대라도 하는것처럼 침방울을 튕기며 두손을 내흔들면서 부르짖었다. 아니 그는 이미 나와 말하는것이 아니였다. 그는 홀로 타오르는 자기의 녀과 말하고 있는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투와 눈빛에서 어떤 《비정상》을 느끼며 서둘러 그와 헤어졌다. 아닌게 아니라 이튿날부터 새벽바다의 살아 움직이는 화석처럼 늘 나를 마중하던 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적해 졌다. 먼 빛에서나마 서성거리던 그가 없으니 고기가 물릴적마다 저도 몰래 입술을 뚫고 새어 나오는 탄성은 김이 빠져 시들해 졌다.

나는 그의 몸에 불길한 병이 생겼다는것을 예감하며 낚시질을 나가던 걸음에 그의 집에 들리기로 하였다. 그의 집은 서재로 쓰는 맨 옷방도 바깥과 통하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서재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 나왔다. 나는 손기척소리를 낸후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탁상등을 켜놓은 책상에 리동무가 엎드려 잠들고 있지 않는가. 방바닥에는 잠자리대신 여러가지 부피의 기술문헌들과 참고자료들이 되는대로 널려져 있고 책상우에는 복잡한 화학기호들과 방정식들을 써갈기기도 하고 지워 버리기도 한 계산지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밤새껏 고심하다 잠들었을 그를 보며 엉터리없이 오해했던 자신을 나무랐다. 그래서 다시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려 하였으나 그만 그를 깨우고야 말았다.

《아, 자넌가!》

그는 피진 눈을 슴벅이며 반색하였다.

《그래 산보두 다 잊고 이젠 골방샌님이 될러나?》

《벌써 날이 밝았나... 그래 요즘도 낚시한테 고기가 물리나 고기한테 낚시가 물리나.》

그는 레의 그 선량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빙글거리었다.

《또 그 아인슈타인인가... 어서 일어 나게. 이게 무슨 꼴이

람.》

《날 유혹하지 말게. 나한테도 좋은 낚시대가 있네. 난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함께 튕굴었으니까.》

《?!》

《난 그새 백유의 정제기준점을 다시 세웠다네. 지금 우리가 벌린 현대화기술개조가 끝난 즉시로 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할수 있게 말일세.》

나는 저속 놀랐다. 그가 이미 내놓은 백유정제법은 시제품생산을 통하여 그 질적수준이 높히 평가되었을뿐만아니라 학계의 관심속에 국가발명권심의 위원회에 제출되어 조만간에 긍정적답변이 있을것을 누구나 확신하고 있었다.

《동무야 이미 백유를 완성하지 않았나?》

《완성? 흥, 그런 기준치가 도대체 어데 있단 말인가.》

《나라에서 국규로 제정한 기술지표가 아니겠나?》

《천만에! 완성이라는 절대 기준치는 있을수 없네. 영원히 말일세. 우리에게는 보다 원가가 적게 들고 보다 실리적이고 보다 <완성>으로 부단히 접근해야 할 기준치만이 있을뿐이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창조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 없게 최상의 수준을 돌파하는것이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미 내놓은 논문 말인가?... 찢어 버렸네. 헛치 않는 일이더군. 어지간히 량심과 다뤘겠네...》

나는 새벽바다의 상쾌한 대기에는 비할수 없는 맑고 싱싱하고 힘찬것이 온몸에 퍼지는 뿌듯한 활력을 느끼며 그의 방을 나섰다.

그때로부터 한달나마 흘러 비바람이 모질게 울부짖던 밤이었다. 멀리 포말을 날리며 바위를 때리는 파도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우지끈 들부시는 소리 같기도 한 사나운 음향속에 어슬픈 잠이 들었던 나는 누구인지 야단스레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눈을 떴다. 나는 다급히 옷을 주어 입고 문밖으로 나섰다. 비옷을 걸친 리동무가 젖은 머리카락을 바람에 흘

날리며 서 있었다. 그는 자못 흥분된 어조로 방금 새로운 기준점에 도달할수 있는 백유정제법을 찾는데 대해 그리고 당장 실험으로 확증해 봐야 한다는데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는 나의 협력을 바랐다.

우리가 0시 통근열차에서 내려 공장실험실에 들어 섰을 때에는 기승스럽던 비바람은 허리가 꺾인듯 숙어 들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나는 리동무의 지시에 따라 실험장치들에 필요한 시료들과 정제흡착물을 장입하고 크지 않은 반응로에 불을 달았다. 리동무는 격전장에 나선 병사처럼 예리한 눈길을 모두었다.

그는 계기들을 세심하게 지켜보며 온도와 압력, 반응속도를 조정해 갔다. 나는 초긴장으로 불 타는 그 눈빛에서 언젠가 봄날의 이른 새벽 고요한 바다가에서 자기의 녀과 말하며 활활 타오르던 그 심장의 불을 보는듯 싶었다. 사심 없는 량심에 첨단기준점을 세우고 뒤늦은 통근길과 새벽의 산보, 불빛 꺼질줄 모르던 서재와 비바람 모진 깊은 밤마저도 시간에 쫓기여 사는 사람! 그는 결코 뒤늦은 《느렁뱅이》가 아니였다. 그는 우리 당이 제시한 올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과학기술로 나라의 융성번영을 앞당겨 가는 개척자이며 선구자이다.

불현듯 나는 결사관철의 각오로 이글거리는 심장의 불을 안은 그 열정의 모습에서 즐기차고 억센 빛발로 뚫 터오는 강성대국의 새벽빛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 강성대국의 해돋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 가는 창조적 심장들에서 솟아 오를것이며 우리 조국은 수천수만의 그 값 높은 심장들에 받들려 경제강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나는 뚫어 오르는 걱정을 진정할수 없어 실험실 창문을 활 열어 제겼다. 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싸여 있었다. 그 어둠을 한웅큼 짹 쥐면 먹물이라도 습새여 나올것만 같다. 그러나

이 밤 그 어둠은 창조로 타번
지고 있다.

리동무가 나의 어깨를 툭 치
며 말을 건넸다.

《여보게, 래일 새벽 우리 함
께 낚시질을 하세나. 우리가 만

나던 그 도래곶이에서 말야. 아,
새벽바다! ... 얼마나 좋은
가!...》

나는 갑자기 목이 잠기여 대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웨치고 있었다.

친우여, 나는 지금 진보와 문
명으로 밝아 오는 강성대국의
새벽을 맞고 있네. 그대들의 심
장과 녀의 빛인 그 새벽이야...
아무렴 새벽바다에 비길텐가!

조국애란 의미를 두고 외 1 편

천일수

말만 하여도
눈물이 절로 나고
조용히 생각만 하여도
그리움에 사무치던
어머니조국이여

하루에도 그 몇번이라
바다 건너 이역땅에서
조국의 지도를 펼치고
도시와 마을, 산과 강
그 많은 지명들을 짚어 가며
그리움에 불러 보던 조국이여

보고 싶어 조국이 보고 싶어
내 마음 진정 못할 때
높은 산정에 올라 서면
산너머 구름너머 보여 올듯
하염없이 바라보던 마음

아, 바람에 날려 갔던가
그리움은 꿈만 같이 가서 지고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긴
나의 보람찬 새삶이여
나의 끝 없는 행복이여

휴식날이면
수성천 맑은 물에서
내 제 나이도 잊고
어린것들과 함께
잃어 버린 유년기 물장구로 불러 오지 않았더나

조국땅을 더 밟고 싶어
기다리는 전차도 타지 않고
늪집 창가에 아침인사도 보내며
용해장으로 첫 출근한 그날은
나의 새삶의 시작점은 아니던가

모든것이 제것이 되고
모든것이 다시 찾은것이기에
길을 가다가도 멈춰 서서
바람에 넘어 진 애어린 가로수에
내 받침대도 다시 세워 주었거니

내 한포기 풀을 두고도
한목숨 아낌없이 바치고 싶은
아 조국애는 정녕
제것으로부터 시작되는것이구나

나의 삶

어머니만 있으면
생이 무궁한줄로만 생각하던
철 없던 내 어린 시절이여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이국땅 판자집 작은 프락이여

그 프락을 나서
인생의 험한 길에 들어 설 때
내 서글피 깨우치지 않았던가
철석같이 믿어 오던
어머니품도 끝이 있다는것을

그러나 내 조국의 품에 안겼을적에
나를 먹여 주고 공부시켜 주고
미래까지 보살펴 주는

그 어머니품은 한시절이 아니였다

동심의 나래 꺾이었던
내 어린 시절의 꿈
오늘에 다시 나래 펴
어린 날에 띄우던 하얀 연처럼
저 하늘을 훨훨 날고 있지 않는가

조국이여 내 알았노라
나를 낳은 어머니품에서
끝이 있었어도
위대한 어머니,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보람찬 내 삶엔 끝이 없거니
아, 영원한 나의 삶이여!

채송화

-나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

강귀미

우리 집 창가에는 여러개의 화분이 놓여 있다. 금강산의 삼선암 같은 바위선인장이며 푸른 장검 같은 잎사귀들을 겹겹이 드리우고 화려한 꽃뭉음을 준비하고 있는 군자란이며 호리호리한 몸매에 가름한 얼굴의 아름다운 처녀를 연상시키는 류선화며 그리고 창가의 원탁우에는 제왕처럼 거룩해 보이는 소철이 자기의 풍만한 잎사귀들을 펼치고 있다. 찾아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화분들을 한동안씩 들여다 보며 감탄한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화려한 화분들보다 누구도 눈 여겨 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고마는 자그마한 화분을 가장 사랑한다. 그 화분에는 채송화가 심어 져 있다. 잎도 작고 꽃도 작고 즐기조차 한뼘도 안되게 작은것이지만 나는 가장 사랑한다.

채송화를 보면 나의 시선은 저절로 책상우에 세워 져 있는 아버지의 사진으로 끌려 간다. 채송화는 나의 아버지가 사랑하던 꽃이었다. 거의 한평생을 일본땅에서 보낸 아버지에게 있어서 채송화는 마음속의 벗이었다...

오늘은 채송화화분에 꽃이 피었다. 자그마한 꽃이지만 그 선명함과 섬세함이 볼수록 눈굽을 따깝게 한다. 그 조용하면서도 강의한 아름다움이 심장에 젖어 들과 함께 나는 또다시 아버지의 사진앞으로 끌려 간다.

《아버지, 채송화가 피었어요.》

밤색 나무액틀안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사진에 서 마주 보는 아버지의 얼굴.

나는 사진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러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그 때처럼 가슴을 가득 채웠다. 물끄러미 바라보며 금시 무슨 말인가를 할듯만 싶은 눈길, 그 눈길을 마주 보느라니 내 마음은 참을수 없이 쓰러 온다.

날을 따라 더해 가는 그 아픔, 그것은 내 나이가 이미 아버지의 한생이었던 선고개에서 다섯해나 더 넘어선때문인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부모들의 심정과 고통을 리해하게 되는것인지...

아니, 그때문만이 아니다. 오늘 신문에서 재침의 칼을 갈고 있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기사를 읽은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날뛰는 자들...

아버지는 사진속에서 분명 그 무엇을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것은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너무나 일찌기 앗아 간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과 고발,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이다...

하여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글이라기보다 일제놈들에게 인생의 절반을 빼앗긴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글을...

나는 아버지가 남긴 자서전철을 펼쳐놓았다. 이미 누르스름하게 퇴색한 종이장들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반년전쯤에 자필로 쓴 것이었다. 거기에는 해방전 《징용》에 끌려 갔던 상황이 날자별로 상세히 적혀 있다.

아버지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예감하고 이 글을 쓴것이 아니었을가. 일제놈들에게 당한 고역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생을 마치기에 앞서 이런 《고발장》을 남기었을가.

이것은 나에게, 후대들에게 넘겨 주는 경고장이기도 하였다. 나는 그것을 글로 남겨 나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할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1)

나의 아버지는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 이국 땅으로 흘러 간 민족수난자의 후손이었다.

아버지는 머슴군출신의 총각과 종살이처녀가 만나서 이룬 가정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었다.

머슴군출신인 아버지의 아버지-나의 할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아 가는 착한 천성을 지닌 사람이었으나 이와 달리 아버지의 어머니-나의 할머니는 몹시 이악한 녀자였다. 종살이할 때 너무나 오돌차고 여무진 할머니의 일숨씨에 드살이 센 지주녀편네까지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태어나 자랄 때의 가정형편을 놓고 보면 변변한 집이 없어 오물장으로 쓰이던 헛간을 《집》이라고 꾸려 놓고 살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토목로동, 할머니는 농사품팔이... 이런 가정에서 자식을 공부시킨다는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였지만 할머니의 그 이악성이 아버지로 하여금 소학교를 거쳐 교배 마쓰노실업

학교까지 갈수 있도록 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실업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아버지는 등교할 때 전차를 탈 돈이 없어서 새벽 5시에 집을 떠나 달리기로 학교까지 가곤 했다고 한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는 알수 없다. 다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길이 아버지가 실업학교의 마라손선수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결승테프를 끊던 반마라손주보다 더 먼 길이었다는것을 알고 있다.

《별로 힘들지 않더구나. 통학거리보다는 짧았으니까.》

20키로메터쯤 되었던것이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도 지각한적이 없었다고 한다. 단 한번 지각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채송화와 인연을 맺는 기회로 되었다.

통학길의 어느 길목에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조선사람들은 《부산집》이라고들 불렀다. 아마 그 집 주인의 고향이 부산이었던 모양이다.

아침마다 그 집앞을 지날 때면 아버지는 한 청년과 맞다들곤 하였다. 그 청년은 내의바람으로 아침운동을 하고는 앞뜰에 심은 손바닥만 한 꽃밭에 물을 주곤 하였다.

하루이틀만이 아니게 계속 보는 그 모습에 아버지는 그 꽃밭에 그 어떤 진귀한 화초가 심어져 있는것이라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눈 여겨 볼 사이도 없었고 별로 흥미도 느끼지 않았다. 등교시간을 보장하려면 두발을 시계초침처럼 잠시도 멈추지 말고 달려야 했던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청년의 류다른 인상은 머리에 새겨졌다. 언제 보나 얼굴빛이 어두운 때가 없었고 힘과 용기, 희망에 넘쳐 있는 얼굴이었다.

한달후부터는 그 청년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아버지가 낮 익어 진듯 미소를 보내주게 되었다. 매일같이 아침에 주고 받는 미소가 두사람의 말 없는 인사로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부산집》에 들리게 되었다. 《부산집》 주인도 할아버지와 함께 토목로동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집주인을 찾아 들어 갔을 때 마침 안에는 그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아버지를 보자 《아, 군도 조선사람이었구만.》 하고 반가와 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조선에서 두달전에 건너 온 《부산집》의 먼 조카벌이 되는 사람으로 고베의 신학교 학생이었다.

잠간사이에 그와 친숙해 진 아버지는 창문으로

그가 매일 가꾸는 꽃밭을 슬며시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의아해 졌다. 진귀한 화초가 있는줄 알았던 꽃밭에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 없는 몇포기의 채송화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저것... 채송화가 맞지요?》

아버지의 물음에 그 청년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왜 하필 채송화를 심고 가꾸는가 하는거지?》

《...》

잠시 생각에 잠겼던 청년은 입을 열었다.

《난 저 꽃을 사랑해.》

《...》

《전에는 나도 별로 눈 여겨 본적이 없어. 그런데 얼마전에 고향에 들렀던 때부터는... 부모님들도 동생들도 다 어데 갔는지 없어 지고 집도 빈터밖엔 없더구만. 집터자리엔 이 채송화 한포기만 피여 있더군. 어데서 날려 왔는지 아니면 누이동생이 심어 놓은것이었던지... 나는 그것을 꺾어 들고 그곳을 떠났네... 이곳에 와서 집을 정리하며 보니 시들다 못해 말라 버렸더구만. 집에 짓눌리워 부러지고... 창밖에 내버렸지. 그런데 며칠후에 보니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살아 있질 않겠나. 그때부터... 난 채송화를 사랑하게 됐지.》

《...》

가슴 저미는 이야기였다. 청년의 음성도 저으기 떨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떠올랐고 말소리도 힘 있게 울렸다.

《사람들은 대체로 채송화를 볼품 없는 꽃으로 알고 있지. 그러나 자세히 그 꽃을 들여다 보라구. 마치 푸르청청한 솔잎새로 모란꽃이 피여 난듯 하질 않나. 채송화를 솔잎모란이라고도 부르는데 우연치 않지. 또 채송화는 얼마나 굳센 꽃인가.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불고 짓밟히고 뿌리가 잘리우고 대가 꺾여 저도 다시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 나 아지를 뺀고 꽃을 피우지. 나에겐 그게 우리 조선사람들의 기질처럼 느껴 지더구만. 왜놈들에게 짓밟혀도 죽지도 굴하지도 않고 더 꺾꽂이 살아 나가는... 나는 군도 그런 청년이라고 믿고 싶네.》

창문아래의 채송화가 그때는 아버지에게 새롭게 보였다. 그 소박한 아름다움, 굴함을 모르는 강의함이 가슴속에 찌르르-스며 드는것 같았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채송화가 활짝 핀 자그마한 프락과 류다른 청년이 자리 잡게 되었고 아침마다 그앞을 지나가는것이 제일 기쁜 시간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날이 바로 아버지가 학교에 지각한 단 하루였다.) 학교로 달리던 아버지는 《부산집》앞에서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춰 서고 말았다. 그 집앞에서 여러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던것이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사람들사이를 비집고 들어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비록 크고 좋은 집은 아니였어도 아담해 보이던 목조건물이 완전히 수라장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창문들은 모두 깨여 저 나가고 문짝은 떨어 저 덩굴고 있었다. 가장집물들도 깨여 지고 부서져 마당 여기저기에서 나뒹굴고 있는데 그 집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뜻밖의 현실앞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듯 했고 한동안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서 기모노를 입은 두 일본녀자가 주고 받는 말소리가 들려 왔다.

《이 집에 있던 그 젊은이가 배일본자였대지요? 반도땅에서 건너 와 학교엔 이름만 걸어 놓은...》

《저런! 그게 어디 될법이나 한 일이에요? 센징이 감히 대일본제국을 반대하다니...》

《글쎄 말이에요. 아가 헌병나리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 가고 집주인도 숨겨 준 죄로 같이 데려갔지요 뭐.》

《그래야 해요. 그대로 두면 또 간토대진재 같은걸 일으킬거예요.》

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것만 같았다. 저도 모르게 책 돌아 서서 그년들을 쏘아 보았다. 그러자 두 일본녀자는 눈이 동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안따 난대? (너는 왜??)》

《센징인가부지.》

그들은 제멋대로 지껄이더니 계다짜를 달가닥 달가닥거리면서 가버렸다.

이윽고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 저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 한참이나 못 박힌듯 서 있다가 주춤주춤 창문밑으로 가보았다.

창문밑의 꽃밭도 집과 같은 모양이었다. 헌병놈들의 군화에 마구 짓밟게 저 성한 포기 하나, 줄기 하나 찾아 볼수 없었다.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꽃밭에 쭈그리고 앉아 짓밟게진 채송화포기들을 하나하나 쓸어 만졌다.

(아, 불쌍한 조선사람들!...)

눈물이 흘러 내렸다.

아버지는 그곳을 어떻게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허청허청 한창 걷다가야 부러진 채송화줄기 하

나를 그냥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학교에 지각하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 온 아버지는 양지바른쪽 모퉁이에 꺾어 진 채송화가지를 정성스레 심었다. 그리고 아침마다 온갖 정성을 담아 물을 주었다. 오래지 않아 채송화가지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아지를 쳤으며 꽃망울들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첫꽃이 피는 날,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감옥에 잡혀 간 그 청년을 그리고 짓밟힌 우리 조선사람들을 생각해서였다.

꽃들은 계속 피어 났다. 그 꽃송이수들만큼 아버지와 마음속에도 짓밟혀도 짓밟혀도 죽지 않을 그 어떤 힘이 자랐다. 조선민족의 기질이랄까. 그리고 그 청년의 말이 계속 머리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날까지 그 청년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백두산바람을 안고 온 사람이 아니였을가 싶구나.》

그렇수도 있다. 자료에 의하면 고베중앙신학교에서도 백두산에서 온분들이 활동하였고 여러 지역에 조국광복회조직이 결성되어 있었다니 말이다. (그에 대한 자료는 오늘도 일본경시청 특고문서고에서 찾아 볼수 있다.)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일본땅에서도 **김일성** 장군님의 특사들이 일본에 들어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채송화도 백두산바람이 피운 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채송화를 가꾸는 아버지의 가슴속에서는 푸르싱싱 자라는 채송화처럼 민족성과 반일감정이 더 커갔다. 아버지는 일본학생들에게 어떤 측면에서나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지도 않았다.

(네놈들은 센징, 센징하지만 조선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줄테다!)

실업학교때 첫 학부형회의를 하는 전날 밤이었다. 학교에서 돌아 온 아버지에게 할머니는 김이 문문 나는 토장국에 보리밥 한사발과 김치 한보시기를 올려 놓은 밥상을 안겨 주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잡수셨나요?》

《지금이 몇시라고. 네 오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먹었다. 학교길이 먼데 빨리 오지 않고 이제까지 뭘했노?》

《공부를 하다나니 시간이 늦어 졌어요.》

《집이 시내에서 먼데 밤길을 조심해야 하느니

라.》

《예. 아 참 어머니, 래일 첫 학기 학부형회의날 인데요, 가서야지요.》

《학부형회의? 그 학교야 소학교와는 달리 이름 있는 학교가 아니노. 비너를 찌른 내가 가면 네가 거북하지 않겠나?》

《어머니도 참, 별 말씀을...》

《왜년처럼 머리를 틀어 올리고 갈수도 없지 않나.》

《하하하...》

아버지의 웃음앞에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어머니, 내가 실업학교에 갔다고 해서 왜놈이 된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조선사람들이 뭐 왜놈들한테 죄진거라도 있나요? 그놈들이 죄를 졌지요. 어머니는 원래대로 소학교때처럼 오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그 다음날 오후, 실업학교 마당에서는 학교가 생긴이래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 졌다.

머리를 쳐들고 땀뻑하게 운동장에 들어 서는 학생, 그옆에는 흰 치마저고리를 떨쳐 입고 머리에 낭자를 틀어 올린 그의 어머니가 두팔을 휘저으며 들어 섰다. 너인의 머리뒤에서 깊숙이 찌른 비너가 햇빛을 번쩍번쩍 반사하여 구경꾼들의 눈을 찔렀다. 바로 그들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와 할머니였다.

그들의 모습은 일본인학생들과 학부형들, 교원들을 경악케 했다.

교실에 들어 앉자 모두의 시선이 흰 치마저고리에 쏠렸다. 그러건말건 할머니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담임교원이 출석한 학부형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야마네 도시요상.》

한 왜년이 《하이.》라고 대답했다.

《후꾸다 스스무상.》

《하이.》

그다음 교원은 할머니쪽을 힐끗 내려다 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끼요 수일이상.》

그러자 대답대신 《끼요 수일이라니? 강수일인데!》하는 할머니의 커다란 말소리가 울려 순간 교실안은 쥐 죽은듯 조용해 졌다. 담임교원은 그 어떤 위압감을 느꼈던지 아니면 량심적인 사람이었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이어 교원은 최우등생의 이름을 불렀다.

《...수일군.》

최우등생은 유독 아버지 혼자였다.

그러자 저희 자식들이 조선학생한테 졌다는 분함과 질투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일제히 할머니의 치마저고리에 쏠렸다.

그럴수록 할머니의 가리마를 곧바로 탄 머리는 더 높이 쳐들렸고 치마저고리의 흰색은 더욱 눈부시게 보였다. 아버지는 학교의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수석이었던것이다!

공부만이 아니었다. 학교적으로 진행되는 마라손경기, 수영경기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결승테프를 끊었고 미술, 글짓기, 음악, 서예도 뛰여 나게 잘했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때 당시 그랬다는 한장의 그림은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길다란 곤충책뽕병을 그린 그림이었다. 도드라져 새겨 진 포도송이무늬까지도 어찌나 생동하게 그렸는지 나는 어릴 때 그 먹음직한 포도송이무늬에 몇번이나 손이 갔었다.

그리고 내가 조선초급학교에 다닐 때였다.

《설날》이라는 제목으로 도화숙제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떡메를 높이 쳐든 아버지와 소금물을 떡살에 바르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할머니를 형상한 그림을 그렸었다. 그옆에는 손벽을 치는 나... 할머니의 치마밑에 속바지까지 살짝 보이게 그렸던것이 오늘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 그림은 특등상을 받아 교실 뒤벽에 한달이나 붙여 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예솜씨는 실로 놀라운것이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예시간을 《습자》시간이라 했는데 어느 습자시간엔가는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까지 큰 붓과 종이, 먹을 가지고 학교강당에 다 모이게 한적이 있었다.

강당에는 교장과 함께 가사를 입은 웬 중이 와 있었다.

습자교원이 나서서 모두 꿇어 앉히더니 일제히 똑 같은 글자들을 붓글씨로 쓰게 했다.

영문을 모르는 학생들속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붓글씨를 쓰다가 하면 멍청하니 앉아 있는 학생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만만한 자세로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고는 힘 있는 필체로 붓글씨를 단숨에 써제겼다.

아버지의 붓글체는 룡이 하늘로 날아 가는듯한 기상이라 백명나마 되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붓글씨를 돌아 보던 교장과 중의 발걸음이 아버지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미고또다나! (홀룡하구만!)》

《고레다! 고레. (이것이다! 이것)》

후에 안 일이지만 그 중은 효고현에서도 이름 있는 절간의 주지였다. 그는 새로 중축한 절간의 현판을 쓰기 위해 서예가를 물색하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후 아버지는 그 절간에 가서 팔뚝만 한 붓으로 절간현판을 써주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탄복해 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아버지께 대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지와 기대는 한없이 컸다. 그것은 수백명 일본학생들을 지력과 재능으로 이겨 낸데 대한 민족적 긍지와 동시에 아들의 휘황한 미래에 대한 행복한 기대였다.

그 나날에 집모퉁이의 채송화꽃밭은 꽃송이로 가득 차 한평방미터의 아름다운 주단을 펼치고 있었다...

(2)

아버지는 드디어 실업학교를 졸업하였다. 물론 최우등성적으로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메달과 표창장, 졸업증을 받아 들고 학교를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즐겁기에 앞서 불안하기만 했다.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찌 알랴. 더우기 이 일본땅에서...)

며칠후부터 아버지는 취직시험에 나섰다. 미쓰비시회사, 가와니시기계회사, 아마가사끼변전소... 가는 곳마다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쳤고 시험관들도 만점을 주었으며 취직에 대하여 담보했다.

그러나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다리는 결과는 언제나 본적지-《조선》이라는것때문에 《불합격》이었다.

아버지가 취직결과를 알아 보려고 갔다 올 때마다 《니, 어떻게 됐노?》라는 할머니의 물음과 함께 울려다 보는 할아버지의 말 없는 물음이 뒤따른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힘없이 《취직 못했어 요.》하고 고개를 꼭 수그리고 앉은뱅이책상앞에 가앉아 책만 뒤적거린다. 다음날에도 또 다음날에도...

다섯번째 취직시험까지도 결과를 알아 보러 나갔던 아버지가 어깨가 축 처져 들어 왔을 때 부모들은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윽하여 언제나 말 없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속 썩이지 말아. 제 나라 뺏긴 백성이 제 나라 빼앗은 놈들의 땅에 와서 락을 찾는게 어리석지. 래일부턴 나하구 토목로동판에나 가자.》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성미 급한 할머니의 야무진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 같은 그런 일을 시키자고 열손톱이 닳도록 일해서 공부시킨줄 아능기요? 아들을 집에서

놀리우면 놀리웠지 그런 험한 로동판에 못 보내겠소!》

이렇게 아버지는 인생의 초여름에 너무나도 일찌기 된서리를 맞았다.

(다재다능, 최우수성적-이것이 조선사람에게 무슨 소용이라.)

아버지가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강제 《징용장》까지 날아 왔다.

《징용장》이 날아 온 그날,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품팔이 나갔던 할머니가 혈레벌떡 뛰여 들어 오더니 《옆집, 건너집, 달수네 집들에 다 <징용장>들이 날아 와 야단법석들이구나.》 하면서 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두손만 화들화들 떨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없이 서 있었다.

《...》

망두석처럼 서 있는 아들을 마주 보던 할머니의 눈길이 문득 아버지의 손에 쥐여 진 종이장에 가뒀었다.

《너 그게 뭐냐?!... 혹시... <징용장>은 아니겠지?》

《...》

《왜, 왜 대답이 없냐?》

《...》

삼시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이놈의 족발이새끼들이... 이제는 내 외아들까지... 못 데려 간다. 못 데려 가!...》

할머니의 통곡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꺼렇게 죽어서 새벽녘이 되도록 애꿎은 담배대만 빼금빼금 빨고 있었다.

아침, 징용으로 끌려 가면서 아버지는 실성하다싶이 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부락을 하였다.

《어머니, 아침마다 채송화에 물을 꼭 주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그러자 할머니는 또다시 목 놓아 울었다.

《죽을지 살지 모를 길을 가면서 꽃은 무슨 꽃이노, 아이고, 이 망할놈의 세상.》

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두손으로 부여잡았다.

《어머니, 이 꽃을 매일 저를 보듯이 보세요. 이 꽃이 살아 있는 한 저도 꼭 살아 와요.》

그 말에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눈에서는 번개와도 같은 섬광이 번쩍였다.

《오냐, 내 10년 왕가물이 들어 이 땅이 모래밭이 된대도 이 꽃을 내 살속에 박아서라도 살려 낼테다. 꼭 살아서 돌아 오너라.》

이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부모와 채송화를 뒤에 두고 《지옥》행의 고행길을 떠났다. 아버지의

자서전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1942년 10월에 있는 일이었다.

강제징용자들은 어느 한 막사에서 헌병들의 감시하에 신체검사를 하였다. 그것은 형식상의 것이었다. 그들속에는 허약자, 만성질환환자, 지어는 왜놈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두손가락이 잘려온 사람도 있었으나 모두가 《합격》이었다.

이때부터 아버지에게는 노예와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다. 그것은 20세기 중엽의 《노예》였다. 모든것을 왜놈의 감시하에 움직여야만 했다. 지어는 변소에 가는것조차도...

《노예》들은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 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교 시바우라항이었다. 거기에서 놈들은 《노예》들을 두주일간 크고 작은 짐짝을 배에 싣는 작업을 시켰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써여 저 있다.

《배의 이름은 <마쓰야스마루>였다.》

아버지가 그 배에 얼마나 원한이 서려 있었으면 30여년이 지난후에도 배의 이름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을것인가.

짐운반을 끝낸 날 아버지네는 마지막 《짐짝》으로 그 배에 실리었다.

붕-하는 고동소리를 울리며 배는 항을 떠났다.

그 서글픈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생각해 본다. 살아서 다시 만날수 있을지 기약할수 없는 부모에 대하여, 죽음의 심연속에 빠져 들어 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통탄하였으리라.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열여덟살이었다. 지옥으로 끌려 가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꽃나이였다.

그때의 일에 대하여서는 아버지가 때때로 회상하며 이야기해 주었기때문에 나는 얼마간 알고 있다.

배선창에 짐짝들과 함께 실려 간 몸뚱아리들은 비좁게 들어 앉아 서로 몸을 돌리지도 굽히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콩나물시루와 같았다. 다채다능의 수재로 이름났던 아버지도 그곳에서는 《시루》에 박힌 한대의 《콩나물》이었다.

조선사람에게 재능이 무슨 소용이며 지식이 무슨 소용이라. 애당초 부모의 피땀으로 공부를 한 것이 헛일이였다. 옛 속담에는 공든 탑이 무너지라고 했지만 조선사람에게는 아무리 공들인 탑도 모래성으로 될 운명밖에 더 다른 운명이 없었다.

배안에서의 10여일간, 그것은 하나의 잔혹한 고문이었다. 악취라든가 추위, 배고픔 같은것은 문제가 아니였다. 습관되어 갔다. 그러나 갈증에만은 습관될수 없었다.

물이란 백명에게 군용물통 하나밖에 차례지지 않았다. 배는 철벽철벽 물위로 달리고 있었으나

선창에 갇힌 그들은 한모금의 물을 그려 보며 미칠듯 한 갈증에 시달렸다.

《그때는 물밖에 생각나는것이 없었다.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였다.》 하고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평시에도 물을 마실 때 늘 단꺼번에 들이키지 않고 한모금 한모금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물을 마주하면 저절로 그 지옥속의 10여일간이 떠오르고 목이 메여와서였는지, 너무도 그리워 했던 물이어서 음미하며 마신것이였는지...

이렇게 10여일만에 도착한 곳이 태평양의 적도 선상의 이름 없는 섬이었다.

때는 1942년 12월 말이었다. 이때부터 섬에서의 노예살이가 시작되었다.

숨이 킁킁 막히는 적도의 열풍, 채찍에 물리우는 노예로동, 죽지 않을 정도의 주먹밥 한덩이, 설새 없는 미군비행기들의 공습, 시간마다 죽어나가는 시체들... 이런 나날들의 련속이었다.

그 시체들속에는 같은 동네에서 간 달수도 들어 있었다.

왜 그런지 아버지는 그 시체들앞에서 이제껏 감감히 잊었던 채송화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을 주며 키우고 있을 채송화, 그앞에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을 아버지... 짓밟혀도 굴하지 않고 꾹꾹이 살아 있는것이 조선사람의 기질이라던 그 청년의 말도 떠올랐다.

(그렇다. 채송화처럼... 짓밟혀도... 살아 남아 한다. 살아서 돌아 가야 한다! 개죽음을 당해서는 안된다!)

아버지의 온몸에는 죽음도 이겨 내게 하는 그 어떤 생의 힘이 용솟음치는듯 했다.

강제징용자들속에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면서 이름이 똑 같은 《수일》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사람들은 두 수일을 분간하기 위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담배를 좋아 하는 그를 《담배굴초 수일》이라 불렀다. 어찌다가 내주는 뜬 담배도 남김없이 말끔히 피워 버리고는 남의 담배까지도 넘겨다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담배를 즐기지는 아버지는 그에게 몽땅 털어 주곤 했다. 그래서였는지 이름이 같아서였는지 두 수일이사이 는 각별하였다.

채송화가 머리속에 떠오른 그날 밤, 아버지는 담배를 뽕뽕 피우고 있는 《담배굴초 수일》의 옆에 가앉았다.

《니 코는 굴뚝 같구나. 쌍굴뚝.》

《내 담배는 다 피우고 네가 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내 아버지가 담배굴초니 이 아들도 그럴수 밖에. 이래도 저래도 죽을 판인데 담배나 싹뚱 피우고 죽자는기다.》

《죽기는 왜 죽어. 왜놈들때문에 맥없이 죽는단 말이야? 우리는 살아야 해.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들이 짓밟을수록…》

《하지만 이 사지판에서 어떻게 살아 난단 말이나.》

《야, 너도 수일이고 나도 수일이다. 우리 부모들이 다같이 오래오래 살라고 목숨 <수>에 날 <일>자를 써서 수일이라 지어 주었는데 스무살안팎에 이 섬에서 무주고혼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네 귀바퀴가 큰걸 보니 오래 살 팔자야.》

수일의 귀는 정말 무척 컸다.

그는 제 귀를 만지며 말했다.

《하긴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 그렇지만… 야, 정말 배만 약간 채울수 있어도 좀 희망을 가져 보겠는데…》

《그건 그래… 가만 저기 보이는게 뭐냐?》

그들은 어둠속에 룬광만 보이는 20~30미터 높이로 서 있는 나무를 보았다. 야자나무였다.

《저기에 열매가 있겠지?》

《있겠지. 요전에 왜놈들이 야자를 먹는걸 보지 않았는가?》

《우리 이제부터 야자열매를 따먹자. 일본놈 망하는 꼴도 봐야 할게 아닌가.》

그때로부터 그들은 감독놈의 눈을 피해 가면서 야자열매를 따고 그 즙을 먹었다. 배 고품이 한결 덜어 지는것 같았다. 감독놈의 눈에 띄워 매맞은적도 빼앗긴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그것은 그들의 생명선이었다.

나는 지금도 출판물이나 텔레비전에서 야자나무가 나오면 《저게 야자수라는 나무다. 야자라는 열매가 달리지.》하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한다.

《맛 있느냐구?… 맛 있는가 말이지?》

아버지는 대답을 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답을 주지 못한것이였다. 너무도 가슴아픈 암담한 추억이였기때문일것이다. 일본에는 남방과일이 흔하다. 야자열매를 매대들에서 쉽게 만날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번도 야자열매를 사오신적이 없었다. 하여 나는 아직까지 야자열매맛이 어떤지를 모른다.…

책을 보니 그것은 열매라기보다 음료에 가까웠다. 당분 1.2~1.8프로, 단백질 0.1~1프로, 그밖에는 수분, 그나마도 매일 먹을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감독놈의 감시때문에 며칠에 한번씩이 고작이였다.

학교시절에 유술과 마라손 등으로 단련된 튼튼한 체격이였건만 녀달도 못되어 아버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것은 4월의 어느 날이였다고 한다.

밤새 고열에 시달린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비철거리며 공사장에 끌려 나갔다. 그날은 등짐을

지는 고역이였다. 두번째 짐까지는 겨우 날랐지만 세번째만에는 그만 앞으로 푹 꼬꾸라지고 말았다.

앓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뒤에서 등짐을 지고 바싹 따라 오던 《담배꿀초》 수일이가 등에 젖은 짐을 팽개치고 아버지에게로 달려 왔다.

《야, 수일아!》

그러나 의식을 잃은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수일아, 정신 차려라!》

다른 징용자들은 허를 찼다.

《그렇게 든든하던 사람이 저 모양이 되다니…》

《어이구, 이를 어쩌노.》

아버지곁으로 와서 모두가 안타까와 했다.

이때 왜놈감독이 어느새 나타나 쓰러진 아버지를 잠깐 내려다 보더니 짧게 한마디했다.

《저기로!…》

저기-그곳은 시체들을 처리하는 곳이였다.

《담배꿀초》 수일은 분노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 하늘이 내려다 본다!》

순하디 순한 그의 얼굴은 격노로 하여 사납게 이그러졌다. 모였던 사람들의 눈들에도 불이 이는듯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놈은 할수없이 아버지를 막사에 데려 가도록 하였다.

아버지는 토질병(뎡구열)과 적리에 걸린것이였다. 고열로 하여 정신을 잃은채 사흘이 지나갔다.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시원한 즙이 입안으로 들어 오는 감각에 정신을 차렸다.

《담배꿀초》 수일이 젖빛나는 야자즙을 숟가락으로 입에 떠넣어 주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를 보더니 너무도 반가와 그는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떠듬거렸다.

《야, 이 문둥아… 저승에까지 갔다가 왔노? 살아서 같이 돌아 가자던 놈이… 나를 혼자 두고 죽으려 했나?》

이렇게 아버지는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헤매다가 겨우 살아 났다.

왜놈들은 아침마다 의사가 와서 피검사를 하게 하곤 했는데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검사수치가 조금이라도 좋아 지면 고역장에 다시 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센징들이란 피병을 잘 앓는것들이다!》라고 그놈들은 내놓고 말했다.

워낙 아버지의 병이 심했던지라 검사결과는 나빴고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고마운 친구는 결사적으로 야자열매를 따오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담배꿀초》 수일이가 저녁이 다되도록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야 하루종일 고역에 시달린 동료들이 하나, 둘 막사에 나타났다. 그들속에서도 수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일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한 동료가 야자열매를 들고 아버지곁에 다가오더니 《수일이, 자네 친구는 그만 폭격에… 풀술에 자네에게 주려고 딴 이 야자열매를 감춰 둔채…》 하고는 뒤말을 잊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다.

날이 감에 따라 아버지의 몸은 더 부어 오르고 두다리 는 걸을수조차 없이 되었다.

《나는 그때 사실 병을 더 심하게 만들려고 애 썼지. 무염식사를 했지. 그래서 몸이 보기 끔찍하게 부어 오르도록 하였다.》 라고 아버지는 후에 말했었다.

그런 아버지의 몸에서도 놈들은 《사용가치》를 찾아 내려고 발악했다.

《최종검진》인 흉부투시를 앞둔 전날 밤, 아버지는 한되들이 큰 병의 간장을 다 마셨다.

《간장을 마시고 투시를 하면 폐가 새까맣게 보인다고들 해서였지…》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온몸이 전율하곤 했다. 한손가락의 간장도 선뜻 넘기기가 힘든데 그 큰 병의 간장을 어떻게 다 마실수 있었을가.

이 순간에는 나는 울면서 이 글을 쓴다. 너무도 가혹하고 비참한 인생행로를 걸어 온 아버지…

검진결과는 《내지송환》으로 결정되었다. 싸움은 아버지의 승리로 끝난것이였다.

그것은 1943년 8월이였다.

허나 아버지의 《승리》, 그것은 《죽음의 승리》와 같은것이였다. 그새 아버지의 위장, 간장, 심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은 회복될 여지없이 손상되어 버렸던것이였다.

섬에서의 아버지의 지옥과 같은 지긋지긋한 생활을 쓰자니 나 자신도 전율을 느끼며 숨이 막혀 더 쓰지를 못하겠다.

하여 여기에 아버지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다.

《…1943년 8월 <내지송환>이 결정되었다.

섬을 떠난 다음날 새벽 2시 미제의 기뢰에 배가 파괴되었다. 다행히 기관이 무사하여 섬으로 도로 갔다. 섬에 매일과 같이 미제의 공습 계속, 약 1,500여명의 조선청년 희생…》

오늘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당국에게 나는 재판관이 되어 묻고 싶다. 무슨 권리로 일제놈들은 우리 조선청장년들을 열대의 폭양이 이글거리는 섬에까지 끌고 가 무고하게 희생시켰는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기록은 계속된다.

《9월에 다시 배출발. 1943년 11월 시바우라항에 도착.

열흘도 안 걸리는 배길을 미국놈들의 폭격, 어

뢰를 피하여 약 40일 표류.》

비록 몇줄 되지 않는 글줄이지만 아버지가 배우에서 보낸 그 기간 날과 시간과 초마다 얼마나 죽음의 그림자가 지꼈게 뒤따랐으랴. 그 배는 행선지가 도표 시바우라항이라 했지만 그것은 《지옥행》의 배였을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줄 썼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

40일간의 표류- 그것은 지옥의 문어구에서의 방황이였다.

나는 이 기간을 아버지가 중병든 몸으로 과연 어떻게 견디어 냈을가 하고 생각해 보곤 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가지 깃밟혀도 꺾어 저도 살아 나 는 채송화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으리라는것만은 확인한다.

생명의 꽃, 인내의 꽃,...

마침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 왔다.

그사이 반듯이 가리마를 탔던 할머니의 윤기나는 검은 머리칼은 온데간데 없어 지고 반백이 되어 버렸다. 외아들을 왜놈들이 벌려 놓은 죽음판에 보내놓고 속이 탈대로 타 그 재가 머리에 들썩워 진것이였는지.

할아버지는 이미 없었다. 미국놈들의 폭격에 돌아 가신것이였다.

집도 반나마 불에 타버리였다. 굴뚝도 벽도 탔다. 그러나 재가루가 덮인 집모퉁이 꽃밭에서는 채송화가 파랗게 살아 있었다.

비행기가 뿌린 소이탄에 집의 절반이 불 달렸을 때 할머니는 가장집물이 있는 집안으로가 아니라 불에 휩싸인 집모퉁이로 달려 갔다는것이다. 불속에서 채송화포기들을 뽑아 가슴에 그리안은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실성한줄로 알았다고 한다. 불이 꺼진후에는 재가루를 헤치고 다시 채송화를 심었다.

거멓게 그슬린 집모퉁이 땅의 채송화포기앞에서 아버지는 울었다.

어머니가 물이 아니라 눈물로 살려 내고 키웠을 채송화, 그것은 어머니의 가슴속에 뿌리 박고 살아 났으며 피여 난 꽃이였다.

애오라지 희망을 담아 어머니는 매일 그 꽃에 피눈물을 뿌리며 빌었으리라.

《아들아, 돌아 오너라. 살아서 돌아 오너라.》

그러나 어머니는 1년만에 집으로 돌아 온 아버지를 알아 보지 못했다. 한참만에야 아버지를 알아 본 나의 할머니는 자식이 살아 왔다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서 빼와 가족만 남은 아버지를 부여 안고 통곡했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이...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망할놈의 족발이새끼들아!》

아버지는 며칠후 징용복을 그대로 입고 사진을 찍었다. 우묵 들어 간 눈썹, 퍼뜩이 상접한 얼굴, 배가죽이 등에 붙은 몸...

아버지는 사진뒤에 썼다.

《태여날지 모를 나의 후대에게!

왜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진은 오늘도 우리 집에 보관되어 있다. 왜놈들의 죄행을 고발하면서...

(3)

저녁노을이 비끼기 시작한무렵이었다.

오사까항구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방파제우에 한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사까에서 있는 재일조선학생문학작품 현상응모시상식에 참가하고 돌아 오는 길이었다. 소녀가 쓴 작품 《조국의 푸른 하늘을 우리러》가 1등상을 탄 것이었다.

《뚜-》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얗게 칠한 기선이 지나간다.

아버지는 그 배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참이나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소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네가 이렇게 조국에 대한 글로 상을 받으니 이 아버지는 천금을 얻은것보다 더 기쁘구나. 오늘이 내 일생에 제일 기쁜날이다.》

환희로 하여 환해 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소녀도 사뭇 즐거워 저 두눈이 더욱 반짝반짝 빛난다.

《나도 너만 한 나이에 남보다 뛰어나게 공부도 잘했고 재간이 뛰어나다고 소문도 났지만 오늘에 와서는 남은것이 하나도 없구나. 있다면 어느 절간에 남긴 현판인데 그것이 지금 있거나 하겠는지. 설사 남아 있다 한들 뭘하겠나. 왜놈의 절간인데... 다 나라를 잃었던 탓이었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아버지는 한숨을 《후-》하고 내쉬었다. 그러더니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너는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 피울수 있다. 희망을 다 성취할수 있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머니조국이 있기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너도 조국의 너류문사가 될수 있다.

이 아버지는 네가 커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조국에 대하여, 조국을 잃었던 지난날에 대하여 쓰게 되기를 바란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아버지와 소녀는 만년필상점에 들어 갔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말하였다.

《오늘을 기념하여 너에게 만년필을 선물하련다.

마음에 드는것을 골라라.》

소녀는 유리진렬장에서 빨간색만년필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점원에게 《이 만년필을 주시오. 그리고 만년필에 이름을 새겨 주시오.》라고 말하였다. (일본에서는 만년필상점에서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름을 새겨 주곤 한다.)

아버지는 우리 글로 된 소녀의 이름을 적어서 점원에게 내밀었다. 종이쪽지를 본 점원은 《아노 - 고레와...(저- 이것은...)》 하고 머뭇거렸다.

《그대로 새기시오.》

점원은 《하이, 하이. (예, 예)》 하고는 만년필과 종이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 갔다.

소녀는 한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다른 손에는 아버지의 축복이 담긴 만년필을 꼭 쥐고 상점에서 나왔다.

이들이 바로 42년전의 아버지와 나였다...

강제징용에서 간신히 살아 온 아버지는 다시 끌려 갈까봐 고바타라는 심심산골에 숨어 있다가 광복을 맞았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 되었다.

그새 세상은 달라 저 모든것이 변했다. 조선사람의 위치도 권리도... 어머니조국이 있어 도포한복판에 공화국기가 휘날리는 총련중앙청사가 자리 잡았다. 그렇게도 억눌려 살던 아버지도 몇몇이 머리를 쳐들고 살았다.

이렇게 모든것이 달라 졌건만 오직 하나 아버지의 건강상태만은 달라 지지 않았다. 강제징용이 남긴 상처-파괴된 건강은 나아질줄 몰랐다.

병원치료는 효과가 없는데다 돈도 감당할수 없어 고려약치료로 넘어 갔다. 할머니는 약탕관에 달인 약을 아버지에게 줄 때마다 허를 끝끝 차면서 왜놈들을 저주했다. 차그마한 우리 집은 구석구석까지 고려약냄새로 습배여 버렸다.

한동안 치료를 했으나 역시 효과가 없자 할머니는 어느 신문광고에서 본 《온큐(배꼽뜸)》 치료를 시작했다. 무언지 빨간 가루약을 뜸통 밑에 깔고 그우에 뜸쑅을 놓고 태웠다. 이번에는 온 집안이 쑅냄새로 가득 찼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병세는 달라 지지 않았다.

이렇게 앓는 몸이었지만 아버지는 총련지부위원장사업에만 전심하였다. 집에 들어 오는 시간도 거의 없다싶이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교양만은 철저하였다.

우선 온 집안에 《일본말사용금지령》을 내렸고 특히 나에게 《일본영화, 일본서적금지령》까

지 내렸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 지지 않을수 있겠지만 나는 열여섯살때까지 일본땅에 살면서도 일본영화를 단 한번밖에 보지 못했다. 그나마 그 한번 본 영화때문에 아버지에게 되게 경을 치르었다.

그것은 아마 내가 열다섯살때 일이라고 생각된다.

시장거리에 새 영화관이 개관되는 날이었다. 그날 영화관에서는 《무료관람》이라는 요란스런 광고를 냈다. 동네 언니들이 공짜구경이라면서 자꾸 가자고 끄는 바람에 나는 내심 호기심도 없지 않아 따라 갔다. 영화제목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데 사무라이들이 칼을 휘두르며 돌아 치는 영화였다.

사방이 어둑컴컴해 졌을 때에야 영화관에서 나와 집앞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지은 죄가 있는 지라 머뭇머뭇거리다가 살머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쿠 이를 어쩌나, 방안에는 아버지가 우뚝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게다가 아버지의 한손에는 내가 몰래 고서점에서 사가지고 보던 《녀학생의 벗》이라는 일본잡지가 쥐여 저 있었다.

나는 머리를 푹 떨구었다.

아버지는 벌써 모든것을 다 알고 계셨던것이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

그 말은 종아리를 치는것보다 더 아프게 내 마음을 때렸다.

나의 머리는 점점 더 숙어 졌다.

《아버지...》

《이 책이 그렇게 보고 싶더냐?》

책은 나의 발치에 떨어 졌다. 그 책이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줄을 나는 몰랐다.

책을 움켜 쥔 나는 그 책을 부엌아궁에 콕 던져 넣었다. 불이 확 당겨 책은 불 타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처음으로 노엽힌 저주로운 물건이 타는것을 보면서 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조국의 딸이 되어야 한다. 조국에서 수천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지켜야 하겠느냐? 우리는 마음속의 조국을 지켜야 한다.》

그 일이 있은후부터 아버지는 방안 벽마다에 조국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화보에서 오려 내어 붙여 놓았다.

이쪽에는 평양의 거리, 저쪽에는 백두산의 웅

장한 모습이 있고 다른 벽에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태가 있었다. 그아래에는 농장벌이며 폐목이 흐르는 압록강... 자그마한 방안은 마치 조국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나는 그 시절 방안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마치 다른 세상에 간듯 잠시 멍하니 서 있곤 하였던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렇게 나는 일본땅에 살았으나 《조국》에서 살았고 《조국》의 자연속에서 숨 쉬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안겨 준 《조국》이었다.

때문에 나는 열여섯살때 조국에 귀국하였을 때 조금도 낯설음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것이 낯익었다. 친숙하였다.

아버지는 나를 방안의 《조국》에서 드넓은 조국으로 보내준것이였다.

나는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가 열여섯살난 이 딸을 왜 홀로 귀국하게 했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전문학교를 거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을무렵 왜 갑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귀국하였는지도 이해한다.

그때 아버지는 강제징용의 후파로 파괴된 건강과 간암이라는 진단으로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총련조직에서는 아버지가 1년이라는 생의 기간을 받은 몸이라 조국땅을 밟아 보고 싶다는 본인의 소망에 따라 귀국하도록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는 다르게 생각한다. 아버지는 이 딸의 머리속에서 저주로운 땅에 대한 생각을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 버리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귀국한것이라고...

청진초대소에서 우리 부녀간의 7년만의 상봉, 그날을 나는 오늘도 잊을수 없다.

이미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나는 아버지의 병세를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눈앞에 보니 기가 막혔다. 알아 보기 힘든 정도로 수척해진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를 보자 나는 눈물부터 앞섰다. 그러나 아버지는 태연히 웃고 있었다.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 같지 않게 아버지는 나를 얼싸 안으며 말했다.

《네가 분명 내 딸이 옳으냐? 조국땅에서 몰라보게 컸구나. 키도 몸도... 이 땅이 좋기는 좋구나.》

사실 일생에서 혼치 않은 기쁜 상봉의 시각이었지만 그것은 가슴 미여지는 아픔의 상봉이였다.

나는 아버지를 만난 다음 초대소밖의 정원에 나와 하염없이 울었다.

나의 우는 모습이 밖에 나온 아버지의 눈에 띄었을 때 나는 당황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껄껄 웃었다.

《네가 너무 기뻐서 우는구나.》

아버지가 딸이 왜 우는지를 어찌 몰랐으랴.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쁨의 눈물만을 흘리며 살자.》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는 조국에 와서 두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은 모두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가족은 귀국후 1년동안을 초조와 불안속에서 보냈다. 아버지의 생의 기간이 하루 하루 끝나가고 있는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였던 아버지는 1년후에도 여전히 생존해 계시었다.

조국에서 산다는 마음의 평온, 무상치료와 의료일꾼들의 정성, 채송화와 얹힌 남다른 강한 의지-이것이 아버지의 생을 더 연장시켜 준것이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아버지는 내가 받은 대학졸업증도 보냈고 신문기자로 되어 쓴 나의 첫 기사도 보실수 있었다. 그리고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나의 결혼식장에서 내가 부어 드리는 술잔도 받으시었다.

그러는 사이 2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만에야 내가 급병에 걸릴줄이야... 나는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술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더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갔을것이다.

《수술은 잘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수술장에서 담가에 실리워 와 호실침대에 옮겨진 나의 옆에 지켜 앉아 있던 아버지는 의사의 그 말을 듣고는 호실에 붙은 세면장에 들어가 세수를 하는척 하면서 몰래 우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만금을 들여야 할 대수술로 딸을 살려 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고 딸의 두번째 출생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거동을 지켜 보던 옆침대의 늙은 여인이 위안하느라 《걱정 마세요. 딸의 귀를 보시구려. 얼마나 커요? 옛날부터 귀가 크면 오래오래 산다고들 했어요.》 하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수일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가 더 컸지만 스무살을 넘기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두번째로 눈물을 흘린것은 그때로부

터 얼마후 나의 첫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였다.

그때 아버지는 벌써 병이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병석에 누워 계시는 몸이었다. 침상에 누워 나의 소설이 실린 《조선문학》을 보시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주르르 흘러 베개깃을 적시었다.

《내 딸이... 끝내 작가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역땅에서라면 1년밖에 사시지 못하셨을 아버지는 조국땅에 와서 5년을 기쁨의 눈물속에서 사시었다.

아버지는 림종시에 말씀하셨다.

《나는... 여한이 없다. 내 나라 땅에서... 볼것을 다 보고 누릴것을 다 누렸으니...》

...

그러나 나는 원통하다.

검은 술진 눈섭, 엄하면서도 리치적인 눈, 날이 선 코, 한일자로 꼭 다물어 진 입... 젊어서 한때는 유명한 어느 한 배우와 헛갈려 수표를 요청 받은적도 여러번 있었다는 아버지였다. 외형으로 보나 비상한 두뇌로 보나 너무도 아까운 아버지의 한생이었다.

선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는 가셨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작별할 때 포탄파편에 맞아 생긴 손잔등의 허물이 나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것은 잊혀 지지 않는다. 60여만 조선청장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 간 일체의 죄행이 력사에서 지워 질수 없듯이.

나는 끝없이 증오한다. 아버지의 젊음과 육체를 마구 짓밟아 단명하게 한 일본군국주의자들...!

×

나의 아버지는 손에 총을 들고 싸운 혁명가도 반일투사도 아닌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했던 한 인간이었다. 그야말로 채송화와 같이 작은 존재였다.

그러나 일제는 태평양의 적도선상 이름 없는 섬까지 끌고 가 군화로 짓밟으면서도 아버지를 말살해 버리지 못하였다....

오늘도 채송화는 나에게 아버지의 한생을 돌이켜 보게 하며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을 순간마다 느끼게 한다.

그와 함께 우리 제도, 우리 민족을 말살할 꿈을 꾸는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를 천백배로 솟구치게 한다.

때문에 나는 채송화를 사랑한다. 나의 아버지의 한생이, 나의 어린 시절이 비껴 있는 작은 꽃을...

채송화... 채송화... 내 마음의 꽃...

대흥단소묘

-한 처녀지원자의 일기장을 보고-

박정애

아침

아침입니다
젖빛안개자락을 조용히 흔들며
청 고운 새들의 노래속에 감자포전을 걷는
해 솟는 대흥단의 눈 부신 아침입니다

저 보십시오
백두의 하늘이 이글이글 타더니
홍단별 한끝까지 채색되는 노을빛
나마저 빨강게 물 들입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내 스물여섯해나 살면서
날마다 맞이한 아침은 많아도
생에 처음 보는 무아경의 절경입니다

내 청춘의 푸른 꿈 안고 달려 온
가없이 넓은 백두대지에
나의 한생도 곱게 물 들어 줄
아, 아름다운 대흥단의 아침입니다

붓나무

내 푸른 꿈 안고 여기 왔을 땐
허리 늘씬하고 매출한 붓나무
멋쟁이 그 모습에
난 저도 모르게 반했답니다

미풍에 가지를 내맡기고
잎새를 흔들 때면
꼭 춤 추는 무용수 같아
막 질투날 지경입니다

허나
바람 세찬 날 보십시오
휘여 들며 몸부림치면서도
꺾이지 않고 벌을 지켜 선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방풍림의 붓나무가
처음 왔을 땐 무용수처럼만 같더니
지금은 대흥단의 역센 총각되어

내 가슴에 뿌리 내린
아, 붓나무 붓나무

감자꽃 핀 날에

다치면 금시 시들어 떨어 질가봐
쓸어 보면 꽃순이 숨어 들가봐
부드러운 꽃잎에 살며시 볼을 대어 보는
내 손으로 처음 피운 하얀 감자꽃

이보다 더 진귀한 꽃 또 있으랴
자기를 피운것이 고마워 고개 갯웃 인사하는
그 향기속에 얼굴 묻으니
글쎄 땅밑에선 감자알 부푸는 소리 들리는듯

땅속의 소리야 들을수 있으랴만
찬서리에 얼세라 애 태운 그 밤이 있어
몰아 치는 비바람 내 몸의 온기로 덥혀 주고 흔
뜨겁게 오가던 그런 정 나에게 있어

꽃이 핀 감자숲이 바람에 설레이니
땅속에서 움쉴움쉴 열매들이 크는 소리
흐뭇이 벌 가득 감자산 그려 보는 눈가에
해빛 넘친 조국이 환히도 웃누나

아기

이깰나무 방풍림 설레는 들길로
유모차에 실려 온 복스런 아기
바라보니 보동보동한 볼에 오목히 핀 보조개
너무도 귀여워 하던 일 멈추고 품에 안았네

젖냄새 상국이 풍기는 앵두볼 하도 고와
꽃잎 같은 입술에 즐겁게 입 맞추니
아기의 웃음소리 내 웃음소리 엇갈려
끓어 진 대지도 떠들썩 따라 웃는데

작업반원들 나를 보며 입을 모아 소곤소곤
저기 봐 애기가 부러운게지
배 고플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렇게 고와서 어쩔줄 모르는걸...

그러면 뭐라나요
무릉도원 새땅에 길이 살 주인들
나도 어머니되어 키우고 싶은 맘
아기 없이야 대지를 가꾸어선 무엇하랴

어머니는 광부였다

-한 공훈광부의 이야기-

백명길

이 세상에 생을 둔 사람치고 자기를 낳아 주고 키워 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사랑과 정으로 키워 주어서가 아니다.

1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지 두달이 지났다.

갈가마귀떼같이 돌아 치던 미국놈비행기가 사라진 푸른 하늘에 몽게몽게 흰 구름이 떠도는 가을날. 나와 어머니는 전선에서 돌아 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3년전 보리이삭이 누렇게 익어 갈 때 전선으로 떠났던 장정들이 가슴에 한가득 훈장을 달고 고향으로 돌아 오군 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포연에 그슬린 군복을 입고 버바다 설레이는 들길로 갓 비질을 한 동구길로 들어 설 때 머리에 흰 수건을 쓴 어머니들과 뜨락 한구석에 수집게 피어 난 봉선화꽃 같은 녀인들이 그네들을 반기여 달려 나왔다.

그날도 옆집 광남이네 아버지가 전선에서 돌아왔다.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 번쩍이는 금빛훈장을 자랑스레 매만지는 광남이, 부엌문가에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서서 눈굽을 짖어 내는 광남이 어머니, 그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병시례 웃는 광남이 아버지... 나는 발뒤꿈치를 높이 들고 기쁘게 울며 웃는 광남이네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나는 마음속으로 그 어딘가에서 나와 어머니를 향해 막 달려 오고 있을듯 한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 보았다.

아, 아버지. 광부가문의 대를 이어 갈 아들이라며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 해주시던 아버지, 전선으로 떠나던 그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머니랑 함께 천렵놀이를 한번 본때있게 해보자고 약속하신 아버지... 아, 아버지, 빨리 오세요. 눈가에 가랑가랑 고여 올랐던 눈물이 두볼을 타고 포르르 굴러 떨어 졌다.

이러기를 몇번, 어머니가 반나마 기울어진 짜리울바자너머로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나에게로 소리없이 다가왔다.

《어머니! 울 아버지 왜 안 오시나?》

어머니는 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저고리고름으로 닦아 주며 품에 꼭 안아 주었다.

《인남아! 래일이면 아버지가 꼭 오실게다. 우리 기다리자. 인남이가 참 용쿠나.》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또 래일, 이제 한밤만 자면 래일이지만 어제도 그제도 어머니는 래일이라는 말로 나를 달래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인남아! 전선에서 돌아 오는 사람이 한두사람이라고 벌써 다 왔겠니? 너도 보지 않았니. 오늘도 옆집 광남이 아버지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 왔니. 래일은 아버지가 꼭 돌아 오실게다. 래일은 쉬는 날이니 어머니랑 함께 역으로 나가보자꾸나. 응, 그러지.》

나는 그제서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질은 안개가 마을을 덮은 다음날, 이른 아침 어머니와 나는 역으로 나갔다. 우중충한 산으로 둘러 막힌 광산마을골안이 온통 우유빛안개속에 잠겨 버린 상쾌한 아침이었다.

정말이지 오늘 아침은 마음도 발걸음도 즐거웠다. 아버지에게 대접하자고 햇곡식으로 지은 흰 쌀밥을 무독하니 담아 놓고 떠나는 길이다.

《엄마! 내 생각에는 아버지가 오늘은 꼭 돌아 오실것 같애. 그렇지?》

나는 보폭이 큰 어머니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느라 뛰다싶이 종종걸음쳤다.

《글쎄? 인남이 어제밤 꿈에 아버지를 본게구나?》

《아니예요. 요즘은 꿈에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한번도 안 보여요.》

그러자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그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 오고 있기때문이야.》

《야, 좋네!》

나는 손벽이라도 칠만큼 기뻐다. 아버지를 마중해 역으로 가는 길이 오늘처럼 즐거워 보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길옆에 무리지어 피어 난 이름 모를 들꽃들을 한아름 꺾어 들고 그것을 머리위에 휘휘 내저으며 저만큼 달려 나갔다가는 다시 어머니한테로 달려 오군 했다. 어머니는 그러는 나를 보며 소리없이 웃음을 짓군 했다.

나는 아버지가 전선으로 떠나던 그날을 그리 보았다. 나의 머리속에는 3년전 무던히도 찌물쿠던 그 여름날이 사진처럼 찍혀 저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한낮이 다 되어 군복을 입고 군사동원부에서 돌아 왔다.

역에 나가 기차를 타고 전선으로 떠나기전에 잠깐 들린것이였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왜서인지 약간 낯 설어 보이긴 했으나 키가 더 커보이고 강대해 보였다.

나는 코등까지 내려 오는 아버지의 군모를 쓰고 좋아라 깡충거리며 방안이 좁다 하게 돌아 갔다. 아직은 전쟁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준엄한 길을 떠나는것인지 다는 알수 없었던 나였다. 그러는 나를 말 없는 웃음을 짓고 바라보던 아버지는 방안을 정겨운 시선으로 둘러 보았다. 《조국보위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나오는 라지오며 반들반들 윤이 도는 장농 하나하나가 해방후 5년 동안 행복하고도 단란했던 우리 가정의 정든 추억이 깃들어 있는것들이였다.

그러던 아버지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 나 문설주 옆 기둥에 박은 대못에 걸려 있는 등잔을 벗겨 들었다. 그것을 쏴어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따뜻한 추억의 빛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는 수건으로 등잔의 반사판을 정히 닦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전에도 아침저녁으로 저렇게 반사판을 알뜰알뜰하게 닦군 했었다.

도중식사를 썬 꾸레미를 들고 부엌에서 들어오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생긋이 웃으며 물었다.

《아이참, 당신두. 당장 떠날 사람이 등잔은 왜 닦으면서 그러세요?》

《오, 이제 미국놈들을 물리치고 돌아 와서 또 다시 광석을 본때 있게 캐내야지. 여보, 이걸 잘 전사해 두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내미는 등잔을 정히 받아 들었다. 나는 광산사람들 누구나가 들고 다니는 흔하디흔한 등잔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것인가를 그때까지 다는 알수 없었다.

아버지는 배낭을 메고 일어 서서 방안을 다시금 둘러 보더니 라지오에서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그래 목숨으로 지켜야지.》

혼자 말하듯 한 아버지는 《자, 그럼 떠나야지.》 하며 나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인남아, 잘 있거라. 여보, 당신도 잘 있소.》

마당에 나선 아버지는 다시한번 정겨운 시선으

로 행복의 발자취가 무수히 찍혀 진 트랙을 둘러 보았다. 그 트랙의 작은 돌 하나도 원쑤에게 빼앗길수 없는 귀중한것이기에 아버지는 전선으로 떠났다....

우리가 역에 다달았을 때에는 벌써 술한 사람들이 기차를 마중 나와 있었다.

질은 안개를 밀어 내며 역 앞마당에 키높이 자란 황철나무가지사이로 마중 나온 사람들의 머리 위에 따스한 해살이 퍼질 때 남쪽으로 길게 뻗은 두줄기 철길위로 육중한 기관차가 증기를 뿜으며 달려 왔다. 쿵쿵 뛰는 심장을 다잡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마냥 설레었다. 군문화회관 취주악대가 불어 대는 나팔소리가 마중 나온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달구어 주며 역구내를 들었 다 놓았다.

칙- 칙- 흰 타래숨을 뿜아 내듯 연송 뿜어 대는 증기소리, 서로 찾고 부르는 소리, 나는 혼잡된 사람들속에 휘말려 어머니의 손목을 놓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나대로 제마끔 아버지를 찾았다.

내 키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발꿈치를 높이고 쿵쿵 뛰어도 승강대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남달리 키가 커서 인차 알아 볼수 있을텐데. 그러나... 그러나...

그래서 나는 가려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유물인 폭격에 불 타고 찌그러져 형체만 남은 화차우에 기어 올라 갔다. 거기서는 역구내가 환히 내려다 보였다.

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기서 저기로 사방 눈길을 보내며 아버지를 찾았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 마중 나온 사람, 서로 찾고 부르며 뜨겁게 상봉의 기쁨을 나눈다.

초조한 눈빛으로 여기저기 눈을 돌렸으나 어디서나 쉽게 알아 볼수 있는 유별나게 키가 큰 아버지는 종시 보이지 않았다.

《꽤-》

증기기관차는 길게 기적소리를 울리며 증기를 뿜어 댔다.

나는 저쪽 흙길에서 맥없이 걸어 오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머리를 떨구었다.

(오늘도 아버지는 돌아 오지 않는구나....)

나는 화차우에서 뛰어 내려 어머니에게로 걸어 갔다.

기차는 떠나가고 뜨거운 상봉의 기쁨을 달구며 서로 어깨 겹고 손 잡고 웃고 떠들며 사람들은 개찰구로 나간다. 긴 흠바닥에 나와 어머니만이 서리 맞은 배추잎마냥 어깨가 처져 서 있다.

(아, 아버지는 왜 돌아 오지 않으실까. 다른 아버지들은 다 돌아 오는데...)

나는 막 울고 싶은 심정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목도 잡지 않고 저만치 떨어

저 호주머니에 손을 꼭 찌르고 역 앞마당으로 터벌터벌 나왔다.

나는 역앞 황철나무아래서 서성거리는 제대병사를 보는 순간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 갔다. 남달리 키가 큰 제대병사가 나에게로 얼굴을 돌렸을 때 나는 무춤 그 자리에 굳어 졌다. 아니었다. 코밑이 반반한 젊은 제대병사가 나를 바라보는것이 아닌가.

나는 그만에야 참고 참아 오던 눈물을 쏟았다.

《응, 응. 아버지!》

젊은 병사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아버지를 기다리느냐?》

《응-》

젊은 병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눈물을 거두거라. 아버지는 꼭 돌아 와 너를 안아 줄게다. 오늘은 이 삼촌이 안아 줄까?》

젊은 병사는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메고 나를 공중 안아 주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대아저씨가 날 안아 주어서인지 쓸쓸하던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역 개찰구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어려 반짝였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선광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전쟁때도 지금도 선광장에서 마광기를 돌리고 있었다.

《인남아! 어머니 마광기를 돌려야 한다. 갱들이 복귀되면서 광석이 더 많이 들어 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마광기를 돌리겠니. 아버지 너 혼자서라도 마중할수 있지 않니. 그러니 학교공부가 끝나면 네가 역에 나가보렴. 아버지가 돌아 오면 네가 썩하니 달려 와 어머니에게 알려 주렴.》

어머니는 갈라 지는 길목에서 나를 달래었다.

나는 아침마다 백양나무가 높다랗게 자란 갈림길에서 어머니와 헤어졌다. 어머니는 선광장으로 나는 학교로... 길은 달라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다.

기차는 몇번이나 나에게 허무감만을 남기고 떠나가버렸다.

역 앞마당의 키 높은 황철나무가지에서 한잎두 잎 락엽이 떨어 지던 날, 그날도 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스적스적 개찰구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너 인남이 아니냐?》

뒤돌아 보니 당위원장아저씨였다. 도에 출장을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나는 심드렁히 꾸벅 머리 숙여 인사했다.

《그래 아버지를 마중 나왔느냐?》

《...》

당위원장아저씨와 나는 말없이 개찰구로 나왔다.

《인남아, 맥을 놓지 말고 어깨를 꼭 껴고 걸이라. 아버지는 이제 꼭 돌아 올게다.》

머칠전 나를 안아 주던 제대병사도 아버지는 꼭 돌아 온다고 그랬는데...

당위원장아저씨는 나와 함께 걸으며 이제 학교도 짓고 운동장을 번듯이 닦아 주겠다고 힘 주어 말했다.

...역에서 당위원장아저씨를 만났던 며칠후 나는 그날저녁도 돌아 오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며 맥 풀린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집에서 너무도 큰 슬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줄도 모르고...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당위원장아저씨도 옆집 광남이 아버지도 건너집 분너 어머니도...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겁고도 침중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분너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웬 일인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얼굴을 돌리고 어깨를 들먹이는것이였다. 손가락짊새로 간간이 새여 나오는 분너 어머니의 흐느낌소리...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 졌다. 무슨 일일까?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맥 풀린 자세로 토방돌우에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자그마한 종이 한장이 들려 있었다...

더욱더 높아 지는 분너 어머니의 흐느낌소리, 파르르 떨리는 어머니의 입술, 사람들의 무거운 숨소리... 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순간 나의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툭툭 떨어 저 내리는것만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비칠했다. 아!...

당위원장아저씨가 왜선지 자기 목소리 같지 않은 석심한 목소리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순군동문 전승의 날을 이틀 앞두고... 휴-》

당위원장아저씨는 말끝을 채 잊지 못하고 성난 황소처럼 씩씩 숨을 내쉬고는 머리를 돌렸다. 언제나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기를 감추지 못하던 당위원장아저씨의 눈가에 눈물이 어려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아니, 그건 거짓말이예요. 거짓말! 전쟁이 끝나기 며칠전에도 몸성히 잘 싸운다는 아버지의 편지가 오지 않았던가... 나는 이렇게 소리치려 했으나 목이 꼭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만 스르르 옆으로 쓰러졌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 동공 풀린 두눈...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던 종이장이 너울거리며 마당에 떨어져 내렸다. 아버지를 기다려 지금껏 곳곳이 살아오던 어머니를 이 손바닥만큼한 작은 전사통지서가 단번에 쓰러뜨리고 만것이다.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를 마구 흔들어대며 울었다.

《엄마야, 정신을 차려. 엄마야 응, 응.》

나는 줄지에 어머니마저 잃을것만 같아 당위원장아저씨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굴렀다.

《당위원장아저씨! 우리 엄마를 살려 주세요!》

《인남아!》

나를 와락 품에 그리안은 당위원장아저씨는 커다란 두눈을 습벅이며 흐릿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당위원장아저씨의 두볼로는 굵다란 눈물방울이 줄기 지어 흘러 내리고 있었다.

토방우에 누운 어머니는 동네어머니들이 한동안 팔다리를 주물러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의 눈에서 터진 썸통마냥 눈물이 짹짹 흘러 내렸다. 허나 누구도 어머니에게 눈물을 거두라고 말하지 않았다.

《올라구, 이 사람아. 아낙네 눈물은 하늘이 내린 이슬이랬어.그 갈아 먹어도 씨원치 않을 미국놈새끼들때문에... 몸쓸놈의 새끼들, 꼭 버락이나 맞아라.》

분너 어머니는 하늘에 대고 곡성에 가까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날이 어둑해서 사람들은 돌아 갔다. 당위원장아저씨도 분너 어머니에게 뒤일을 부탁하고 급한 광산일때문에 돌아 갔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방안은 별스레 어둡고 쓸쓸했다. 어머니는 아래목에 맥없이 누워 있었고 나는 분너 어머니의 무릎에 쏙그리고 흑흑 느끼며 앉아 있었다.

분너 어머니는 장농우에서 베개를 내려 내 머리에 베여 주고 부엌으로 내려 갔다.

한동안 달그닥소리가 들리더니 분너 어머니가 밥상을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 왔다.

《술안에 밥이 있더우만. 어서 일어 나 한술 프라구. 애 인남아, 너도 일어 나 밥을 먹어라.》

그리고 보면 나와 어머니는 꼬박 두끼를 굶었던것이다. 구수한 밥냄새가 매캐한 등잔불냄새를 밀어 내며 후각을 자극했다.

《인남이 어머니, 눈물은 내리고 밥술은 오른다는데... 어서 일어 나 한술 프라구. 어찌겠나. 이젠 마음을 크게 먹고 살아야지.》

분너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 난 어머니는 흠어 진 머리칼을 정돈하고 무독히 담겨 진 밥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기다려, 아버지가 돌아 오면 대접하겠다고 아침마다 어머니가 정성껏 떠놓곤 하던 그 밥그릇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밥상에 마주 앉아서도 한술도 뜨지 못했다. 분너 어머니도 더 권하지 않았다.

2

심장이 멎고 가슴이 찢어 지는듯 한 그 소식을 받은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나는 부엌쪽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벌써 한식경제나 어머니는 그렇게 그린듯이 앉아 맞은편 구석에 놓여있는 앉은뱅이책상우에서 가물거리는 등불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푸릿한 달빛이 흘러 드는 피창너머에서 찌르르

찌르르 폴벌레소리가 들려 왔다.

오늘 따라 별스레 구슬프고 처량하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워 졌다.

아, 아버지... 이 밤 아버지가 돌아 왔으면 얼마나 화기에 넘치고 그림던 정과 회포를 나누며 단란하였을 우리 집인가. 이제라도 문득 방문이 열리며 싸리안전모를 제껴 쓰고 한쪽 어깨에 간데라를 건 아버지가 발과가스냄새를 풍기며 성큼 들어 설것만 같았다. 《우리 인남이 공부 잘했나. 오늘은 몇점 맞았지?》혹은 《어, 속이 쿵쿵한걸. 어보, 거 한잔 없소? 이달 계획도 넘쳐 끝냈는데 오늘 같은 날에야...》하시며 환한 웃음을 담고 들어 설것만 같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영... 나는 이따금 긴 숨을 내쉬며 뒤치락거렸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축축히 젖은 내 눈굽이며 볼을 쓰다듬어 닦아 주곤 했다.

벌써 련 사흘째, 어머니와 나는 이렇게 서로 말없이 눈물속에 날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의 슬픔을 덧곳허 놓을가봐서인지...

아까 저녁녘에 당위원장아저씨가 들렀었다. 아저씨는 방에 들어 와 앉아서도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애꿎은 담배만 피워 댔다. 아저씨의 굵다란 손가락마디끝에서 빨갛게 타들어 가는 담배불, 그걸 보는 내 마음도 빠직빠직 타드는것만 같았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던 아저씨는 담배불을 비벼 끄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옥녀동무, 이젠 기운을 내서 일어 나오. 옥녀동무가 그러면 좋아 할건 미국놈들밖에 없소.》

순구동무를 생각하구 또 인남이를 생각해서라도 강심을 먹구 일어 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나서 훌쩍 일어 나 나갔다. 한참후 분너 어머니가 찾아 왔다. 부엌에 들어 가 불을 살리고 밥상을 차려 들여 왔다. 하지만 나도 어머니도 술을 들러 하지 않았다. 분너 어머니는 몇번 권해 보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돌아 갔다.

...이 며칠동안 어머니는 몰라 보게 수척해 졌다. 보기 좋게 동그스름하던 얼굴은 창백하고 홀쭉해 졌으며 윤기 흐르던 입술에는 까실까실한 보풀이 일었다. 나는 어머니가 불쌍해 났다. 이제 는 나에게 어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서러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막 울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울면 어머니가 더 슬퍼 할것만 같아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울음을 참았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 썼다. 하지만... 뒤척거리던 나는 어느결엔가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나는 꿈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저 멀리서 《인남아!》하고 소리쳐 부르며 달려 오는 아버지,

나도 마주 부르며 달려 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꿈에 자주 보던 군복 입은 모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등잔을 손에 든 모습이였다. 그 모습이 왜선지 낯설게 느껴져 나는 주춤 멈춰 섰다. 《인남아!》 웃으며 다가서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부르려 했으나 목이 짹 메여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려 해도 발이 떨어 지지 않았다. 《인남아, 왜 그러느냐?!》 또 한발자국 다가서는 아버지... 나는 제풀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얼마나 잤을까... 피창으로 환히 내다보이던 둥근 달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 졌는지 보이지 않고 지쳐 잠들었는지 풀벌레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고요한 정적만이 깃들었을뿐...

그런데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어머니가 없었다. 내 얼굴을 쓰다듬어 주던 부드러운 손길도 내 몸을 덮혀 주던 따스한 몸온기도 느껴 지지 않았다. 웅송그린 내 몸에 이불이 덮여 있을뿐이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비비며 방안을 둘러 보았다. 어머니는 방구석 앉은뱅이책상앞에 조용히 마주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가, 어머니가 또 우시는걸까 아니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 나 소리를 죽이고 발뽕발뽕 어머니등뒤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울고 있지 않았다. 책상우에는 전쟁이 끝나지 얼마전에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편지가 놓여 있었다. 나도 어머니도 벌써 몇번씩이나 읽어 보아 이제는 구절구절 다 외우다 싶이 한 아버지의 마지막편지...

여보, 이제 전승의 축포가 오르고 그리운 광산마을, 정든 우리 집으로 돌아 갈 그날도 멀지 않았소. 원쑤놈들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악착스레 덤벼 들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확신하며 용감히 싸우고 있소.

그립소. 모든것이 정말 그립소. 내가 다루던 손때 묻은 착암기며 정든 막장길, 또 구수한 발파 연기냄새며 발파소리를 들으며 피워 물던 담배맛,

행복이 넘치던 우리 집이며 귀여운 인남이의 모습... 전쟁전 그때에는 평범하고 범상하게만 여겼던 이 모든것들이 왜 이다지도 그리운지.

정든 이 모든게 원쑤 미제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으리라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일고 이가 갈리오.

김일성 장군님께서 찾아 주시고 나의 소중한 꿈과 추억이 깃든 유정환 광산마을, 이제 승리하고 돌아 가면 그 모든것들을 미국놈 보란듯이 번듯하게 다시 일떠세우고 광석을 광광 캐내야지.

...

구절구절마다에 광산에 대한 정과 사랑이 넘쳐나고 보람차고 행복했던 생활에 대한 애뜻한 추억이 맥맥히 흐르는 아버지의 편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편지를 옆에 놓고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무엇을 쓰시는걸까. 하얀 종이우에 힘을 주어 톱박톱박 박아 써나가는 어머니의 손끝을 여겨보던 나는 흠칫 놀라 숨을 멈추었다.

아,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젠 영영 다신 돌아 오지 못할 아버지에게 무슨 영문에 편지를 쓰는것일가. 써서는 어디로 보내며 보낸다 한들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 본단 말인가. 어머니의 마음속 생각을 다 헤아리기에는 아직은 먹은 나이가 너무도 어린 나였다.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속으로 읽어 나갔다.

인남이 아버지 받아 보세요.

미제침략자들을 때려 부시고 조국을 지켜 낸 당신에게 인남이의 뒤통까지 합쳐 뜨거운 인사를 보내요.

여보, 당신이 3년동안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는 광산마을은 지금 승리의 기쁨으로 차넘치고 복구건설의 열기로 들끓고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매일이다싶이 어제날의 병사들이 광산으로 돌아 오고 있어요. 그들은 전쟁의 피로도 풀 사이 없이 군복차림 그대로 광산복구에 달라붙고 있어요. 인남이 아버지가 일하시던 석우갱은 벌써 거의나 복구되어 이제 얼마 안 있어 착암기의 동음이 울리고 광석이 쏟아져 나 올거예요.

인남이 아버지.

며칠전 당위원장동지는 우리들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낸 이 땅인가, 얼마나 많은 피와 목숨을 이 땅에 묻었는가, 너무도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켜 낸 조국이기에 전선에서 돌아 오지 못한 사람들의 뒤통까지 합쳐 몇십, 몇백배의 힘을 내여 광산을 하루빨리 복구하자고, 그래서 조국의 존엄을 더 높이 떨치고 우리 행복의 터전을 더 기쁘게 꾸리자고, 바로 그 길이 돌아 오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 소원을 풀어주는 길이고 그들을 잊지 않는 길이라고 힘 있게 호소했어요.

인남이 아버지, 전 당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믿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잡았던 착암기도 해방된 조국의 광부된 궁지를 가슴 뿌듯이 안고 걸던 막장길도 그리고 저와 인남이도 영원히 당신을 기다릴거예요.

여보, 지금껏 나약하게 눈물로 날을 보낸 절 용서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인남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착암기를 잡을 결심이에요. 아마 놀라실거예요. 그러나 전 당신이 저의 이 결심을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리라 믿어요.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걸 알아요. 또 제가 남정들만큼 해낼수 있겠는지 아직은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 싶어요.

...

나는 왜선지 가슴이 찢르르해 났다. 무어라 형

언기 어려운 감정이 나의 작은 가슴속으로 물 밑
듯 북받쳐 올랐다.

나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엄마!》

어머니의 등실한 어깨가 흠칫 떨렸다. 어머니
는 천천히 돌아 앉아 그윽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
았다. 나는 《엄마!》 하고 다시 부르며 어머니곁
에 스르르 앉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꼭 껴
안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는 어머니의
눈가는 붉게 상혈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한쪽곁에 꼭 안고 앉은뱅이책상
위에 놓여 있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재산이라
고 할수 있는 라디오의 스위치를 넣었다.

전승의 기쁨을 온 세상에 격조높이 자랑하는
너방송원의 희열에 찬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원
쭈격멸에서 용맹을 떨친 어제날의 병사들이 재더
미로 변한 이 땅을 다시 일떠세우려 공장과 농촌,
어촌으로, 정든 고향으로 떠난다고, 전국의 도처
에 파괴되었던 공장과 제철소, 탄광과 광산, 학교
와 인민병원들이 다시 일떠선다고 긍지높이 웨친
다.

뒤이어 울리는 힘찬 노래소리.

터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
원쭈들이 불 사른 내 고향 폐허에
...

아,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 주는 노래소리.
전쟁전 첫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탄
삼금으로 아버지가 사오신 라디오였다.
...그날 아버지는 난생처음 보는 라디오를 두고
희한해 하는 어머니와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 라디오로는 변모되어 가는 온 나라의 소식
을 다 들을수 있지.》

라디오에서는 《승리의 5월》의 힘찬 선율이
우렁차게 울려 나오고 있었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

《참 좋거든! 여보, 얼마나 좋소.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그 누구도 뺏지 못할 우리 로동계급의
노래지.》

아버지는 내 얼굴만큼이나 큰 주먹을 휘둘러
대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

동무들이 이 기세로 굳게 뭉치며
인민경제계획을 승리로 맺자

아버지는 것처럼 노래를 사랑했고 그것을 단순

한 노래로가 아니라 조국의 부름처럼 호소처럼
여기군 했다.

아버지가 돌아 와 저 노래소리를 들었다면 아
마도 이렇게 말했을것이다.

《그래, 미국놈들을 때려 부셨으니 또 본때 있
게 일을 해야지.》 하고는 싱긋 웃으며 화약냄새
풍기는 군복의 혁머를 조이고 갱으로 들어 갔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넋과 숨결이 깃든 라지오
를 쏴어 만지며 이윽도록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눈썹은 심장파와 맞대인 소리통으로 노래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장농에서 아버지의 등잔과 작업복
을 꺼냈다. 아버지의 부락대로 준엄한 전쟁의 나
날에도 소중히 간수해 온 등잔이었다. 밥사발만
한 등그런 등잔의 반사판이며 돌가루냄새, 발
파가스냄새가 풍기는듯 한 작업복을 소중히 쏴어
보는 어머니의 손은 가법게 떨리었다.

말없이 등잔을 쏴어 보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나에게는 전쟁전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하루일을 끝내고 돌아 오면 꼭 간데
라를 닦아 놓고서야 자리에 들곤 했다.

어느 날 나는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반사판을
닦고 또 닦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그건 무엇때문에 계속 닦나요?》

《불이 더 밝으라고 닦지.》

《불이 더 밝으라고요?》

《인남아, 아버지가 일하는 갱은 몹시 어둡단다.
그래서 불이 밝아야 더 멀리 앞을 내다볼수 있
고 광석을 더많이 캐낼수 있단다.》

《?...》

《이제 우리 인남이가 아버지만큼 커서 이 간데
라를 들고 갱에 들어 갈 때쯤 되면 아버지가 하
는 말을 알수 있을게다.》

아버지는 장알이 박힌 껄껄한 손으로 내 불을
다독여 주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등잔을 정히 손질하고 나서 불을
달았다. 순간 방안이 갑절이나 더 환해 졌다. 큰
돛바늘만 한 새하얀 물줄기를 쇠 쇠 내뿜는 간데
라의 불빛에 엄청나게 커진 우리 두사람의 그림
자가 벽에 비쳐 얼른거렸다.

다음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 광산으로 나갔다.

광산은 불도가니마냥 뚫어 번지고 있었다. 전
선에서 돌아 온 어제날 병사들이 착암기와 정대
를 억세게 틀어 잡고 광석을 캐내고 있었다. 침
수되었던 갱들이 복구되고 소개되었던 설비들이
전쟁전 자기 위치에 발통을 든든히 박고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찾아 간 곳은 광산당위원회였다.

나를 문밖에 세워 두고 들어 간 어머니는 이윽
도록 나올줄을 몰랐다.

기다리기에 지루해 난 나는 발뼀발뼀 창문가로

다가갔다.

《…당위원장동지! 당위원장동지야 제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게 울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

《전 꼭 착암기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이젠 돌아 오지 못한 우리 인남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어 지지 못하고 끊어졌다.

《옥녀동무, 녀성의 몸으로 어떻게 막장에서 일한다고 그러오? 더우기 동무야… 그러지 말고 압축기운전공으로 일하는게 어떻겠소?》

사정하는듯 한 당위원장아저씨의 목소리.

《당위원장동지! 인남이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일을… 제 꼭 해내겠습니다. 제 다신 눈물을 흘리지 않겠으니… 절 막장에 들어 보내주십시오. 예, 당위원장동지!》

어머니는 울먹이는 어조로 절절히 말했다.

나의 가슴은 활랑거렸다. 어떻게 될까? 당위원장아저씨가 승인해 줄까?

나는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부디 위험한 갯안에 들어 갈 결심을 내렸으며 어머니가 절으려고 하는 막장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하는것을 다는 모르고 있었다. 다만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당위원장아저씨가 들어 주었으면 하는 단순하고도 천진한 생각이었다.…

한동안이 지나 어머니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저녁에 어머니는 등잔불을 켜 놓고 아버지의 작업복을 줄였다.

나는 구공표를 외우다 말고 한뼘두뼘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나와 눈길을 마주한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나직이 물었다.

《애 인남아! 이 어머니가 꽤 광석을 캐낼수 있을까?》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본다. 기대에 찬 어머니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지 나는 속으로 갑자르고 있었다.

광석을 캐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갯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도 들어 가보지 못한 나였다. 문득 둘둘이같이 굳은 장알이 박힌 아버지의 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광석을 캐는 사람의 손은 아버지손 같아야 할것이다.

나는 바늘이 쥐여진 어머니의 희고 작은 손을 만져 보며 말했다.

《어머닌 꼭 아버지의 절반만큼은 광석을 캐낼수 있을거예요.》

《아버지 절반밖에?! 그건 어째서?》

《응… 그거야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절반밖에 안되니까 그러지요 뭐.》

나는 머루알처럼 까만 두눈을 반짝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생각 깊은 눈길로 하얀 불길을 내뿜는 등잔을 바라보는것이었다.

…나는 첫 출근길에 오른 어머니를 바래워 함께 걸었다.

《인남아! 이젠 됐다. 어서 학교에 가거라.》

어머니는 나의 바래움을 받으며 아버지의 발자취가 찍혀진 길로 힘 있게 발걸음을 내짚었다.

어머니가 광부가 되어 일을 한지 얼마 안되어 우리 학교는 이사를 했다. 우리의 광부아저씨들은 광산을 복구하면서도 모두가 떨쳐나 폭격에 불타버린 교사자리에 번듯한 학교를 다시 세워주었다.

첫 개교의 날 선생님은 말했다.

《학생동무들!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학생동무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많은것을 잃었습니다. 원주놈들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오빠들을 앗아 갔고 학교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들어요. 복구건설의 힘찬 마치소리를 말이에요.》

선생님은 교실창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우리들은 창턱에 울망줄망 서로 키 돌구어 밖을 내다보았다.

서늘러운 가을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발파소리, 전쟁의 피해를 가지고 일떠서는 우리 광산의 새모습을 가슴 흐뭇하게 바라보던 우리는 누구의 선창에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오는 만세를 두손높이 들어 불렀다.

《학생동무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십니다. 자! 우리모두 노래를 부릅시다.》

선생님은 발풍금의 건반을 힘 있게 눌렀다.

우리는 풍금을 타는 선생님의 주위에 빙 둘러서서 교실이 떠나갈듯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 있게 불렀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소리는 땅속깊이에서 광석을 캐내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속으로 스며 들어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었다.

3

어머니가 갯으로 들어 가면서부터 나에게서는 할일이 많아졌다. 어머니의 손길에 미처 가닿지 못하는 많은 집안일들이 나의 작은 어깨우에 실리게 되었던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해가 석우산마루에 걸릴 때쯤이면 어머니가 대준대로 쌀을 씻어 안치고 손등이 잠길만큼 물을 붓는다. 가마에서 김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아궁앞에 쪼그리고 앉아 너울거리는 불길을 들여다 보느라면 별스레 마음이 울적해지고 별생각이 다 든다.

(어머니가 이젠 일을 끝내고 갯밖에 나섰을까?)

지금쯤 박달재를 넘을지 몰라. 혹시 힘들어 도중에 다리쉬을 하지 않을까?...)

어느덧 가마뚜껑짚새로 흰 김이 뿜어 저 나오고 구수한 밥냄새가 풍긴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 오지 않았다. 이전 같으면 돌아 와 밥상에 단란히 마주 앉았으련만...

어둠이 느물느물 우리 집 마당으로 기어 들 때면 나는 빈 방에 혼자 있기가 싫어 밖으로 나왔다. 적적한 내 심정을 알아 주는듯 검정강아지가 꼬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발목에 감겨 돌아 갔다.

토방돌우에 홀로 앉아 어머니가 돌아 올 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내 마음은 외롭고 쓸쓸했다. 어머니는 언제면 오실까? 다른 집 아이들은 이시간이면 아버지, 어머니의 목에 감겨 돌며 좋아 웃고 떠드는데... 나는 왜 어머니도 없는 빈 집을 지켜야 하는가? 어머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을까?... 어린 마음에도 서러움이 그득히 차오르고 눈가에는 눈물마저 고여 올랐다.

분너 어머니가 찾아 왔다. 햇콩으로 순두부를 맛있다며 한그릇 들고 왔다.

촉촉히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올 때까지 자기 집에 가 있자고 손목을 잡아 끌었으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고 싶지 않았다. 거기가면 서러움이 더할것만 같았다.

분너 어머니가 몇번을 달래고 열리다 못해 허를 끝끝 차며 돌아 간지도 이십해서야 어머니가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는 등잔을 닦기 시작했다. 아버지처럼 아무리 늦어서도 꼭 등잔을 닦아 놓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나보다 그 등잔에 더 애착을 느끼고 있는듯 싶었다.

《어머니!》

《응, 왜 그러니?》 어머니는 무심히 대답하며 계속 손을 놀렸다.

《어머닌 꼭 갱에 들어 가야만 하나?》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냐?》

《분너 어머니랑 광남이 어머니랑 다른 어머니들은 다 집에 있는데 왜 어머니만 갱에 들어 가야 하나? 집에두 늦게야 들어 오구. 난 저녁마다 빈집에 혼자 있기가 막 싫어.》

어머니의 눈빛이 흐려 들고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인남아, 어머닌 정말 바쁘단다. 광산은 아직 복구를 다 끝내지 못해서 할일이 많단다. 그리구 또...》

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일찍 들어 올게. 그러니 혼자 있기 싫으면 어머니가 올 때까지 밖에

나가 놀러무나. 옆집 분너랑 광남이랑...》

그러나 어머니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일찍기 돌아 오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가 내게서 점점 멀어 지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날도 등잔을 들고 부엌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앞을 막아 섰다.

무슨 일이냐는듯 눈이 커지는 어머니.

나는 울먹울먹해서 말했다.

《어머니, 이젠 막장에 들어 가지 말아요. 난 싫어요. 저녁마다 빈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섭구 또, 또...》

목이 꺾 메여 올라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어깨를 잡았다.

《인남아, 너 왜 그러니, 응?》

《남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은 전사자가죽이기때문에 어머니가 쉬운 일을 해도 누가 말 안한댔어요. 씨.》

어머니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억이 막힌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녀석아! 넌 이 어머니심정을 다는 몰라. 우리 집이 바로 전사자가죽이기때문에 어머닌 막장으로 들어 가야 한다. 그래 아버지가 우리를 호강시키자고 목숨 바쳐 싸운줄 아니, 응?!》

어머니는 안타까운듯 내 어깨를 잡아 흔들며 격해서 말했다. 그러나 한껏 토라진 내 귀에 어머니의 말이 들어 올리 만무였다.

《몰라, 몰라. 난 싫어. 씨.》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웨치듯 말했다. 그 서슬에 등잔이 떨어 저 쟁가당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아니?!...》

어머니는 와플 놀라며 저쯤 굴러 간 등잔을 황황히 집어 들고 이리저리 살펴 보았다. 그바람에 서너걸음 뒤로 밀려 난 나는 뿌루통해서 그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엄마한테는 나보다 저 등잔이, 광산일이 더 중하단 말인가...

분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솟아 올랐다. 나는 그 만에야 울음을 터치고 말았다.

《씨, 엄마 미워.》

나는 썩하니 밖으로 뛰어 나갔다.

《아니, 애 인남아!...》

어머니가 소리쳐 불렀으나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냥 뛰어 갔다. 얼마쯤 정신없이 달려가던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을가 하는 생각에 주춤 멈춰 서서 뒤를 돌아 보았다.

어머니는 맥 풀린 자세로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나에게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혀 있을 눈물방울이 눈앞에 보이는듯 하였다.

그렇게 한동안 서 있던 어머니는 이윽고 옷자락으로 눈굽을 닦더니 무겁게 발걸음을 뒀다.

갱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나의 마음속에서는 까닭 모를 분한 생각과 서러운 감정이 왈각 솟구쳐 올랐다. 아, 어머니! 어머니는 어쩌면 그리도 내 마음을 몰라 주실까...

그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저 발길 나가는데로 걸으며 여기저기를 돌아 다녔다.

내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석우천가였다.

여름에도 이가 시릴만큼 차고 시원한 맑은 물이 돌돌 흐르는 시내가, 여기에 서니 또다시 아버지생각이 불쑥 갈마들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일기 전해 여름, 공화국창건 1돐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남 먼저 끝낸 아버지네 갯에서는 여기 석우천가에 천렵놀이를 조직했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즐거웠던가. 아버지들은 고기를 잡고 어머니들은 어죽을 쑤고... 나랑 사내애들은 방천가 푸른 잔디밭에서 엽치락뒤치락 덩굴고 소녀애들은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들꽃들을 꺾고...

아버지는 한잔 술에 얼굴해 지자 이렇게 말했다.

《참 좋구려. 여보, 바로 이게 사는 보람이 아니겠소. 마음껏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생활을 꾸려가며 행복을 즐기는...

인남아, 태년에도 여기 또 나오자꾸나. 그땐 인남이하구 어머니하구 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말이다. 어때, 좋지?!》

《좋아요.》 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웨쳤다.

하하하, 호호호... 우리 가정의 행복과 밝은 미래가 담긴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가 저 멀리로랑랑히 울려 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킬수가 없었다. 미국놈들때문에. 아버지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 그 약속을 지키자고 했건만...

거부기잔등처럼 넘적한 돌우에 앉아 행복했던 그 시절을 그려 보는 나의 눈굽에는 절로 눈물이 고여 올랐다.

나는 내가를 따라 올라 갔다. 이 석우천을 따라 가느라면 아버지가 일했고 지금은 어머니가 일하는 석우갯에 이르게 된다. 나는 내가 왜 그리로 올라 가는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기었다.

와르르- 돌 굴러 내리는 소리에 와뜰 놀라 나는 그제서야 내가 어느새 석우갯 버럭무지앞에까지 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무심중 버럭산을 올라 갯입구로 다가갔다.

내 허리만큼씩 굽은 소나무로 동발을 들인 시꺼먼 갯안을 들여다 보던 나는 한걸음 한걸음 갯으로 들어 갔다. 안으로 들어 갈수록 점점 한치앞도 분간키 어려울만큼 캄캄해 졌다.

(야, 정말 어둡구나.)

정말 등잔이 없이는 한걸음도 내짚기 어려웠다.

그러던 나는 흠칫 놀랐다. 차거운 물방울이 내 머리우에 떨어 졌던것이다. 올려다 보니 뻘뻘죽죽한 돌짍으로 물방울이 스며 나와 툭툭떨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겁이 더러 나 몸을 돌려 밖으로 뛰어 나왔다. 밖으로 나온 나는 한동안 갯안을 들여다 보았다. 멀리 안쪽에서 불빛 하나가 반디불마냥 아물거렸다. 그 불빛은 점점 커지며 다가오는것이 었다. 드르릉 드르릉 갯안을 울리며 광차가 굴러 나오고 있었다. 흑시... 나는 갯입구 동발목뒤에 몸을 숨겼다.

드디어 버럭을 가득 실은 광차가 밖으로 나왔다. 광차를 밀고 나온것은 어머니와 당위원장아저씨였다. 힘겹게 광차를 밀어 가는 두사람의 작업복은 돌가루가 하얗게 묻은데다 어깨며 잔등이 온통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의 말소리가 바람결에 들려 왔다. 광차를 미느라 숨이 차서인지 어머니의 말소리는 도간도간 끊어 졌다. 《이럴 땐 정말이지... 손맥이 풀립니다. ... 우리 인남이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나 그 애를... 전사한 아버지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워 내세워야겠는데... 내가 일만 일이라고... 하다나니 그만...》

당위원장아저씨가 끄 하고 힘을 주어 광차를 밀며 말했다.

《우리 인남이를 잘 키우지요. ...이제 인남이도 어머니가 어째서 부디... 광부가 되겠는지 그 마음을... 리해해 줄 때가 올거요. ...그때 가서는 지금 일을 옛말처럼 추억하게 될거구...》

《정말 그렇게 될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무렴, 어린하겠소. ...우리 인남이가 어떤 애라구... 대 심은데 대 나구... 싸리 심은데 싸리 난다구 했는데... 제 부모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인남이라구 달리 될수야 없지... 이제 두구 보우. 우리 인남이가... 어엿한 광부로 자라나는 걸...》

가슴속에서 몽쿨한것이 왈각 치밀어 올랐다. 정말이지 난... 난... 무엇이랴 웨치고 싶었으나 목이 딱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한테로 달려 가고 싶었으나 발이 떨어 지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이 두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버럭을 쏘고 후유- 긴 숨을 내쉬며 돌아 서던 어머니와 당위원장아저씨는 나를 보고 무춤 굳어 졌다.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당위원장아저씨가 빙그레 웃음을 짓더니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나에게로 다가와 커다란 손으로 내 어깨를 툭 쳤다.

《이 녀석! 마침 잘 만났다. 어머니속만 태우구 학교두 뚜꺼먹구 돌아 가는 네 녀석을 혼살 좀 내줘야겠다. 가자!》

당위원장아저씨는 일부러 엄엄한 목소리로 말하며 슬그머니 내 등을 어머니에게로 밀어 주었다.

목에 건 수건으로 땀범벅이 되고 붉게 상기된 얼굴을 문지르며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 그 그윽한 눈길에는 따스하고 정다운 빛이 가득 차넘치고 있었다.

《엄마!》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며 달려가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 내가... 내가 잘못...》

《인남아!》

어머니는 나를 정답게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는 돌가루가 묻은 손으로 눈물 흐르는 내 볼을 살뜰히 닦아 주었다.

그러는 우리를 바라보는 당위원장아저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어려 있었다.

4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 오르고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가 승리의 감격과 희열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서로 열싸 안고 돌아 가던 그때로부터 근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년, 그닥 길다고는 볼수 없는 그 기간에 우리 조국은 전쟁의 피해를 털어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전후복구건설에 펼쳐 나선 우리 인민의 드높은 열정과 기백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우리 집 라디오에서는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일어 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된 목소리가 날마다 울려 나왔다.

우리 광산마을도 많은것이 달라 졌다. 모든 갱들이 복구되어 광석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선광장도 번듯하니 새로 일떠섰다. 많은 사람들이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어머니도 이제는 어엿한 광부가 되었다. 막장에 들어 가 광석을 캐고 돌아 온 첫날, 어머니의 물질 잡힌 손에 봉대를 감아 주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머니의 손에 장알이 박히고 푸르스름한 썩살이 앓기 시작하였다. 어제날 아버지의 손처럼.

그 동안 나도 자랐다. 키도 자랐고 마음도 자랐다. 이제는 밥을 태우거나 설구는 일도 없어지고 제법 밥을 맛 있게 지을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속을 태우는 일도 없어 졌다. 그런 나를 보고 마을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사한 아버지의 소식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부가 된 어머니의 모습은 밥투정이나 하고 놀음에 정신을 팔아야 할 나를 나이에 비해 일찌기 철들게 하였던것이다.

아니, 어찌 나뿐이라. 이 나라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작은 한가슴에 안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불행과 크나큰 슬픔을 겪으며 일찍 철이 들었고 그것을 용감히 이겨 낼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학생들도 광석증산에 펼쳐 나선 광부아저씨들을 도와 나섰다. 공부가 끝나면 광산으로 달려가 예술공연도 하고 흘린 광석을 주어 모아 선광장으로 가져 가기도 하였다.

그즈음 광산에서는 더 많은 광석을 캐내기 위하여 광산적인 굴진경기를 조직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여느 때보다 더 바빴다. 아침에는 상을 물리기 바쁘게 나를 학교로 떠나보내고는 막장으로 달음쳐 갔고 저녁에는 둥근 달이 석우산마루에 올라 앓을무렵에야 돌아 오곤 했다.

그러다나니 어머니는 언제 집안일을 돌볼 사이가 없었다. 새집으로 이사했지만 우리 집은 남자손이 가야 할 곳이 많았다. 울타리도 새로 해세우고 부엌과 지붕도 손질해야 했다. 그 모든것들이 어머니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저녁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불길이가궁밖으로 거꾸로 쏘어나오는통에 부엌은 새뽕안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사그라져 가는 불을 부지깽이로 와락와락 쑤셔댔다. 그러나 불이 살아 나기는커녕 매캐한 연기만 더 쏘어나오고 재가루만 뽕얇게 날아 올랐다. 기침이 쿨럭쿨럭 나오고 재가 들어 갔는지 눈이 쓰러 나며 눈물이 나왔다.

이때 누군가가 손을 휘휘 내저어 연기를 헤치며 들어 왔다.

《이크, 이거 꿈을 잡겠구나.》

당위원장아저씨였다.

《어디 좀 보자.》

당위원장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채 타지 못한 나무토막이 연기만 실실 피워 올리는 아궁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더니 종이에 불을 달아 던져 넣었다. 불길이가궁밖으로 확 밀려 나왔다.

《음- 굴뚝 피목이 뎡etz 같구나.》

당위원장아저씨는 집 뒤뜰로 돌아가 어머니가 서툰 솜씨로 세운 굴뚝뎡을 털었다.

《인남아, 저기 기와장을 주어 오너라.》

나는 당위원장아저씨가 손짓한 곳에서 작은 기와장을 주어 왔다. 당위원장아저씨는 그 기와장을 굴뚝 피목에 박아 넣었다.

《인남아, 불이 잘 들게 하려면 여기 굴뚝 피목에 날개를 잘 달아야 한단다. 알았니?》

일을 끝낸 당위원장아저씨는 아궁에 불을 다시 지켰다. 어른들은 정말 못하는 재간이 없었다. 아궁으로는 불길이가궁속으로 들어 갔고 굴뚝으로는 흰 연기가 쭉쭉 잘도 나갔다.

내가 불을 때는 동안 당위원장아저씨는 집안귀를 여기저기 돌아 보더니 무거운 낫색으로 토방우에 앉아 담배를 두툼하니 말아 붙여 물었다.

아저씨의 담배불에서는 우리 집 굴뚝만큼이나 짙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

당위원장아저씨는 곁에 앉은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인남아, 그래 요즘 공부도 할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할래 힘들지?》

《아니요.》 나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당위원장아저씨, 굴진경기라는게 뭐나요?》

《응, 그건 어느 소대가 굴을 빨리 뚫러 광석을 더 많이 찾아 내는가 굴뚝기경기를 하는거란다.

인남아, 어머니랑 아저씨들이 굴을 더 빨리 뚫러 광석을 더 많이 캐내야 우리가 잘 살게 될 날이 빨리 온단다. 그때 가서는 어머니도 집에 일찍 들어 오게 될거구 인남아두 혼자서 어머니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일이 없어 질게다.》

《정말이나요?!》 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당위원장아저씨를 올려다 보았다.

《그럼- 그러니 인남아, 어머니를 잘 도와라. 그러구 이제부터 남자손이 필요하면 날 찾아 오너라. 이제 어머니가 굴진경기에서 1등하면 그 1등의 절반은 인남이 몫이다. 어떠냐, 좋지?!》

《좋아요!》

나는 당위원장아저씨의 옷자락에 매달려 좋아라 깔깔거렸다. 아저씨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껄껄 웃었다.

사실 채 여물지 못한 나의 작은 손으로 어머니를 도우면 얼마나 도울수 있으랴. 하지만 당위원장아저씨는 내 마음을 헤아려 나에게 힘을 주려고 그렇게 말했던것이다.

다음날 옆집 광남이 아버지랑 분너 어머니랑 광산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을 번듯하게 손질해 주었다. 방안에 도배도 다시 하고 부뚜막에 흙매질도 하고 토피를 찍어 올리기도 쌓고 굴뚝도 지붕위로 한발이나 올리 가게 높이 세워 주었다.

나는 아침마다 길목에 나붙은 경쟁도표판앞에서 쪽쪽 올라 가는 어머니네 소대의 붉은 줄을 올릴이는 마음으로 쳐다보곤 했다.

정말 어머니의 소대가 굴진경기에서 1등을 하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껄껄 놀라겠지...

나는 학교에서 돌아 오면 숙제도 꼭꼭 하고 집안밖도 깨끗이 청소하고 저녁도 지어 놓곤 했다.

어떤 날에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마중 가기도 했다.

등잔불을 환히 켜두고 어둠을 밝히며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함께 돌아 오는 그런 저녁이 나는 좋았다. 학교에서 5점 맞은거랑 하루동안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네가 지금 몇등인가도 물어 보고... 어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 오는 그 길이 정말 좋았다.

나는 지금껏 어머니의 팔을 베고 잠 자던 버릇을 떼여 버렸다. 하루종일 버력을 나르고 착암기를 돌린 어머니의 팔이 얼마나 아프랴. 그래서

떼여 버린 습관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밤마다 사랑하는 이 아들의 머리에 팔을 베여 주고 정답게 쓸어 주곤 했다. 내 얼굴에 와닿는 어머니의 손은 이전처럼 부드럽지 못했다. 어제날 아버지의 손처럼 껄껄하고 알싸한 돌가루냄새며 발파가스냄새가 풍겼다. 그러나 나는 그 손길이 좋았고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그래서 따스한 어머니품에 꼭 안겨 들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잠들 때를 기다려 살그머니 빠져 나오곤 했다. 그러나 새벽에 깨보면 내 머리에 언제나 어머니의 팔이 고여 있었다.

어느 날이었던지, 나는 자다가 갑자기 방안이 환해 지는 바람에 깨어 났다. 방을 둘러 보니 어머니가 등잔불을 켜 놓고 앉은뱅이책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해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정적이 깃든 방안에 조용조용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여보 인남이 아버지, 막 힘들어요. 오늘도 겨우 한발과밤에 못했어요. 오늘은 어떻게서나 두 발파를 하자고 했던건데... 정말 막장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이럴 때 당신이라도 곁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겠나요...》

밝은 불빛을 내뿜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고 채취가 풍기는 등잔...

나는 그날에야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물인 간데라를 왜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는지 깨달았다. 등잔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지지 않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마음의 등불이었던것이다.

...어머니는 나와 당위원장아저씨, 아니 사십없는 정을 주고 사랑을 주며 도와 주는 모든 광산사람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했으니 어머니네 소대가 굴진경기에서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녔던 것이다.

그날은 마가울, 한껏 높아 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우리 학교운동장에서는 경기총화모임이 온 광산중업원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끝날 같은 장정들속에 한송이 꽃마냥 수줍게 서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두고 여기저기서 찬탄의 말들이 들려 왔다.

《저 녀인이 남편의 뒤를 이어 착암기를 잡은 광부라네.》

《겉보기에는 연약한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가?》

《아, 그러기에 우리 조선녀성들을 두고 외유내강이라고 하지 않나.》

정말이지 온 광산사람들의 눈길이 어머니에게 쏠린것 같았다.

소고대의 요란한 북소리가 울리자 학생들이 주석단으로 올라 가 1등의 영예를 지닌 어머니의 소대원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나도 주

석단으로 달려 나갔다. 내 손에는 어머니를 위해 온 산판을 뒤져 꺾은 산국화꽃목걸이가 쥐여져 있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꽃목걸이를 걸어 줄 때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졌다.

《어머니, 축하해요.》

나는 몇시간동안 고르고 고른 말중에서 이 짧은 한마디말밖에 더 할수가 없었다.

어머니를 축하하여 광산사람들은 아낌 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얼굴이 빨그레하니 달아오른 어머니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그 모습을 보는 나는 마음속으로 웨치고 싶었다.

(어머니! 머리를 들어요. 어머니는 온 광산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광부예요.

자, 보라요. 모두가 어머니를 축하해 주고 있어요. 난 어머니를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몇몇한 광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나에게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돋보였다. 아버지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맥없이 쓰러졌던 어머니, 그 모진 아픔과 슬픔을 꺾듯이 이겨내고 굳세게 일어 나 어엿한 광부로 성장한 나의 어머니...

...내가 중학교졸업을 앞둔 해,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막장일을 비롯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이 험하게 일할수 있는 직종을 세부적으로 짚어 주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하였다.

어머니는 다시 선광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뿔수 없이 이어진 막장길, 우리 가정의 막장길은 끊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나도 광부가 되었던것이다.

첫 출근길에 오르는 나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인남아! 광석을 캔다는게 험치 않은 일이다. 광석은 손으로가 아니라 굳센 마음으로 캐는거란다. 광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조국을 받드는 우리 광부들의 마음의 결정체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때가 묻고 땀이 짓든 착암기를 놓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진짜 광부가정이라고 뽐뽐이 말할수 있다.》

나는 어머니의 절절한 당부를 가슴속깊이에 새겨 넣었다. 어머니는 비록 막장을 떠났으나 마음만은 언제나 나와 함께 막장에 있었다. 내가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갱장으로까지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 쓰며 나를 이끌어 주었다. 때로는 차근차근 타일러도 주고 때로는 엄한 질책과 꾸중도 해주며...

세월은 흘러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나는 세 자식을 광부로 둔 아버지가 되었다.

당에서는 나에게 공훈광부의 명예칭호를 안겨주고 내세워 주었다. 사람들은 공훈광부가 된 나의 모습에 어머니의 모습이 비껴 있다고 한다.

오늘 내가 쓰고 다니는 안전모에는 등잔불빛에 비길수 없는 안전등불빛이 막장길을 환하게 밝혀 주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땀이 짓들고 체취가 풍기는 등잔은 소중한 가보로 오늘도 우리 집에 걸려 있다.

나는 지금도 짬만 있으면 등잔을 닦는다. 내 마음에 녹이 쓸세라...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등잔의 반사판에 어머니의 모습이 비껴 온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광부의 모습으로...

상식

21 세기의 화폐-전자화폐

멀지 않아 쇠돈과 지폐대신에 전자화폐가 사용 되는 시대가 올것이다. 전자화폐는 크게 카드형 전자화폐와 회로형전자화폐로 갈라 볼수 있다.

카드형은 집적회로장치가 된 카드에 은행예금액을 기억시켜 놓고 물건구입과 같은 상업거래에 리용하며 회로형은 은행이나 상점에 컴퓨터망을 편결시켜 놓고 그것을 결제수단으로 상업거래를 하도록 한것이다. 카드형은 주로 개인들의 상품구입에 리용된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산 경우 전자카드를 환기기구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구입대금이 상점의 전자카드에 넘어 간다. 그 대신 구매자의 전자카드에도 상품대금을 지불한 나머지액수의 금액만이 남아 있게 된다. 전자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사이의 적은 액수의 대부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손 쉽게 거래가 이루어 진다. 전자카드는 물건을 산후에 은행구좌를 통하여

결제가 진행되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그 자리에서 결제가 끝나는것이 특징이다.

회로형은 기업들사이의 상업거래에 많이 리용된다. 주로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등의 결제에 리용되는데 전자카드를 컴퓨터망에 편결하여 상업거래를 진행하는 형태다. 컴퓨터망은 카드소유자의 집과 상점, 직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은행구좌에까지 편결되어 임의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상업거래를 결제할수 있다. 이러한 회로형의 전자화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나라들사이의 국제결제도 가능하게 한다.

일부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전자화폐를 실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험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앞으로 21세기는 전자화폐의 시대로 될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1)

~1990년대 젊은 시인들의 자취를 더듬어~

류만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어제도 썼으며 오늘도 쓰고 있으며 래일도 쓸 것이다. 마치도 직포공이 천을 짜고 선반공이 제품을 깎으며 주물공이 주물품을 부어 내듯이 시인이 시를 쓰는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리치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시인이 하는 일은 직포공이나 선반공, 주물공이 하는 일과 다르다. 직포공, 선반공, 주물공이 하는 일은 반복되는 공정의 계속이며 거듭할수록 숙련이 이루어 지는 노동이다. 하지만 시인이 하는 일은 창작이다.

시를 쓴다는 의미에서는 반복공정이 될것이며 시를 많이 쓰면 숙련이 이루어 지는것도 사실이지만 시를 쓰는 일은 같은 제품의 다량생산을 위한 공정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창조사업이다. 말하자면 어제에는 저런 시를 썼다면 오늘은 이런 시를 쓰고 래일은 또 다른 시를 써야 하는, 매번 새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창조사업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기능 높은 직포공이 천을 많이 짜내면 짜낼수록 질 좋은 천이 덧쌓여 직포공의 공로와 이름이 널리 알려 지지만 시인이 쉽없이 시를 써낸다 하여 꼭 같은 결과가 차례지는것은 아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와는 다른 결과가 빚어 질수도 있다.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서도 지어 시집까지 내기도 독자들의 심중에 인상 깊게 자리 잡지 못한 시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시를 쓰지는 못하였지만 또 갓 시단에 등장하였지만 시가 깊은 인상을 남겨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고 기대와 관심속에 다음시가 기다려 지는 그런 시인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지만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가 펼쳐진 시를 쓴 시인이 진짜시인이다.

작가는 곧 작품이며 작품도 곧 그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의 이름은 작품으로 알려 져야 한다. 때문에 작가라면 비록 그와 그 어떤 인연이 없어도 그의 작품을 가지고 독자들은 그가 그 어디에 있건 존경하는 스승이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을 부르듯이 작가의 이름을 부르며 친숙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하면 리찬이 생각나고 《백두산》, 《조선은 싸운다》 하면 조기천이 떠오르며 《나의 조국》 하면 김상오가, 《어머니》 하면 김철이라는 이름이 상기되듯이 작가의 이름과 함께 작품이, 작품과 함께 작가의 이름이 떠오르는것이 리상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높은 요구이기도 하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창작되는 작품마다 그 작가를 알게 하는, 말하자면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가 펼쳐진 시로 될 때 시인으로서의 자부를 가질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시를 써서 발표(그것이 노동자들이 계렬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없는 《시》가 된다 할지라도) 했다는 그것으로 자기를 시인이라고 줄곧 생각하며 그런 《시》를 쓰는데서 벗어 나지 못한다면 그는 작품과 함께 이름이 떠오르는 시인으로가 아니라 작품은 다량생산되는 《제품》으로 취급되고 이름은 《허울》로만 남게 되는 시인의 처지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이 기억하고 그들의 인상에 남는 좋은 시를 쓴 시인만이, 자기 이름과 함께 불리워 지는 시를 쓴 시인만이 참다운 시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질수 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 지면에서 많은 사를 대하고 있다. 그중에는 년한이 오랜 시인들, 중견시인들도 있고 신진시인들도 있다. 시인의 이름을 되새겨 보게 하는 인상에 남는 좋은 작품도 있지만 《그저 그렇군》하면서 스쳐 지나게 되는 작품도 있다.

욕심 같아서는 매 작품들이 다 인상에 남는 작품이 되고 시인의 이름도 개성이 뚜렷한 얼굴로 안겨 왔으면 하는것이고 또 시인들이 부지런히 쓰는데 열중하면서도 한편이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모》가 나는 작품을 쓰는데 사색과 탐구를 더 기울였으면 하는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인들속에서 그런 의욕과 열정이 샘 솟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1990년대에 시단에 등장한 젊은 시인들의 자취를 더듬으며 생각되는바를 단편적으로나마 이야기하려고 한다.

자질의 부족과 자료의 불충분으로 하여 나의 글에 허점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장차 주체시문학의 주인이 될 시인들의 창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1990년대 젊은 시인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하였다.

*

1990년대엔 시단에 등장하여 시를 쓰고 있는 시인들 가운데서 내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시인의 한사람은 렬형미이다. 그것은 시초 《시련과 너인》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시초 《시련과 너인》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면에서가 아니라 주체88(1999)년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 제출된 작품에 대한 최종심의를 위해 보내온 원고상태에서였다. 원고지를 번져 가며 시를 읽던 나는 흥벽을 치는 뜨거움에 필자의 이름을 다시금 새기었다. 충격이 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히었는데 나와 동감이었다.

물론 렬형미의 이름을 내가 이때에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그는 1980년대로부터 1990년대로 넘어 오면서 시 《철의 도시생활의 한토막》이며 《청춘이여》 등 작품을 썼고 주체86(1997)년에는 《조선문학》에 시초 《엄마의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작품들은 그 무엇인가 공통된 서정의 요소들을 엿보였지만 아직은 개성이 뚜렷하지 못한 문학수업과정의 산발적인 작품들이어서 시인적인 그의 면모를 찾아 보기에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그가 시초 《시련과 너인》을 발표하게 되어 널리 알려 지게 되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시단 예로의 그의 등장은 이채로운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시인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처녀작이 문단의 관심을 모으고 지어 그것이 작가의 대표작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시인이 시초 《시련과 너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의 창작으로 그는 독자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독자들이 이 시초를 읽으며 감동된 것은 한마디로 시가 깊은 정서적체험의 산물로서 생활적으로 꾸밈없이 진실하게 씌여 졌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들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인민들 특히 녀성들이 체험한 준엄한 생활의 진실이 자그마한 꾸밈도 보탬도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누구나 체험한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은 우리 인민에게 예고없이 들이닥친 광풍이었다.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맹이의 파문처럼 《고난의 행군》은 우리 인민의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에 뜻밖의 시련과 난관을 가져 왔다. 특히 그것은 이 나라 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준엄하고 힘겨운 것이었다.

렬형미는 녀성으로서 시인으로서 그 시련의 와중에 있었으며 그는 그속에서 력사에 류례 없는 시련을 맞받아 나아가는 이 나라 녀인들이 무엇

을 생각하고 바라며 또 무엇을 증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웃고 있는지 생활속에 간직된 인간내면세계의 심연을 헤아려 보았다.

오, 시련의 오늘
못난 췌기풀조차 덩석 밟을수 없노라
말없이 네 품에 뿌리 내린 그것들
나에겐 흰쌀마냥 귀중하거니

썩썩한 향기 그 땀을
인생의 참맛으로 달게 먹으며
행복의 서른해에 몰랐던것을
고난의 한해에 다 알았노라
-시 《땅이여》에서-

행복의 서른해에 무심히 밟고 지나던 그 췌기풀조차 흰쌀처럼 귀중하게 생각될 그런 날이 있을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그러나 《고난의 행군》의 나날은 이 나라 녀인들에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이 땅에, 이 나라 녀인들에게 들이닥친 시련의 크기를 말하는 시인의 심중은 얼마나 처절하고 소박한 생활적진실로 가득차 있으면서도 심오하고 철학적인가.

시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구구히 설명하지 않았어도 서른해, 췌기풀, 길장구 등 풀이며 흰쌀과 같은 표현들을 하나의 시상속에 의미적으로, 정서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련의 모지름과 준엄성을 느끼게 하였다.

시 《떨리는 손》도 평범한 생활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진실의 철학적깊이로 특징 지어 진다.

시련의 하루하루를 맞고 보내는 녀인들의 고통은 말로는 다할수 없는 가슴 허비는것들이었다.

철없이 뛰노는 아이들의 손에 무언가 들려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밤일 가는 남편의 밥상에 마음뿐 그 무엇도 고일수가 없어 애꿎은 행주치마만 매만지는 가슴저림, 그래서 녀인의 손은 때없이 떨리는 것이었다. 그 떨림은 녀인들의 마음속깊이에 간직된 뜨거운 사랑과 인정의 분출이 가져 온 것이었다. 그러나 자식과 남편에 대한 그 사랑과 인정이 원썩 미제를 두고는 얼마나 무자비한 증오와 복수로 불 타는 것인가.

죽가마 저으며 떨리는 이 손
충창을 잡는 그날엔
충창을 잡는 그날엔
단 한번도 떨리지 않으리라!

《떨리는 손》과 《떨리지 않》은 손의 정서적대비, 이것은 사랑과 증오의 감정의 정반비례적인 형상적표현으로서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속에 간직된 원썩 미제에 대한 천백배의 보복의 철추를 가슴 후련히 느끼게 한다.

심장은 심장과만 통하는 법이다. 시인 자신의 심장의 뜨거운 느낌과 울림이 없이 독자들의 심장을 감동시킬 수 없다. 아무리 중요요 보복이요 웨쳐도 심장으로 하는 말이 심장에 가닿지 않고서는 시가 정서적, 형상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생활의 어려움과 시련앞에서는 그리도 떨리던 손이 총창을 잡는 그날엔 한번도 떨리지 않으리라는 서정토로가 가지는 정서적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토로에는 원쑤에 대한 쌓이고 쌓인 증오의 폭발이, 천백배 보복의 총탄이 끝없이 장약되어 있는것이다.

소리를 치지 않으면서 소리를 쳐서 얻는 효과의 몇배이상의 정서적충격을 주는 시인의 이러한 형상적특기는 시 《겨울》을 비롯한 시초의 다른 시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에서 시인은 시련을 굳세게 이겨 내는 이 나라 녀인들의 범상한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의지와 신념, 락관을 정서적으로 두드러지게 감동 깊게 보여 주었다. 이 시초를 통하여 이 시인이 시를 생활적으로 쓰며 뜨거운 체험과 느낌으로 사상감정을 생활적정서로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절절하게 형상할 줄 아는 시인이라는 인상과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이 시초가 발표된 그해 작가들의 모임에서 어느 한 로시인이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시인들이 어떤 시를 남기였는가, 《고난의 행군》을 보여 주는 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련과 녀인》이 그 좋은 실례로 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도 공감되는바가 많았다. 나는 시초 《시련과 녀인》이 우리 시단을 보다 다양하고 풍만하게 하는데 보탬을 한 하나의 청신한 서정의 샘줄기라고 생각했으며 우리 시인들이 이런 생활적인 시를 쓰는데 웅당한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시초를 읽은 뒤 은연중에 그의 다음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절대로 남의 품을 따르거나 그에 물들지 않으면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낸 《시련과 녀인》과 같은 좋은 시를 쓰리라고 믿으면서...

그런 가운데 《나는 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이예요》(《조선문학》 주체89년 11호), 《몰랐어요》(《문학신문》 주체90년 29호), 《어이 모를가》(《문학신문》 주체90년 34호),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조선문학》 주체90년 12호) 등 그의 시들을 받아 보았다.

이 시들은 비록 세련되지는 못하였지만 신진녀성시인으로서 《시련과 녀인》에서 보여준 자기의 개성적인 서정세계를 잘 살리고 다양화, 풍부화해 나가려는 시인의 탐구와 노력이 진지하게 안겨 온다. 이러한 시들에서 그는 레외없이 녀성의 시점에서 녀성의 생활이나 그와 련관된 생활에 대한 체험세계를 다루고 있으며 그것도 대체로 남편과 자식과의 인정세계에 바탕을 두고 정서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

시 《몰랐어요》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을 두고 적지 않은 시와 가사들이 창작되었지만 대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것을 정황적으로 제시하고는 그것을 통하여 느끼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노래하는데 머물렀다.

시 《몰랐어요》도 그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는 데서는 다름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노래하는 시인의 서정세계는 결코 이전의 그 어느 시인도, 그 어느 시에서도 시도되지 못했던 새로운것으로 특징 지어 진다.

시에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참으로 《당신네 공장》을 찾아 주시고 《당신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어 주신 감동적인 사실을 두고 10여년을 함께 살면서 그저 평범하게만 보아 오던 남편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깊이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귀중한 사람인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안해의 격동적인심정이 토로되어 있다.

기념촬영의 의의, 기념촬영한 남편의 영광과 행복, 그러한 남편과 함께 사는 안해의 기쁨과 감격이 크나큰 격정으로 한꺼번에 심장을 짹 메우지 않는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숭배심,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그리움,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생활적감정으로 진실하고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착상이 새롭고 기발하며 정서도 생활적이고 진실하며 그로 하여 사상정서적충격과 여운이 강하다. 녀성적인 체험과 사색, 녀성적인 감각과 정서가 바로 이 시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이 시를 발표한후에 나온 시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에도 자기의 서정세계를 살려 가는 시인의 탐구적노력이 깃들어 있다.

련의 구분이 없이 비교적 길게 쓴 이 시에서 시인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시들과 일련의 공통성을 보여 주면서도 시적일반화에서 새로운 시도를 나타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역시 남편을 꺼들이면서도 주로는 북쪽의 녀인들의 알뜰하고 간진 일숨씨,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이악한 모습을 구체적이고 섬세한 감성적생활표상으로 그리면서 그 모든것을 정서적으로 승화시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일반화하는데로 지향하였다.

...

집집의 부엌문을 열어 보라
크고 작은 깨단지 옥단지 층층 쌓여 있고
웃칠한듯 까만 무쇠가마들
안주인의 알뜰함을 자랑하거니

...

대범스럽고 억세기도 한 이 녀인들에게
그렇게도 감미롭고 재간 많은
보배손이 있다는것은 참...
이들이 담그는 김치와 토장은 참으로 별맛
식혜, 낙지젓, 참나물김치
눈맛도 입맛도 천하의 별맛
...

시인의 여성적인 안목과 관찰, 체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시련들이다. 《시련과 녀인》에서
보여 주었던 개성적인 면모를 보다 세련시키고
풍부히 하려는 탐구의 자취가 느껴 진다. 그러나
섬세하고 진지한 생활적감정으로 정서적화폭을
펼치던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에서는 《론리적》사
고를 추구하면서 시인이 보여 준 《체질》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결론》을 서두름으로써 평범한
생활정서속에서 시의 사상감정을 철학적 있게 자
연스럽고 여운있게 드러내던 자기의 특색을 충분
히 살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의 도시 아이들의 장난 세
찬 모습에서 그 미래를 략관하는 어머니의 심정
을 노래한 시 《나는 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에게
요》라든가 《빨래하는 광부의 새색시》에 대한
소묘를 통하여 그의 내면세계에 비친 제대군인광
부의 틈틈한 모습과 결산 일순씨, 그 안해된 녀
인의 자랑을 노래한 시 《어이 모를가》에도 류사
한 부족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 시들 역
시 녀성의 눈으로 녀성의 체험세계를 노래하면서
그것도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정서를 펼쳐 그의
개성적인 서정세계를 일정하게 느끼게는 하지만
시인의 주정에 참신하고 의의 있는 발견적인것
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감정으로에 머문 느낌이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시인이 녀성들의 생
활에 관심을 돌리고 녀성의 시점에서 남편과 자
식과의 련관속에서 정서세계를 탐구하는것은 특
색도 있고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밖에 달리는 할수 없는 느낌이 없이 일면적으로
거기에 시상을 엮으려고 할 때 생길수 있는 결과
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자
칫하면 시적사색과 환상의 세계가 더 넓어 지지
못하거나 다양성에 손상을 줄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다.

이러저러한 부족점이 있지만 그의 시들을 보면
남의 품에 섭쓸리지 않으면서 자기 식으로 서정
세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시도해 보려는 모지름이
느껴 진다.

아직은 30대중반인 시인이 앞으로 시초 《시련
과 녀인》과 이어 지면서도 녀성시인으로서의 개
성이 뚜렷한 자기의 고유한 서정세계를 보다 세
련시키고 풍부화한 훌륭한 시작품들을 풍성하게
주렁지우리라고 기대한다.

시인 렬형미와 함께 1990년대 젊은 시인으로

인상에 남아 있는 시인의 한사람은 시인 문용철
이다. 나는 그가 시를 많이 쓴 시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드문히 시를 쓴 시인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의 시작품들에 대한 잊혀 지
지 않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것은 그 한편한편의
시인이 자기 생각을 굳혀 심사숙고해서 쓴 시이
며 따라서 거기에는 자기의 얼굴과 목소리가 뚜
렷한 서정세계를 펼치려는 시인의 남 다름 고심
어린 탐구와 노력의 흔적이 어려 있기때문이다.

그의 시를 더듬어 보느라니 언젠가 《조선문학》
주체84년 11호의 신인특집에 그의 시 2편(《수령
님철학》과 《아이들이 뛰놀니다》)을 추천하면서
시인 오영재가 썼던 추천말의 한구절이 생각난
다.

《조선인민군경비대 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문
용철동무는 주체81(1992)년 작가동맹에서 진행한
전국문학작품현상모집에 시초 <나는 총을 더 달
래일수 없다>를 제출하여 1등으로 당선된 이후
주체82(1993)년에는 장시 <세대의 웨침>을, 주체
83(1994)년에는 서정시 <참된 삶을 가르치시라>
를 연거퍼 1등으로 당선시킨 동무입니다. 이번에
<조선문학>에 추천하는 시는 새 세대의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하며 순결하고도 진실한 정서의
풍만함과 독특한 시어들의 그 박력과 참신성으로
하여 일정하게 주목을 끌수 있는 작품이 아니겠
는가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한 평범한 신인의 시에 대한 평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년세월이 흘러 오늘은 시
인대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용철의 시들을 놓고
볼 때 그때 추천자가 한 말이 그저 귀맛 좋게 의
도적으로 한 우연한 평가가 아니었다는것을 새삼
스럽게 느끼게 된다. 물론 이것은 시인으로서 그
자신의 노력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는 문제이
다.

그는 지금까지 신인시절의 시들에서 보여 준
새 세대의 새로운 감각, 깨끗하고 진실한 정서의
풍만함과 독특하게 사색된 언어를 살리면서 그
것을 더욱 심화시키고 세련시키기 위해 애써 노
력하면서 자기의 서정세계를 탐구해 왔다.

그의 시에서 다른 시인들의 작품들에서와는 구
별되는 그 나름의 시적감각과 정서가 느껴 지고
특색 있는 서정적일반화에 의한 시대정신의 심오
하고 독특한 구현을 찾아 보게 되는것은 바로 이
런 사정과 관련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시인 문
용철은 비록 뚜렷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시단에 자
기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고 등장하여 그것을
세련시키면서 시인으로서의 성장의 길을 걷고 있
는 시인의 한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여담 같지만 여기서 굳이 이런 문제를 상기하
게 되는것은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신인들이 문단
의 기대와 관심속에 모습 있게 나타났다가 종적

이 표현해 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때문이다.

어떤 경우를 보면 현상모집에서 1등을 하였지만 그후 지면에서 그 이름을 다시 찾아 보기 힘든 신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후에도 쓰긴 하지만 첫번의 자기 수준을 넘어 서지 못하거나 또 자기 모습을 잃고 남의 모습을 닮아 그저 시를 쓰는 일반 《시인》으로 되어 버리는 시인도 있는것이다.

시인이라면 마땅히 시창작의 길을 계속 뚫아 나가면서 그 로정을 자기 얼굴과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의 탐구로 충만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문용철의 시에 대해 좋게 긍정하는것은 그가 첫 작품에 이어 계속 시를 발표하면서 그 시들마다에서 새로운 서정세계의 탐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작품들에 비껴 있는 그의 개성적얼굴을 이러저러하게 엿볼수 있기때문이다.

그는 시 《나는 총을 더 달래일수 없다》를 비롯한 초기작품들에서 벌써 총대에 더는 억제할수 없는 조국통일열망을 의탁하면서 시대정신에 대한 민감성, 적극성을 보여 주었으며 생활에 대한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와 새로운 감각으로 대상을 폭넓게 주정화하면서 시적일반화를 실현하는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후 그의 작품들에서 이러저러하게 다양화되고 굴절, 심화, 세련되면서 시의 개성적면모에 의의 있게 바쳐 지는것을 볼수 있다.

그의 시들을 읽으며 인상 깊게 느낄수 있는것은 사상감정의 독창성, 심오성이며 그를 위한 시적일반화의 특징적인 실현이다.

시에서의 사상감정은 정서적으로 안겨 오면서도 생활의 진리로 뜨겁게 감수되어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적일반화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인의 형상적능력과 수준, 개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인 문용철은 자기로서의 탐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시 《수령님철학》을 놓고 보자. 시의 제목으로서는 너무 크고 요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일종의 《우려》를 가지고 시를 읽어 나갔다. 시는 쌀의 귀중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에게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사는게 무엇인가를 묻는 늙은 농군에게 해빛, 물, 공기라고 대답하는 새 세대의 대답은 어찌 보면 너무도 천진하다. 그 대답을 반박하여 다시 시작되는 늙은 농민의 심정으로 울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주정토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 농장에 자주 들리시는것은 무엇때문이며 병사의 군모 모표며 나라의 국장에 벼이삭이 새겨 져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는 쌀의 귀중함을 깨우치는 심장외 웨침으로 매우 절절하게 울린다.

보통상식으로는 이 정도만으로도 시가 되리라

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시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쌀은 사회주의라는 말씀의 심원한 뜻을 깊이 새기여 마침내 쌀의 귀중함을 두고 그것이 우리 수령님 철학이라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감정을 밝히는데 이르렀다.

이 시인이 아니고는 누구나 쉽게 도달할수 없는 사상감정의 높이이며 그것이 생활의 진실로,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안겨 오는 여기에는 시적일반화의 특색 있는 숨씨가 비껴 있다.

이것은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느껴 진다.

그의 시들을 보면 대체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소재로 되고 있다. 이미 본 시 《수령님철학》도 그렇고 《아이들이 뛰놀니다》며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조선문학》 주체87년 5호), 《미래를 아껴》(우와 같은 책) 등 여러 작품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수 있다.

생활적인 이야기를 시적대상으로 하면서도 그의 시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사실자체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포괄되는것을 볼수 있다.

레컨대 시 《아이들이 뛰놀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슬픔에 잠겼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이른 아침 수령님동상을 찾아 눈쓰는 모습도 보이며 아이들이 눈으로 미국놈과 왜놈을 빚어 놓고 눈폭탄을 안기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 다양한 생활적이야기들은 서정의 생활적바탕으로 되면서 마치도 용해된 쇠물이 하나의 주강품으로 뻗어 나오듯이 일관한 주정으로 토로되고 있다. 말하자면 그의 시들에서 이러저러한 생활적이야기들이 제시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묘사》되는것이 아니라 그 모든것이 시인의 주정토로에 생활적정서로 용해되어 주정토로의 사상정서적심오성과 생활적진실성, 타당성을 보다 강화해 주고 있는것이다. 때문에 그의 시들은 전반이 주정토로로 일관되면서도 공허하지 않고 생활적정서를 풍만하게 안겨 준다.

이런데로부터 그의 시들은 생활적감정의 구체성, 섬세성, 뜨거움이 강하다.

시 《아침보도는 짧았다》(《조선문학》 주체88(1999)년 11호)는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시에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고래치는 간절한 그리움과 뜨거움이 짙게 어려 있는것이다.

이 시를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며 자나깨나 장군님을 그리워 하는 우리 인민의 심정이 그대로 안겨 와 크나큰 충동과 감동을 느끼게 된다.

많은 시인들이 최전선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많은 시를 창작하였다.

《아침보도는 짧았다》는 이러한 시작품들과 사상적지향을 같이 하면서도 남 다른 체험세계와 체험된 느낌을 자기 식으로 일반화하려는 시인의 탐구적노력으로 하여 풍만한 생활적정서속에서 주정이 강렬하고 심오하다.

그의 시들에서 시적주정의 강렬함은 일부 시들에서와 같이 요란한 웨침에 의하여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생활적정서의 심오성과 독창성, 철학성과 뜨거움에 의해 담보되는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그의 시들에는 생활적정서가 풍부하면서 그를 통한 시인의 주정이 열렬하고 독창적이며 시적발견도 특색 있게 안겨 온다.

여기에 몇편의 시의 결구를 인용한다.

수령님의 응석반이들이 웃는 이 아침
온 조국이 더운 눈물을 짓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허리를 펴고 웃습니다
-시 《아이들이 뛰놀니다》중에서-

아 이 저녁 이 밤이 깊어
거리의 현관문이 닫길 때까지
우리의 장군님은 전선고지 그 어느 언덕에
서계시려니
달빛 환한 저 하늘을 날아 가는 기러기야
너 가다 가다
우리의 장군님을 만나거든 소리쳐 전해 다오
평양 평양은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시 《해 저무는 거리에서》중에서-

아 비 내리는 가을 이 저녁
못 견디게 그리운 우리 수령님
풍년이 든 그 들길에 뒤짐 지고 서계실것
같아
한달음에 달려 가 안기고 싶은
수령님과 유별나게 정 깊은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
-시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에서-

평범한것 같은 이 결구에는 새기면 새길수록 얼마나 깊고 넓고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는가.

시 전반과 련관시켜 볼 때 시의 결구는 그에 전개된 감정정서를 숭고한 사상적높이로 승화시킨 시적일반화의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동시에 《독특하게 사색된 시어들의 박력과 참신성》의 도움과 함께 시적발견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 준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는 많은 시를 쓰지 않았지만 한편한편의 시를 통하여 자기의 얼굴이 비끼고 자기의 목소리가 울리는 뚜렷한 서정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애 써 노력하는 시인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물론 그 과정에 시인이 어떤것은 극복도 하고 더 세련시키기도 하며 보다 새롭게 탐구하고 지

향하여야 할 여지도 있고 문제들도 있다.

그의 시들은 보통 8~9편을 전후하고 있는데 때 시편에서 4행으로 이루어 진 시편은 보기 드물고 대체로 8행에 이르기까지의 시행으로 한개 련이 이루어 지고 있다. 련구성에서 시행의 수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 시에는 긴 시도 있고 짧은 시도 있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시인 나름이지만 거기에 시적감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

문용철의 시는 대체로 이러저러한 감흥을 주면서도 길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게 한다. 역설적인 말 같지만 여기에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는 하나의 생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적인 이야기들을 련관조화시키면서 주정토도로 시상을 펼쳐 나가는데 이때 그에 포괄되는 생활적인 사실이나 세부들, 또 그를 두고 생각을 펼치는 시인의 사색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자유분방》하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것은 한두개로도 처리할수 있는것을 지나치게 전개한 느낌이 있으며 또 어떤것은 꺼들이지 않아도 될 세부들이 들어 와 《과잉》된 느낌도 준다. 이런 현상과 관련되면서 시의 속도감이 처지는 경우도 때로 있는 것이다.

시 《아이들이 뛰놀니다》, 《미래를 아껴》, 《내 고향은 농촌입니다》 등 일부 시들의 감동이 더 가열될수 있는 기회를 놓친것은 그러한 사정 과도 관련된다고 본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야기한다면 풍부한 생활정서의 토대로 시적일반화를 지향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 주정토도를 앞세우면서 일부 생활감정을 꾸미거나 체험과 느낌의 깊이와 뜨거움을 가지지 못한채 시를 쓰는것 역시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르익지 않은 정서를 서둘러 뽑으면 시인의 얼굴도 목소리도 살릴수 없다.

최근에 그가 쓴 《강성부흥의 봄을 불러》(《문학신문》주체90(2001)년 34호)는 라남의 봉화를 일반적으로만 노래하려는 편향에서 벗어나 새롭게 노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나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시인이 자기의 체질에 맞지 않게 시를 썼다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일부 시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찾아 볼수 있는데 시인은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목소리가 깃든 서정세계를 펼쳐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독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자기의 서정세계를 계속 견지하면서 보다 세련시키고 풍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작가의 창작기교로 보면, 특히 시인의 경우 서정의 샘이 마구 터져 오를 30대의 한창나이를 살고 있는 이 시인에게 한마디 부탁의 말로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같은 값이면 지면에서 좀 더 자주 시를 보고 싶다.

녀인의 마음

김교섭

1

노란 진흙물로 매질한 토방우에 문양처럼 드리웠던 그림자도 어느덧 대추나무밑으로 물러 가버리었다.

달너는 멍석조각을 깔고 토방에 앉아 부지런히 코바늘을 놀리며 이따금 울타리너머 행길쪽을 내다보곤 하였다.

아침에 당원증을 수여 받으려 군당으로 떠나간 한용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 올 때가 되었는데.》

달너는 불시에 싱긋 웃으며 중얼거리고 나서 불시에 웃음을 거두었다.

그는 가루방아간 아낙네들처럼 고깔식으로 머리수건을 촌스럽게 쓰고 있었지만 억실억실한 두 눈에서는 따뜻한 미소가 어리었다.

빨간 입술은 물기에 촉촉히 젖어 있었고 풍만한 가슴은 때없이 숨 가쁘게 오르내리곤 하였다.

달너는 새벽이슬을 머금고 금시 망울을 터친 한송이의 탐스런 다리아꽃처럼 싱싱한 스무살 처녀였다.

《에그머니나.》

부지런히 코바늘을 놀리던 달너는 갑자기 손을 꼭 몽그러 쥐며 한순간 굳어 저 버렸다.

눈앞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던 한용세의 얼굴은 물러가고 깨알만 한 피방울이 맺힌 손가락끝이 안겨 왔다. 코바늘끝으로 손가락을 콧 찌르던 것이다.

《오빠라고 부르던 때가 좋았어!》

달너는 손끝에 맺힌 빨간 피방울을 황홀하게 들여다 보며 한숨을 지었다.

피방울은 당원증주머니의 어느 실오리에 감쪽같이 묻혀 지고 말았다.

자기 몸에서 흘러 나온 피방울이 묻든 당원증주머니가 한용세의 가슴에 놓인다고 생각되자 달너의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고여 올랐다.

달너한테는 한용세가 마음 착한 오빠였으며 너그럽고 인자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지난해 겨울은 끔찍이도 추웠다.

토지개혁때 반동놈들한테 부상당한 달너와 아버지는 몇해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대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운명하고 말았다.

리서기장이었던 아버지는 일찌기 상처하고 외동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 왔는데 그 딸을 홀로 남겨 두고 세상을 하직했던 것이다.

줄지에 외로리가 되어 버린 달너는 외롭고 슬

프기가 그지없었다.

그는 밤이면 눈두덩이 퉁퉁 부어 오를 때까지 혼자 소리없이 울곤 하였다.

어느 날 밤 달너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으로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바깥을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그런데 웬 사람이 꿈꿨는지 얼어 붙은 눈을 밟으며 자기 집 울타리주변으로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새벽에 다시 내다보았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울타리밖에서 돌고 있었다.

다음날 동네 개들도 추워서 밖에 얼씬하지 않는 깊은 밤이 되자 그 사람은 또 나타나 새벽닭이 해를 치며 올 때까지 울타리밖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잃고 외로리가 된 달너를 말없이 지켜 주고 있었던 것이다.

살을 어이는듯 한 추위를 무릅쓰고 밤마다 달너를 충실하게 지켜 준 사람은 뒤마울에서 사는 총각 한용세였다.

힘이 장사인 한용세는 동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 먼저 달려 가 팔을 부르짖고 도와 나서는 부지런한 총각이었다.

동네에서는 마음 착한 한용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딸 가진 부모들은 그에게 딸을 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용세는 혼사말이 나면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서론이 되어 오도록 장가 들지 않고 있었다.

한용세는 건강하지 못한 서기장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였다.

서기장도 읍에 연락할 일이 있거나 동네에 알려줄 문제가 있으면 걸음이 빠른 한용세부터 찾곤 하였다.

동네에서는 한용세를 《작은 서기장》이라 불렀다.

달너는 아버지를 매일 찾아 오는 한용세를 무렵없이 대하며 오빠라고만 불렀다.

한용세는 서기장이 세상을 떠나가자 처녀가 혼자 사는 집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며 어찌다가 마당에 들어 와서도 말조차 변변히 못하며 달너의 눈길을 피하곤 하였다.

하면서도 깊은 밤이면 누구도 모르게 밖에서 처녀를 몰래 지켜 주고 있었던 것이다.

달너는 언제부터인가 한용세가 마음속으로 자기를 사랑해 왔다는것을 문득 깨달았다.

자기가 시집 갈 나이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로총각이라는 조롱까지 받으며 장가를 가지

않고 있었던것이다.
 달녀는 겁이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얼마나 추울까?)
 달녀는 아버지의 낡은 솜옷을 가지고 달려 나가 한용세의 어깨우에 걸쳐 주고 싶었다.
 하지만 솜옷을 가슴에 꼭 그러안은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한용세가 밖에서 처녀를 지켜 주며 자지 못한것처럼 달녀도 집안에서 솜옷자락을 씹으며 자지 못했다.
 며칠후 달녀는 문득 길가에서 한용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오빠, 인젠 그만 두어요. 손발을 얼구겠어요.》
 《내가 어쨌기에 손발을 얼군다는거요?》
 한용세는 서툴게 시치미를 떼고는 달녀를 어름 어름 마주 보며 말했다.
 《오빠라고 부르지 말아 주오.》
 《그럼 어떻게 부르겠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오빠라고는 부르지 말아 주오. 제발 부탁이요.》
 덩지 큰 한용세는 처녀앞에서 몸돌바를 몰라 하며 어줍게 웃었다.
 달녀는 그러는 한용세가 불쌍해 보였다.
 《나는 달녀를 내 마음속에 담고 싶은걸 어찌겠소. 달녀가 나를 피해 하늘끝으로 도망친다 해도 따라 가서라두...》
 달녀는 한용세의 진정을 막아 낼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한용세가 늘 자기결에 있다고 생각하자 달녀는 마음이 든든해 지군 했다.
 사나운 겨울이 물러 가고 따뜻한 봄철도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닥쳐 왔지만 달녀는 어느 하루도 자기결에 있는 한용세의 존재를 느끼지 않는 때가 없었다.
 오늘 아침에 있는 일이었다.
 달녀가 닭모이를 주러 마당으로 나가자 울타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용세가 불쑥 울타리꼭대기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수더분한 눈길을 내리깔며 당원증을 수여 받으러 가는데 당원증주머니를 하나 떠달라고 어쭙게 말했다.
 그가 달녀에게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었다.
 달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당원증을 수여 받아 가지고 돌아 올 때 들려주세요.》
 《달녀, 고맙소.》
 달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당원증주머니를 떠나갔다.
 마지막 코바느질을 끝내고 나니 당원증주머니가 여간만 탐탁하지 않았다.
 한낮이 되자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던 동구길에는 인적이 끊어 지고 말았다.
 갑자기 저쪽 개울 건너 강둑너머에서 덩지 큰

사람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한용세 같았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달녀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는 발밑에서 먼지를 풀썩풀썩 날리며 달려 오고 있었다.
 급히 삿잡문앞으로 나서긴 하였지만 달녀는 동네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더 나가지 못했다.
 소꼬리도 까부라든다는 땡벌을 머리우에 들쓰고 저렇게 정신없이 달려 오다가 더위를 먹고 쓰러지길라도 하면 어쩔담. 가까와 지는 그를 눈여겨 보니 한용세가 아니었다.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동네사람도 아니었다.
 《체네, 리위원장네 집이 어디요?》
 정신없이 달려 오던 사나이는 달녀를 보고 걸음을 늦추더니 마디마디 끊어 진 목소리로 물었다. 땡벌벅이 된 그의 모습에 흠칫 놀란 달녀는 저도 모르게 뒤걸음치며 손을 들어 뒤마음을 가리키었다.
 《죽일 놈들.》
 사나이는 뒤마울로 달려 가며 왜서인지 욕설을 퍼부었다.
 잠시후 리위원장아바이가 토지개혁때 차고 다니던 박달나무방망이를 허리에 달아 매고 다리를 살룩살룩 절며 나타났다.
 《전쟁이 터졌네.》
 달녀는 한용세도 전쟁이 일어 났다는 급보를 가지고 땀을 철철 흘리며 다른 동네로 뛰어 다니는것만 같았다.

2

날이 저물자 달녀의 마음은 초조해 졌다.
 (그이는 왜 늦어 질까?)
 달녀는 마당으로 나가 울타리너머 어둠에 잠긴 동구길을 내다보았다.
 밤이면 숨박꼭질하던 아이들의 떠들어 대는 목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다.
 갑자기 뒤마울에서 웬 아이가 바람처럼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한용세아저씨가 군대 나간대요.》
 아이는 동네초입의 몇집 안되는 문을 두드리면서 달녀네 집은 지나가버렸다.
 이웃집들에서 문소리가 나더니 어른들은 두런 두런 말을 주고 받으며 뒤마울로 멀어 져 갔다.
 군대 떠나는 집들을 찾아 보려는것 같았다.
 (그이가 군대 간다구? 마울엔 돌아 왔구나.)
 한용세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 두고 갑자기 떠나게 되었으니 할 일은 많을것이다. 그가 바빠서 자기한테 들리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종일 눈이 빠지게 그를 기다려 온 달녀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달녀는 당원증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한용세네 집으로 찾아 갔다.

마을사람들이 들락날락할줄 알았는데 집은 위
죽은듯 고요했다. 집안에는 등불도 켜놓지 않았
다.

(어찌된 일인가?)

한동안 마당구석에 몸을 웅송그리고 있던 달너
는 문득 설음이 치밀어 올라 돌아 서고 말았다.

고개를 꼭 숙이고 삼짍문을 나서던 그는 하마
트면 웬 너인과 부딪칠뻔 하였다.

《달너 아니냐?》

저쪽에서 먼저 달너를 알아 보았다.

당황해 하며 너인의 곁을 피해 가려던 달너는
목소리를 듣고 세포위원장택을 알아 보았다.

《너도 용세를 만나러 왔느냐?》

세포위원장택이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달너의 얼굴은 어둡속에서 불단지처럼 확 달아
올랐다.

《그한테 전해 줄것이 있어서...》

《그럼 리위원장네 집으로 가거라. 모두 그 집
에 모였다.》

세포위원장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오전에 마을로 돌아 왔다. 그 길로
너희네 밭에 올라 가 김을 땀더구나! 이 무더운
날씨에 조밭을 다 땀더구나.》

《언니, 전 바보예요. 그런것두 모르고.》

달너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그는 김을 매달라고 한용세한테 부탁한적은 없
었다. 그렇지만 불별이 쏟아져 내린 오늘 먼 길
을 떠나기전에 꼭 쉬어야 할 그에게 자기가 일을
시킨것만 같이 생각되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때까지 처녀를 사로잡고 있던 조심성과 부끄
러움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언니, 내 손으로 떠나가는 그한테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이가 전선에서 돌아 올 때까지 그의 어머니
도 제가 모시겠어요.》

한용세네 집으로 그릇을 가지러 왔던 세포위원
장택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나무함지를 땅우에
내려 놓았다. 그는 처녀의 실박한 어깨를 두손으
로 정답게 쓸어 안으며 말했다.

《네 마음을 알겠다. 한용세가 겨울밤에 우들우
들 떨며 너를 고이 지켜 주었는데 응당 그래야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우리가 한용세를 데리고
가겠다.》

달너는 자기가 집으로 어떻게 달려 왔는지 생
각나지 않았다. 어느 집 울타리옆을 지나갈 때
얼굴을 스치던 호박잎과 쾅쾅 짚어 대며 쫓아 오
던 동네개가 생각날뿐이었다.

쌀을 안치고 공연히 서성거리는 달너에게 세포
위원장택이 찾아 와 조용히 방안으로 불러 올리
였다.

그는 달너에게 치마저고리가 있으면 내놓으라

고 했다.

달너는 그가 하는 일이어서 잠자코 시키는대로
옷을 갈아 입었다. 그러나 세포위원장택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분팍과 연지통을 꺼내자 그는
놀라 냉큼 토방으로 뛰쳐 나가려 했다.

《사내가 널 보자고 오는데 보통때처럼 차리고
있어야 하겠느냐? 그럼 못 써.》

세포위원장택은 엄하게 꾸짖으며 달너를 억지
로 눌러 앉히었다.

뜬김이 물려 나가는 부엌문앞에 리위원장아바
이가 한용세의 늙은 어머니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뒤에 한용세가 서 있었다.

세포위원장택은 자기 뒤에 몸을 숨긴 달너를
늙은이앞으로 슬쩍 떠밀어 냈다.

《어머니가 오셨는데 인사를 드려야지.》

달너는 한용세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였다.

소박한 밥상을 받은 한용세 어머니는 눈굽을
찍는다. 밥상을 물리자 한용세는 어디론가 훌쩍
나갔다.

부엌에서 설것이를 마친 달너가 어머니를 큰
길까지 따라 나섰으나 한용세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가?)

달너가 한용세를 기다리며 마당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손에 도끼와 장대를 든 한용세가 나타났
다.

그사이 산에 올라 가 장대를 하나 찍어 왔던것
이다.

《가을에 대추가 익으면 이절루 처서 따라구.
나무우에 올라 가지 않겠다는것을 약속하오.》

한용세는 장대를 대추나무에 기대세우며 당부
했다.

《방안에 들어 가 눈을 좀 붙이세요.》

한용세가 잠들자 달너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
르며 부엌으로 내려 갔다. 달너가 조찰떡을 처서
서둘러 길량식을 준비했다. 어느새 날이 새기
시작하자 한용세가 자리를 털고 일어 났다. 달너
는 한용세를 강쪽에까지 바래워 주었다. 집을 나
선 두사람은 물결이 찰랑찰랑 스치는 징검다리를
건너 저쪽 강쪽에 오를 때까지 말 한마디 나누
지 못했다.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 무슨 말부터 꺼냈으면 좋을지 몰랐다.

달너는 헤어지기 앞서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당원증주머니를 한용세한테 넘겨 주었다.

한용세는 웃옷을 벗고 당원증주머니안에 당원
증을 넣었다. 그리고 끈을 멘 다음 웃옷을 입었
다.

《달너, 왜 말이 없소?》

달너는 몸 성히 잘 싸우라 당부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한마디만 뇌이였을뿐이었다.

《기다리겠어요.》

《달너의 집이나 지켜 주던 내가 오늘은 나라를
지키러 떠나가요. 이 가슴에는 당원증이 있소. 마

음이 든든하오. 가슴속에 바위돌이 들어 앉은 것만 같소. 달너도 당원이 되라구.»

한용세는 달너의 두손을 꼭 쥐었다.

자기들뿐인줄 알았는데 몇발자국 떨어 진 곳에 흰 목도리를 두르거나 하듯 목이 하얀 검정강아지가 두사람을 뺨히 지켜 보고 있었다.

3

길가의 덩불속에서 짙광이가 피방울처럼 빨갛게 익어 가는 가을이었다. 전선원호에서 돌아 온 달너는 머리수건을 눈우에까지 폭 내려 쓴채 명석을 퍼놓고 마당에서 도리깨로 수수이삭을 털고 있었다.

그때 박달나무방망이를 허리에 달아 맨 리위원 장아바이가 다리를 절며 마당으로 들어 왔다.

그는 집안에 한용세의 어머니가 있는가고 조용히 묻고 나서 처녀를 으스스한 헛간모퉁이로 데리고 갔다.

《이것 보라구.》

아바이는 호주머니안에서 편지봉투를 꺼냈다.

달너는 엄습하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부르르 떨며 봉투안에서 속지를 뽑아 냈다.

한용세의 전사통지서였다.

《이건 잘못된거예요.》

그 녀자는 본능적인 첫 충동으로 자기 손에 들려있는 전사통지서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었다. 눈물을 씻은 달너는 잠시후 정신을 가다듬고 편지봉투와 전사통지서를 다시 보았다.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씀도 말아 주세요.》

《우리도 그래서 너를 먼저 찾아 왔다.》

《그이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네 말이 옳다. 그 사람은 수월히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달너는 분을 참지 못해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전사통지서를 아바이앞에 불쑥 내밀며 부르짖었다.

《억대우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믿으라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래, 한용세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를 두고 죽을수가 없지.》

달너는 한용세의 죽음을 믿지 않는 아바이가 고마웠다.

아바이가 돌아 가자 달너는 자기를 다잡으며 태연하게 일손을 잡았다.

지팡이를 손에 든 한용세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요즘 허리병이 도리어 겨우 바깥출입을 하고 있었다. 《누가 온 것 같은데 돌아 갔느냐?》

《독수리가 동네 닭을 세마리나 채갔대요. 리위원장아바이가 마을로 다니며 닭건사를 잘하라고 이르고 돌아 갔어요.》

그때 뒤마을에서 낫양푼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후여, 후여》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어쩐지 불안하구나. 오늘도 편지가 오지 않았느냐?》

그는 자기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달너의 정성이 극진할수록 아들의 편지를 손 끝아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는 꼭 와요. 그이는 오래전에 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어디서 묵고 있을거예요. 한꺼번에 편지를 여러통 받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느냐.》

그날 밤 달너는 자기 마음을 알아 주는 세포위원장댁을 찾아 갔다.

세포위원장도 올망졸망한 어린 자식들과 안해를 남겨 두고 전선으로 떠나갔었다.

이때문에 두 녀인은 더욱 친밀해 졌다.

《어머니가 눈치챈 모양이구나.》

한밤중에 뛰어 든 달너를 보고 세포위원장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온것은 아니예요.》

《하긴 너도 잠이 올리가 없지.》

《언니, 부대에서 전사통지서를 잘못 보냈는지도 몰라요.》

달너가 너무도 확정적으로 말하자 세포위원장댁은 한동안 꼼짝 않고 그를 지켜 보았다.

《아이구,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읍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집에서 전사통지서를 받았는데 몇달후 병원에서 보낸 남편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지 않겠나요.》

《나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애.》

《전쟁인데 무슨 일인들 없겠나요.》

한동안 말이 없던 세포위원장댁은 깊은 생각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한용세와 약혼도 하지 않았고 혼수감을 주고 받은 일도 없어. 그렇지만 너는 한용세의 어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지 않니. 그리고 보면 우리는 다 후방가족이야. 후방가족은 남들보다 농사를 잘해서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몸단장이 깨끗해야 해. 집에 남정네가 없어도 몸을 깨끗이 거두는 것이 너자야.》

《언니, 알겠어요. 그이가 곁에 있을 때엔 몸단장 같은 건 생각도 안했지만 이제부터는 매일 몸단장하겠어요.》

《기다리자, 기다리느라면 모두 돌아 오실게다.》

4

그처럼 조심하며 숨겨 왔지만 아들의 전사통지서가 왔다는 소식은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 가고 말았다.

늙은이는 며칠동안 통 말이 없었다.

하루는 그가 달너를 앞에 불러 앉히었다.

《내가 아무래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가부다. 모르는 사람들은 네가 시어머니를 끼고 있다고

할게 아니냐. 약혼도 하지 않은 너에게 어찌 허물을 뒤집어 씌우겠느냐.》

《어머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상관하지 않겠어요.》

《너는 젊어서 모른다. 나도 너자다. 내가 너자로서 창창한 너의 앞날을 망칠수 없다. 너도 자식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

자기 아들을 기다리지 말라는 소리였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 주세요.》

《네가 나를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들리곤 하거라. 나도 너를 보고 싶으면 이 집에 들리겠다.》

《그이는 절대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이는 이 집에서 떠나갔어요. 돌아 오실 때도 이 집에 들리실거예요. 여기서 함께 기다리자요.》

달너는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애원하였다.

달너의 간절한 애원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었다.

《네 마음을 내 다 안다. 섭섭해 하지 말거라. 머리도 울리지 않은 너를 그대로 둘수 없구나.》

자리에서 일어 난 어머니는 종시 삽작문을 나섰다.

아들의 죽음을 믿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자 달너는 그만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다.

어머니가 이렇진대 동네사람들은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모두 자기앞에서는 한용세가 살아 있을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한갓 자기를 위안하는 소리에 불과하였다.

좌절감은 어느덧 고독감으로 변했다.

하루는 리위원장아바이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발으로 일하러 나가는 달너를 자기 집으로 조용히 불러 들이였다.

방안에는 견장을 펜 군관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군인민위원회 지도원(부원)이다.》 친절하게 소개해 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달너는 밖으로 나왔다. 그를 따라 나선 아바이는 전선에서 부상당하고 제대된 중대장이라고 말해 주었다.

《좋은 자리 같은데 시집을 가는게 어떠냐? 사방에서 말이 있는데 저 사람이 너한테 제일 합당할것 같다. 한용세 어머니하고도 의논이 있었다. 그동안 네가 혼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고생인들 오죽 했겠냐.》

한용세의 죽음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 하던 리위원장아바이가 아닌가.

《가슴 아파도 어찌겠냐. 약혼식도 결혼식도 하지 않은 너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아바이는 가족이 없는 그 젊은이가 한용세의 어머니를 모시려 한다는것과 너희네가 결혼하고 셋이 모여 살면 동네에서도 큰 시름을 덜겠노라고 말했다.

달너는 머리를 들었다.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눈으로 아바이를 보다가 다시 머리를 떨구었다.

《그럼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봐라.》

달너는 머리를 숙인채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달너는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이는 죽을수가 없어. 난 기다릴테야.》

달너는 아픈 마음을 이겨 내려 종일 발에 올라가 강냉이가을을 하였다.

날이 어두워져 앞이 잘 보이지 않자 비로소 일손을 멈추었다.

달너는 강냉이짚단을 안아다가 이삭무지를 덮어 놓았다. 집으로 돌아 가려고 강냉이이삭이 들어있는 무거운 망태기 세개를 지게우에 얹어 놓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어찌나 피곤한지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 드는것만 같았다. 숲이 우거진 컴컴한 골짜기에서는 쉼- 하고 바람소리가 들려 왔다.

어느새 올라 왔는지 개가 옆에 와서 불안하게 짹짹거리며 달너의 옷자락을 자꾸 물어 당기었다.

한용세와 작별하던 그 밤 강쪽에까지 따라 나와 두사람을 말끄러미 쳐다보던 그 강아지가 벌써 중개가 되었던것이다.

개를 지켜 보던 달너의 머리에 피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달너는 지게를 벗어 버리고 집으로 달려 내려갔다.

어스름이 깔린 마당은 무덤속처럼 고요했다.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할 집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여 나오지 않는다.

《어머니, 어머니.》

달너는 문을 뚫 열어 제끼고 컴컴한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달너는 문턱에 발을 걸채이며 정지칸을 거쳐 옷방까지 올라 갔다.

한용세 어머니가 가지고 온 장농이 보이지 않는다.

달너는 무너지듯 구들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달너는 자기가 잘 모시지 못해 어머니가 가버린것이라고만 생각되었다.

한용세는 전선에 나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어머니마저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찔다.

그이가 돌아 오면 무슨 낯으로 대한단 말인가.

달너는 두손으로 가슴을 쥐어 뜯었다.

개가 허바닥으로 달녀의 손등을 핥아 주었다.

달녀는 자기가 울고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개를 두팔로 부둥켜 안고 안타깝게 말했다.

《네가 좀 말해 다오. 그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너도 그이가 떠나가는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이는 가슴에 당원증을 품고 가셨다. 그이는 자기 가슴에 바위돌이 들어 앉은것처럼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 섰다.

한용세네 집은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달녀한테 와 있는 동안 이 집에는 강원도쪽에서 온 피난민가족이 들어 있었다.

집안에는 그 집 식구들만이 아닌 동네 늙은이들도 앉아 있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싸리풀사람들도 달녀를 형님네 며느리라 하고 있지 않겠소. 머리도 없지 않은 처녀에게 그보다 더한 허물이 어디 있겠수.》

집안에서 한 늙은이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한용세 어머니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그 애처럼 마음 착한 처녀는 세상에 둘도 없을걸세. 아까운 처녀를 생과부로 만들어서는 안되지. 그래서 나도 그 애와 헤어지는것이 가슴 아프지만 나오고 말았네.》

(그래서 어머니가?)

달녀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 졌다.

모두가 한용세를 뒤편에 밀어 놓고 어째서 자기만 걱정해 주고 있는것인지 안타깝고 분했다.

결혼한 부부라면 자기를 걱정해 줄 때면 자연 남편의 이야기도 곁 따라 하게 될것이다.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그날 밤 사람들앞에서 머리라도 없어 달라고 했을걸... 후회가 막심했다.

여기까지 생각한 달녀의 머리속에는 한가지 모진 결심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이제라도 머리를 없애 달라고 하자.)

이윽고 달녀는 한쪽 끝이 부러진 가위를 움켜쥐고 세포위원장네 집으로 뛰어 들었다.

《언니, 머리를 없애 주세요.》

깜짝 놀란 세포위원장댁은 눈이 휘둥그레 지며 달녀를 마주 보았다.

달녀가 머리카를 자르고 새각시처럼 머리를 없으려는 결심을 말하자 세포위원장댁은 심각해 지며 말했다.

《결혼한 녀인만이 머리를 없앨수 있어. 너는 아직 처녀야.》

《언니, 나한테는 그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언니, 몰라서 물어요? 그이가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묻는가 말이에요.》

《너희들은 약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하지

않았다. 한용세가 돌아 온 다음에 머리를 없애자구나. 머리를 없애는게 바쁘지 않다.》

《언니, 난 바빠요. 언니가 못해 주겠다면 내 손으로 자르고 말겠어요.》

달녀는 얼굴을 옆으로 꺾 돌리었다.

등뒤에 있던 치렁치렁한 머리채가 어느새 풍만한 가슴우에 늘어 졌다.

그는 한손으로 탐스런 머리채를 휘감아 잡고 당기면서 가위를 귀밑에 가져다 대고 썩썩썩 머리를 잘랐다.

세포위원장댁은 더 말을 못하고 처녀의 손에서 가위를 앗아 냈다.

그리고 벽에 걸려 있는 거울을 부랴부랴 벗겨내려 벽에 기대여 세워 놓았다.

등불을 하나 더 켜놓고 달녀를 거울앞에 꿇어 앉히었다.

세포위원장댁은 달녀의 머리를 정히 자른 다음 들어 올리고 자기가 시집 올 때 꽃았던 은비녀를 꺼내어 그의 머리에 찔러 주었다.

《오늘 밤 여기서 나와 함께 자자구나.》

세포위원장댁은 쓸쓸한 빈 집에 달녀를 혼자 보낼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달녀는 잠깐 생각해 보고 나서 머리를 가로 저었다.

《집으로 가겠어요. 그이가 밤중에 들어 설수도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이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나요.》

달녀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울망줄망한 아이들중에서 제일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큰 아이는 손목을 잡고 집을 나섰다.

결에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했기때문이었다.

5

조국해방전쟁이 승리한 기쁨속에 세월은 흘렀다.

달녀는 집을 떠난지 닷새반만에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새벽부터 쓸쓸한 싸락눈이 내리더니 그가 기차에서 내린 한낮 때부터 배꽃 같은 함박눈이 펄펄 쏟아 저 내렸다.

폭격에 재더미가 되어 버린 평양에서는 이 겨울에도 복구건설이 한창이었다.

달녀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 가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찾아 갔다.

그 곳에 한용세의 사진이 붙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튿날로 떠난 달녀였다.

집으로 돌아 와야 할 사람이 어째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사진으로 나타났을까?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언젠가는 한용세가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던 달녀는 처음으로 당황해났다.

영웅관에 들어 선 달너는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속에서 인차 한용세의 얼굴을 찾아 냈다.

한용세는 금빛액틀속에서도 달너를 침착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툼한 입귀가 조금 벌어 지었는데 자기를 찾아온 처녀한테 금시 말을 던질것만 같았다.

달너는 어마지무 손을 올려 머리를 비다듬으며 저도 모르게 《여보.》 하고 가만히 불러 보았다.

한용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었다.

달너는 고통스럽게 눈을 내리깔았다.

순간 유리진렬장안에 있는 피 묻은 당원증이에 눈에 확 안겨 왔다. 심장에서 분출한 더운 피가 당원증을 적서 놓아 사진도 이름도 잘 알아 볼수 없었다. 그런데 당원증밑에 반쳐 놓은 당원증주머니가 눈에 익었다.

달너는 아프도록 눈을 꼭 감았다가 뜨며 다시

보았다. 자기가 코바늘로 한뼘한뼘 정성들여 떠서 만든 그 당원증주머니였다.

(아, 분명 전사했구나.)

달너는 불 타는 눈길로 다시 한용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기다리던 한용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왔구만!》

달너는 물기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를 끝내 알아 보셨군요! 당신이 없이 머리를 었었다고 탓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는 껍늬으셨구요. 우리는 갈라 졌다가 다시 모여 살고 있어요. 이번에 어머니도 함께 오자고 했는데 제가 먼저 가보고 오라 해서 혼자 왔어요.》

《달너가 찾아 와서 기쁘오!》

《래년 봄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어요.》

달너는 눈물을 겨두었다.

물은 어떻게 오는가

김화남

산을 허물고 골을 메우며
바위를 까고 굴을 뚫으며
우리는 열었다
개천-태성호 수백리 물길을

힘겨웠어라
급이급이 산허리를 허물어
연연히 산줄기마냥
천년제방을 쌓아 올리기에는

물길을 내면서도 물이 없어
한고뿌 한고뿌 아껴 가며 밥짓던 안타까움
숨 막히는 피약별, 씻은 뒤 없이 흐르던 땀
때로 곡괭이날에 점점이 묻어 나던 찰흙과의 싸움...

기계의 힘을 바랬던가
그 어느 다른 손길을 기다렸던가
있는것보다 부족한것이 더 많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한방울 한방울의 물이 모여
내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
이 땅에 사는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모여
장쾌한 대하를 이룬 흐름이어

등짐도 좋다!-
맛들이도 좋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고 또 달린 웃음의 대하
그것은 물보다 먼저 찾아 온것이였다

제방을 위협하는 물사태
그러면 하나가 되어
어깨 결고 막아 내던 그 의지
그것은 돌보다 먼저 쌓여 진
뜨거운 마음의 제방이였다

물은 어떻게 오는가
끝끝한 젊은이들의 팔뚝을 거쳐
결코 연약하지 않은
애어린 건설자처녀들의 손을 거쳐
또 그날의 옛 군복을 떨쳐 입고
노래를 불러 주던 로병들의 어깨를 거쳐
물은 흐르나니
거창하게 뻗어 흐르는
개천-태성호물길이어

오, 흐르라 물길이어
유유히 흐르는 네 물결우에
하많은 사연 다 싣고
강성대국의 새 력사 물의 새 력사를 노래하며
철철 넘쳐 흐르라
천만년 길이 흘러 흐르라

깊이속의 깊이를 찾자

-두 단편소설의 매력과 아쉬움-

한철

때때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게 되는 노래가 있다.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던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었던가...

가슴속에 금지도 남겼고 아픔도 남긴 잊지 못할 날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속에는 1930년대의 항일혁명전쟁도 있고 1950년대의 반미항전도 있으며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도 있다.

우리 조국의 현대력사에서 민족의 생사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판가리싸움을 치른 이 나날들은 우리에게 계급투쟁의 엄숙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특히 20세기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은 제국주의자들, 계급적원썹들과의 총포성 없는 준엄한 대결전이었다.

파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지니고 이 엄혹한 시련을 이기고 사회주의붉은기를 지켜 냈던가...

감회 깊은 추억속에 사색의 세계를 펼쳐 가는 우리앞에는 두편의 인상 깊은 소설들이 놓여 있다.

단편소설 《옥계천물소리》(홍철진작, 《조선문학》 주체90년 9호)와 단편실화소설 《시대의 발걸음》(로정법작, 《조선문학》 주체90년 7호)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 나라 현대력사의 운명적인

두 시기 즉 1950년대와 1990년대 영웅들의 형상을 단편적인 구성속에서 뜻 깊은 생활세부와 흥미 있는 사건선에 담아 매력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최근시기 창작된 수많은 단편소설들가운데서 이채를 띠고 있다.

이 작품들이 두 시대 계급투쟁의 영웅들을 말 그대로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인상 깊게 그려 낼 수 있는것은 엄혹한 시련의 한복판에 선 인간들의 호상관계를 인생관의 관계로 깊숙이 몰려 놓고 그것이 드러나는 생활을 찾아 생동하게 엮어 나간데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제나름의 인생관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호상 교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서로의 인생관이 드러날수 있게 인물들의 교감을 깊이있게 보

여주어야 그들의 운명문제를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다.》

단편소설 《옥계천물소리》에서는 주인공 송기덕과 그의 안해 분녀 그리고 서기장과의 아담한 인물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사이의 교감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 무엇이 평범한 농민을 조국수호의 영웅으로 키웠는가를 깊이 있게 밝히고 있다.

송기덕과 안해 분녀는 결혼한지 반년밖에 안되는 신혼부부사이관계이다. 이것은 서로 헤어지면 서 느끼는 석별의 정을 단순화하지 않고 그들의 교감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 들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전장으로 떠나는 남편에게 대추집할머니의 말대로 꼭 술을 대접하려는 분녀의 웅심 깊은 사랑과 술이라면 단 한잔도 입에 대지 못하면서도 안해가 부어 준 그 술을 다 마셔 버리는 송기덕의 마음은 하나로 어울려 참으로 인상 깊게 안겨 온다.

그 사랑과 행복이 귀중하기에 그것을 지켜 잘 싸우겠다는 전사의 심정이 긴 설명이 없이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 졌다.

머리가 핑 돌고 주위가 빙빙 돌아 가는 그 순간 송기덕은 분녀에게 노래를 청했다. 분녀는 수줍음을 이기고 《너성의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송기덕도 눈물이 글썽하여 《발같이노래》를 불렀다. 땅의 주인으로 살아 온 꿈 같은 5년간을 품에 안고 송기덕은 그만 잠들어 버렸다.

기덕은 전선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지만 분녀가 아무리 안타까이 흔들려 깨워도 종시 깨여 나지 못한다.

호송군관은 대렬을 데리고 떠나버렸다.

《군사재판이라는게 뭘지 알아? 총살이야, 총살-》

서기장이 누구에게라 없이 버럭 소리치고 분녀와 함께 송기덕을 찾아 달음질을 친다.

그렇다면 서기장이 욕하듯이 먹을줄 모르는 술을 퍼먹이는 사람이나 그걸 쭈쭈 받아 먹는 사람이나 다 같고 같은것인가? 아니다.

술을 대접시킨 안해도 그러하지만 그 술을 받아 먹고 만취되어 버린 송기덕에게도 잘못이 없다.

누굴 탓하겠는가?

안해는 전선으로 떠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은 안해의 정을 마지막으로 받아 주었는데야...

준엄한 싸움길을 앞에 두고 그가 마신 술에는 너무도 많은 뜻이 담겨 있는것이다. 그것은 반년 밖에 같이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사랑까지 약속하여 마시는 술이었으며 안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나아가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에 한몫 바칠 각오를 다지며 마신 술이었다.

작품은 이렇게 인상 깊은 술세부를 놓고 맺어지는 부부간의 관계를 그들의 섬세한 교감속에서 잘 그림으로써 인민을 영웅으로 키운 그 정신적 근원이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심오히 밝혀 냈다.

작품은 또한 그들의 관계를 촉매인물인 서기장과의 관계속에서 더욱 뜻 깊게 그려 주었다.

아마도 서기장이 술에 만취된 송기덕을 옥계천의 물속에 쌀자루 메치듯 처넣지 않았더라면 진짜 군사재판에 넘어 갔을지도 모른다. 옥계천 물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름길로 달음쳐 전선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영웅이 다 뭔가?...

안해는 남편을 끝없이 사랑하던 나머지 남편의 운명에 일생 도피분자로서의 수치를 줄번 했지만 서기장은 그 파오에서 건져 내어 영웅으로 키워냈다. 여기서 서기장의 손길은 인민을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살며 싸우도록 이끌어 주는 인민정권의 손길인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에서는 저들의 행복에만 도취되어 있던 젊은이들을 참되게 이끌어 주는 서기장의 모습을 통하여 더 깊은 철학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작품은 이들의 관계를 통하여 술이 아니라 옥계천의 물이 바로 송기덕을 영웅으로 키웠다는것을 보여 줌으로써 향토애, 조국애의 정신이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감정이라는것을 감동깊이 밝히었다.

《옥계천물소리》가 1950년대 영웅정신의 기초를 밝히었다면 단편소설화소설 《시대의 발걸음》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정신의 기초를 밝히고 있다.

작품은 《고난의 행군》시기 투쟁기풍과 일본세에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시대적요구에 발 맞추어 뛰고 또 뛰는 한 일군의 전형을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 아마 《고난의 행군》시기 앞채를 메고 달리고 또 달리는 일군의 참된 원형을 소재로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으로서는 이만한것이 없다고 볼수 있다.

안해를 잃은 불행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허무를

오직 드바쁜 일속에서 잊어 버리고 강한 원칙과 요구성을 지니고 시대의 발걸음에 맞춰 나가는 지배인 조성호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 깊다.

작품에서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의 성격이 끝없이 숭고하게 안겨 오면서 진실하게 살아 나게 된 요인은 비교적 구성을 깊이 있게 맞물려 놓은데 있다.

작품은 단편소설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인물이 나오며 그런것만큼 인물관계도 복잡하고 여러해동안의 많은 생활이 그려 지고 있다. 조성호와 딸과의 인정관계가 펼쳐 지는가 하면 조성호와 후처와의 애정관계도 그려 진다. 또 조성호와 관리국당비서 한경숙과의 조직적관계도 있고 가공직장장 박동수사이의 갈등관계를 축으로 농장관리부위원장 리채만사이의 연고관계도 펼쳐 진다. 또 그와 직장처녀들사이의 일화적인 관계도 있다.

작품에는 무려 10명이상의 인물이 나오며 이야기 줄거리도 300리길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갈래의 생활선을 타고 전개된다. 보다싶이 거의 중편적인 구성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작품이 지루감이 없이 읽히면서 시대정신이 인상 깊게 안겨 오는것은 인물관계는 깊이 있게 짜고 적중한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이야기를 립체적으로 흥미 있게 엮어 나갔기때문이다.

특히 인물관계설정에서 평균주의를 하지 않고 조성호와 박동수, 조성호와 후처의 관계를 인생관의 견지에서 맞물리고 그들의 교감세계를 섬세히 줌으로써 형상의 집약화, 집중화를 실현할수 있었다.

작품에서 조성호와 안해 미영이의 관계를 단순한 애정관계로 맺지 않았다. 미영이가 쓴것처럼 재가의 문턱은 높았다. 동네아낙네들의 눈길이 두렵고 평범한 노동자를 택했으면 하는 후회마저 있다. 그러나 차츰 정이 들면서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도 리해되었다.

작품은 그들의 교감세계를 진실하게 펼침으로써 단순히 상처한 집안에 들어 가는 후처로서가 아니라 《고난의 행군》시기 시대의 발걸음에 맞춰 애써 일하는 일군을 힘껏 떠밀어 주는 혁명동지로서 성장하는 미영을 그려 줌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앞서 동지관계로서 맺어 놓은것이다. 하기에 남편을 도와 진거름을 나르며 애쓰는 미영이를 보고 조성호는 당신은 내가 제일 힘겨워 할때 내 곁에 서준 동지라고 가슴속깊이 느끼는것이다.

미영의 정신세계는 점차 남편인 조성호를 따르면서 끝없이 숭고하게 펼쳐 진다. 그는 목장의 짐승을 위한 드물달구지도 끌며 남편이 바빠 하

는 곳인 방원에도 자진해 간다.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의미로 보충되고 풍만해지는 생활을 느끼며 그 생활의 한몫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부한다.

하기에 그는 가을에 가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향땅, 길지 않은 이랑에 바친 자기의 땀과 량심의 무게가 정확히 계산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있다.

이리하여 재가의 문턱에 관한 세속적이고 인정적인 문제는 《고난의 행군》정신에 대한 심오한 문제로 심화되어 깊이 있게 해명되었던것이다.

여기서 조성호의 딸 영순의 설정이 인상적이다. 후처인 미영이가 항상 드바쁜 남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조성호에 대한 깊은 인식을 준것은 바로 영순이었다. 영순에 의하여 조성호와 미영이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로서가 아니라 시대의 발걸음에 조화를 맞추며 뜻을 같이 하는 혁명의 참된 길동무로서의 운명적인 관계로 되었다.

작품에서는 또한 조성호와 농장관리부위원장 리재만과 직장장 박동수의 관계속에서 다 같은 사상으로 교양 받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관의 깊이에서는 아득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그들의 교감세계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리재만은 지배인때문에 회의를 한번 가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처지이다.

그것은 도와 주러 온 지배인네는 뛰는데 당신들은 왜 앉아 몽개는가 하는것이다. 때문에 리재만은 이렇게 가다가는 2~3년이면 다 자리를 내놓게 될 판이니 너무 들볶지 말기를 조성호에게 사정하는것이다. 그는 우에서 뭐 대주는게 있는가 하는 불평뿐이다.

조성호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리재만은 전형적인 요령주의, 보신주의자로서 형상되었다. 그의 이러한 인생관은 박동수와 관계속에서 더욱 심각히 해부되고 있는것이다.

박동수는 진거름에 흙을 절반가량 섞어서 밭에 냈다. 그것은 조성호가 말하다 싶이 박동수의 량심속에 흙이 절반나마 섞였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지배인의 《관료주의》의 벌로 300리 먼 길을 걸어 온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않는다.

하기에 리재만은 프락포르도 타지 않고 끝내 걸어 오는것이다. 이 사건이 또한 리재만의 보신주의와 요령주의에 된타격을 가하는 몽둥이가 되어 조성호의 참된 풍모를 다시한번 깊이 들여다 볼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는것이다.

작품은 이처럼 조성호의 인생관을 다면적으로 설정된 공부정의 인물관계속에서 서로의 교감세계를 통하여 밝힘으로써 시대의 발걸음에 적극

따라 서야 할 우리 시대 일군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준엄한 시기에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 붙은 사람한테는 못할 조건이 없다는 진리를 힘 있게 천명하고 있다.

참으로 《옥계천물소리》와 《시대의 발걸음》은 준엄했던 두 시기 20세기 50년대와 90년대의 인간들의 성격을 깊이 있는 구성속에서 잘 밝혀 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매혹속에서 찾아 보는 아쉬움은 더 큰 법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 두 작품이 다같이 계급적견지에서 인물관계와 이야기를 더 심화시킬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것이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20세기 50년대와 90년대는 우리 민족의 현대력사에서 가장 준엄했던 계급투쟁의 시대였다. 그런것만큼 이 시기 시대의 영웅들의 형상은 그 어떤 소재를 다루든 상관없이 그 묘사시점이 계급적선에서 날카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더우기 우리 문학은 선군혁명문학이며 여기에 반영할 생활철학도 다름아닌 총대철학인것이다.

단편소설 《옥계천물소리》만 보더라도 전쟁을 이긴 인민의 사상정신적인 기초를 밝히려고 하였는데 분녀와 송기덕의 관계속에 보다 깊은 계급적자각, 계급투쟁의 원리를 구현시키지 못한 공간을 남기고 있다.

안해에 대한 사랑, 고향의 옥계천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결국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물론 옳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 가 보아야 한다.

이 작품은 전쟁물주제이다. 전쟁물은 역시 계급투쟁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전선에 나가는 남정들은 옥계리농사군들이다. 그들에게는 부락이 있을것이다. 그 부락속에는 계급적원썹들을 기어이 한놈도 놓치지 말고 쳐엎어야 한다는 지난 날의 뼈저린 교훈이 있을것이다.

그 생활이 다시 오지 않게 하자면 계급적원썹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부락, 당부, 자각이 있어야겠는데 술과 관련한 세부로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소설에서 옥계천의 물이 영웅을 만들었다기보다 술에 의하여 영웅이 된듯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 3년동안 보 관해 온 술병을 꺼내놓는 안해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송기덕이 느끼는 대목만 보아도 알수 있

다. 물론 이 대목이 처음에 술때문에 혼란것으로 하여 다시 이어 졌기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고 도 남는 인상 깊은 세부이고 감동이 큰 생활이다.

작품에서는 술속에 조국해방전쟁 3년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는것과 이게 어찌 술만이라, 그것은 자기를 기다린 분녀였고 아들이었으며 고향 옥계리라고 표현하면서 송기덕이 자기도 모르게 영웅메달에 손이 갔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옥계리가 받아야 할 영웅메달을 자기가 달고 있는것만 같이 생각하고 있는것이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서 평가기준은 다를수는 있지만 어쨌든 술과 영웅이 련관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또 서기장도 전선으로 떠나는 남정들은 인민군대로서 옥계리의 자람이며 전선으로 가게 되면 옥계리망신을 시키면 안되겠다는것으로 그치고 있다. 술에 취한 송기덕을 옥계천에 처넣어 깨여 났을 때에도 고향망신만 생각하며 《옥계리가 그렇게 만문해 보여》 하는 말로써만 자각을 시킨다.

이런 정황에서 웅당 서기장은 그가 정신차리게 한 다음에 인간이하의 천대만을 받아 오던 송기덕에게 땅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대하여, 수령님께서 주신 그 땅이 하도 귀중해 그 땅을 지켜야 할 농민의 본분에 대해, 피땀이 스민 고향땅을 놔들에게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계급적자각을 불러 일으켜야 했을것이다.

작품은 순진한 사람과 계급적으로 자각한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서로의 교감세계를 밝혔더라면 깊은 구성속에서 그들의 운명문제가 보다 더욱 인생관적으로 심화될수 있는것을 놓쳤다.

깊이속의 깊이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단편실화소설 《시대의 발걸음》 역시 제목에서 보는것처럼 앞채를 메고 달리는 일군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매혹된 나머지 여기에 보다 깊은 계급적자각을 체현시키지 못한 부족점이 있다.

다시말하여 서로의 교감속에서 그들의 계급적관점과 립장까지 드러날수 있게 한계단 더 깊이 들어 갔어야 했을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운명적인 관계가 보다 중심이 깊게 물려 들어 가고 인생관의 깊이에서의 차이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행군》도 다 적들의 고립압살책동에 기본원인이 있었던것만큼 준엄한 시련속에서 계급적대를 날카롭게 세우는 이런 일

군들의 심리는 명확히 안겨 오지 않는다.

작가는 아름다운 인간들을 찬양하려는 열의에 차넘쳐 시대에 역행하는 변질된 인간들을 더 깊이 계급적관점과 립장에서 투시하여 보려는 탐구정신을 가져야 하였다.

오늘 주체의 사회주의붉은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투쟁에서 신념이 약하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당에 속을 주지 않고 제살 궁리만 하는 변질된 인간들이 나오기마련이며 실지 우리 생활속에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것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리재만을 안일과 보신을 부리는 인물로서만 규정할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계급의식에서 일어 난 변화가 그러한 안일과 보신을 낳게 되었다는것을 밝혔어야 하였다.

그러나 조성호는 리재만의 불평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비대해 진 몸의 살이 쑥 내리게 뒤흔 생각만을 속으로 하는것으로 그쳤다.

또 박동수의 량심속에 흠이 절반나마 섞였다는 도덕적인 해명에 그칠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적들이 바라는대로 움직인 반혁명적행위라는 각도에서 보다 날카로운 사상적대결로 그들의 교감세계를 펼칠수 있었을것이다.

이 문제는 구태여 그 어떤 새로운 생활선을 더 넣어야만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선을 그대로 두고서도 조성호의 심리세계묘사와 대사속에 보다 의미심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간단한 작업으로도 해결될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작가는 그것을 놓쳤다.

좀 파장해서 말한다면 생활을 자꾸 량만적으로 재미 있게만 그리자는데 치우쳐 있다. 역시 깊이속의 깊이를 보장하지 못한 아쉬움이다.

오늘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가장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 지고 있으며 미제호전광들의 포악한 도전에 맞받아 일떠선 전 인민적 분노가 화산의 불길로 타번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기 90년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적으로 돌파하였는가, 우리는 무슨 힘으로 남들 같으면 열번, 백번도 더 넘어 졌을 그 간고한 길에서 약해 진것이 아니라 더 강대한 나라로 세계에 솟구쳐 올랐는가.

그것은 백두산장군의 선군혁명령도의 강력한 힘이였으며 계급적원썹들과는 추호의 타협도 없는 영웅적투쟁이었다.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 질수 있어도 계급적자각에서만은 절대로 벗어 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군혁명시대에 창작된 두 문학작품을 보고 평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